

인도네시아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1
2. 정치사회동향 /2
3. 한국과의 주요이슈 /6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10
2. 주요 산업 동향 /16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19

III. 무역

-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20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0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21
대한수입규제동향 /24
관세제도 /26
주요인증제도 /28
지적재산권 /29
통관운송 /32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36
- 외국기업 투자동향 /39
- 우리기업 투자동향 /41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43
- 진출형태별 절차 /47
- 투자입지여건 / 49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60
- 조세제도 /63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64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특성 /65
2. 바이어발굴 /67
3.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 76
4. 무역, 투자 진출시 애로사항 /81
5. 진출 성공, 실패 사례 /82
6. 이주정착 가이드 /84
7. 출장가이드 /89
8. 물가정보 /109



1992 Mapline Geographics/Smithsonian Barbers, CA (100) 929-4627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인도네시아 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위치	동남아시아
면적	190만 km ² (한반도의 9배)
기후	열대성 몬순기후, 고온 무풍다습
수도	자카르타 (인구 약 1,050만 명, 면적 664km ²)
인구	약 230 백만 명 (세계4위)
주요도시	자와섬 : 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둥, 족자카르타, 스마랑: 수마트라섬 : 메단, 팔렘방, 빠당 칼리만탄 : 뽀띠아낙 술라웨시섬 : 마카사르: 발리섬 : 덴빠사르:
민족(인종)	자바족(45%), 순다족(13.6%), 아체족, 바딕족, 발리족 등 300여 종족
언어	인니어(Bahasa Indonesia)
종교	이슬람교(89%), 기독교(5%), 힌두교(3%), 불교(2%), 유교(1%)
건국(독립)일	8월 17일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대통령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취임일 2004.10.21(임기 5년)

자료원: 인니통계청, 인니정부

나. 경제지표 (06년 기준 & 07년 예상치)

GDP	US\$ 3,645억, (\$4,185억불_07년 예상치)
실질경제성장률	5.5% , (6.2%_07년 예상치)
1인당 GDP	US\$1,572
실업률	10.3% (9.6%_07년 예상치)
물가상승률	6.6% (6.3%_07년 예상치)
화폐단위	Rupiah (Rp)
환율	US\$1 = Rp 9159 (Rp 9390_07.12.19기준)
외채	US\$1317억 (\$1,366억 07년 예상치)
외환보유고	US\$ 425억불 (537억불_07년 예상치)
산업구조	석유.가스 산업, 농업, 제조업이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
교역규모	US\$ 1,773억 (수출 US\$ 1,035억, 수입 US\$ 738억)
주요교역품	수출: 원유, 가스, 임산물, 금속광물, 종이제품, 섬유, 신발, 혁제 수입: 기계류, 자동차, 산업용 및 가정용전자, 전자부품, 유기 화학 제품

자료원: 인니통계청, 인니정부 (07년 전망치 EIU)

다. 한-인니 관계

체결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71.8) ○ 건설협력 양해각서(81.7) ○ 임업협정(87.6) ○ 항공협정(89.9) ○ 이종과세 방지협정(89.11) ○ 투자보장협정(91.2) ○ 법무자료 교환협정(96.12)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협정(97.11) ○ 건설협력약정(99.4) ○ 범죄인 인도협정 및 문화협정(00.11) ○ 사법공조협정(02.3) ○ 자원협력협정(02.4) ○ 도로협력약정(03.1) ○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06.5) ○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06.12)
교역규모	US\$ 137억 (\$131억_07년 11월 까지)
교역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인니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유, 전자 부품, 정제 및 합금 금속(동, 아연), 무선통신장비 및 부품, 석유화학제품, 반도체, 자동차, 직물류 등 ○ 대 인니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 가스, 고무, 석탄 및 니켈 등 광물자원 등
투자교류	1967-2006.11월기간 동안 한국은 2610건 US\$141억9백만불 투자 진출 (인니투자청(BKPM) 승인기준), 국내 투자 유치는 전무
교민	약 3만 5천여 명 추정 (자카르타 30000명 이상, 수라바야 3000명, 반둥 400명 발리 250명 족자 120명, 메단 60명 바탐 15명 등)

자료원: 인니통계청, 인니정부

2. 정치 사회 동향

가. 정세일반

인도네시아는 1945년 독립 이후 1998년까지 수카르노와 수하르토 단 2명의 대통령이 집권하였다. 그러나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여파로 1998년 5월 수하르토 대통령이 하야한 이후 하비비 대통령의 과도정부 구성, 1999년 10월 대선에서 와히드 대통령의 당선, 2001년 7월 와히드 대통령의 탄핵에 의한 실각과 메가와티 부통령의 대통령 승계 등 불과 3년 사이에 3명의 대통령이 교체되는 혼란기를 맞았다.

Megawati 대통령은 Wahid 전 대통령의 잔여 임기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으며, 각 정당, 전문각료를 적절히 분배한 협동내각(Gotong Royong Cabinet)을 발족시키는 등 정치, 사회적 안정에 치중하였다. 이에 따라 Megawati 대통령 취임 이후 루피아화 가치가 급등하여 1불당 8,500선을 회복하는 등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보였으나, 9.11 미국 테러 참사 이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반대하는 일부 인니 단체들의 미국인 공격 위협, 반미 시위 전개로 루피아화 가치가 다시 하락하였다.

Megawati 대통령은 임기 중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마련이 미흡했고, 부정부패가 더욱 극심해졌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나, 2002.8월 개최된 연례 국민협의회(MPR)에서 2004년부터 대통령 및 부통령을 국민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키로 하는 한편, 군과 경찰에게 배정되었던 DPR(국회) 및 MPR(국민 협의회) 의석을 폐지키로 하는 등, 민주화 및 개혁에는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4년 4월 5일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국민 직접 총선에서 메가와티의 정책에 대한 불신과 과거 수하르토 정권에 대한 향수로 수하르토의 골까르당이 다시 제 1당으로 부상하였으며 메가와티 현 대통령의 투쟁민주당은 2당으로 몰려섰다.

2004년 7월 5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는 모두 5명의 후보가 출마하였고, 그 중 투쟁민주당의 메가와티 대통령과 골까르당의 위란토 후보, 민주당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후보가 각축을 벌였다. 그 결과 유도요노 후보가 1위, 메가와티 후보가 2위, 위란토 후보가 3위를 차지하였으나, 누구도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해 1위인 유도요노 후보와 2위인 메가와티 후보가 결선 투표에 나서게 되었다. 9월 20일 실시된 결선투표에서 유도요노 후보는 메가와티 후보를 62:38의 큰 표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군 출신의 유도요노 후보는 메가와티 정부의 정치·안보 조정장관을 지냈으나, 청렴하고 고지식한 성격으로 인해 대통령과 불화를 빚어 사퇴한 바 있다. 유도요노 후보는 정치적 기반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도가 높아 과거 수 십 년 동안 집권한 골까르당의 강력한 조직과 메가와티 후보의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선 후 집권당인 민주당은 10% 밖에 안되는 의회 의석수로 인해, 투쟁민주당과 골까르당은 선거 패배에 따른 내부 혼란으로 인해 각각 어려움을 겪었다.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골까르당의 소장파들이 유도요노 후보를 지지한데 반해 악바르 탄중 당 총재 등 원로들은 메가와티를 지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유도요노 후보가 결선투표 지지를 대가로 각료 배분 등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었다. 12월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악바르 탄중 골까르당 총재는 총재직에서 축출되었으며, 유도요노 후보의 런닝 메이트로 골까르당원인 유습 깔라 부통령이 당 총재로 선출되었다. 이에 따라 유도요노 대통령은 의회에서 골까르당의 지원을 받게되어 큰 힘을 얻게 되었으나, 반면에 부통령의 파워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감수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2004.10.21 취임한 유도요노 대통령은 취임 100일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부정부패 척결, 투자유치 확대, 국가 인프라 확충 등 정책 목표를 내세우면서 경제발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반응도 좋아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S & P는 2004년 12월, 인니 장기외채의 신용등급을 B에서 B+로 상향 조정하였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국가 인프라 확충, 투자 유치, 부정부패 척결을 중점 정책과제로 삼고, 2005년초 자카르타에서 인프라 서밋을 개최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니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2004년말 발생한 쓰나미 재난도 자카르타에서 피해복구를 위한 ASEAN 특별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여 자연재난의 위기를 외국 원조 확대의 기회로 연결시키는 수완을 보여주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취임 후 각종 행사와 말레이시아, 호주, 싱가포르 등 인근국 순방외교를 통해 투자유치 확대를 꾀하고,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인프라 확충 등을 도모하고 있으나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6년 11월 초에 개최한 '인도네시아 인프라스트럭처 2006'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담 이후 일본, 러시아 등을 국민방문해 정상외교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지역내 위상 강화를 적극 도모해 가는 중이다. 2006년 11월 20일에는 미국 부시 대통령이, 12월 초에는 노무현 한국 대통령이 국민으로 방문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역내 위상이 크게 강화되기도 하였다.

2007년에 들어와서는 2005년 말 유가인상으로 침체되었던 경기가 회복되고, 6%대의 경제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어 국내외 적으로 정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유도요노 대통령의 고지식하고 우유부단함을 이유로 집권 후반기 그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될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2009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이해와 움직임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점은 현 부통령인 유습칼라의 움직임이다. 보통 그동안의 통상적인 부통령의 역할은 대통령의 행사를 대참하는 등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보좌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으나, 현 유습칼라 부통령의 경우 과감하고 신속한 정부내 활동으로 조용 하고 신중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로 인해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실세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의회내 다수당의 총재를 겸하고 있는 부통령은 10월 이슬람 연휴기간 동안 정치원로들을 잇따라 방문하고 주요 지방 도시를 방문한 점을 들어 대권을 향한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07년 11월에 발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현 유도 요노 현 대통령 28%, 메가와티 전 대통령 15%에 비해 현저히 낮은 2%의 지지도를 보여주었으며, 유도요노 대통령과 1대1 대결에서도 66%대 15%로 큰 차이를 보이고 당장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시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당분간은 현재와 같은 정치적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대세를 얻고 있다.

나. 분리독립 문제지역

2001년 5.5 유엔 사무총장 주선하에, Alatas 인니 외무장관과 Gamma 포르투갈 외무장관이 동티모르 자치안을 포함한 일반협정, 주민협약방식 협정, 치안유지 협정을 체결하여, 동티모르 자치안에 대한 동티모르인의 주민투표가 유엔주관으로 8.30 실시되었다. 이 투표에서 찬성 21.5%, 반대 78.5%로 동티모르 자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거부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친인니계 민병대원들의 난동으로 수백명의 동티모르 주민이 사망하는 등 동티모르내 치안부재 상태가 초래되어, 인니정부는 동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증파하였으나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은 동티모르의 평화회복과 치안유지를 위해 9.15 다국적군을 파견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유엔결의 및 인니 정부 요청에 따라 보병, 공병 및 의무대 등 419명을 동티모르에 파견, 다국적군에 참여 하였다.

국민협의회 (MPR)는 10.19 동티모르 독립을 공식 비준하였으며, Wahid 대통령은 동티모르에 대한 인니 주권의 이양에 관한 공한을 10.28 Annan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함으로써 동티모르에 대한 24년간의 인니 통치는 공식 종식되었다. 메가와티 대통령은 2002.5.20 동티모르 독립기념식에 직접 참석, 선린우호관계 추진 입장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동티모르 독립에 자극받은 아체, 이리안자야, 리아우 등 여타 지역에서의 분리독립 요구 움직임이 점차 강해졌으며, Maluku, 중부 칼리만탄에서 종족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아체지역의 경우 인니정부는 자유아체운동(GAM)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한편 군사작전수행 위협도 병행하여 왔으나, 2003.5.17 이후 아체지역에 대한 군사작전을 포함한 "Combined Operation"을 대대적으로 실시, GAM 소탕에 나서면서 아체지역내 무력충돌이 확대되고 긴장이 고조되었다.

2002.12월 인니정부와 GAM간에 체결된 "적대행위 종식에 관한 협정" 발효 후 약 2개월 동안은 양측이 협정이행을 위해 협조하는 자세를 보였으나, GAM측의 아체분리독립 추구하고 무기 반납 거부 및 인니정부의 강경대응 등으로 인해 결국 동협정은 사문화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양측의 대립이 완화되어 2004년 5월 인니 정부는 동지역에 내렸던 비상계엄 조치를 완화하였다.

2004년 12월말 아체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해일 피해로 인해 20만명이 넘는 주민이 사망하여 GAM의 활동이 위축되었으며, GAM과 인니 정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분쟁을 종식 시키기 위한 회담을 2005년 1월 18일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개최하였으나 양측의 입장 차로 실패하였다. 그러나 인니 정부는 아체지역의 재건을 위해 물리적인 충돌을 피해야 했으며, 외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GAM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고, GAM 또한 쓰나미 피해로 더 이상 지탱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2005년 8월, 마침내 양측은 평화 협정 체결에 성공하였다.

2006년에 들어와 해외에 망명하였던 GAM지도자들이 귀국하면서 아체지역재건에 대한 인니정부와의 협조분위기가 형성되었고, 12월 11일 실시된 아체주 지방선거에서 주지사로 전 GAM지도자였던 이르완디 유습이 당선되면서 정부와의 대립보다는 쓰나미 피해 복구와 경제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 사회 동향

하비비 집권시부터 시작된 점진적인 정치·경제개혁 조치와 아울러 IMF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금융·재정지원으로 IMF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으나, 일반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가시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사회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 한편으로 미국-이라크 전쟁에 따른 테러 확산과 이슬람 국가인 인니가 테러범 등의 활동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외국인들의 행동이 큰 제약을 받고 있다.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이 인니 여행을 자제하도록 자국민들에게 경고를 한 가운데, 2004.9월 자카르타의 주인니 호주대사관에서 자살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수십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2005년 10월 1일에는 발리에서 또다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하였으나, 2006년에는 별다른 테러가 없이 지났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테러부대가 급진 이슬람조직인 JI(제마이슬라미야드)의 과격 테러 분자들을 지속적으로 제압해 가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안정을 찾은 상황이다.

이슬람교와 기독교 간의 충돌도 심심치 않다. 인니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으나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교도들이기 때문에 이슬람교도에 의한 기독교도 탄압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04년 여름 태국에서 발생한 태국 정부의 이슬람 반군 탄압 사건 이후 인니 이슬람 교도들의 기독교도에 대한 테러가 잦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크리스마스 때는 기독교도들이 테러를 의식, 집회를 자제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와 같은 종교분쟁은 인니 사회의 또 다른 불씨이고 갈등 요인이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유류 보조금이 연간 35억\$이 넘어 재정에 큰 부담을 주자, 2005년 3월 유가를 29% 인상하는 조치를 취해 유류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려 하였다. 1999년 수하르토

대통령이 IMF의 권고에 따라 유류가를 인상하려다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데모로 결국은 해야하게 된 바, 유도요노 대통령의 유가인상 조치에 대한 사회불안이 걱정되었으나, 일부 소규모 데모가 있었을 뿐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계속되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정부의 유류보조금이 100억\$을 넘게되자 재정의 압박이 우려되고, 국영석유공사(Pertamina)의 유류 수입액 증가에 따른 달러 수요 증가로 환율이 급격히 올라가자 정부는 이자율 인상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키는 한편, 보조금 감축을 통해 국내 유가를 현실화 시키려 시도하였다. 그러나 빈곤층의 반발을 우려, 5인 가족 기준 월 소득 70만 루피아(미화 70\$)이하인 가정 약 1500만 가구에 대해서는 월 10만 루피아의 현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유류 보조금은 부유층도 혜택을 보는 만큼, 이를 빈곤층에 직접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며, 실제 수혜자들이 피부로 지원을 느낄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2005년 10월 1일부로 무려 126%의 국내 유가 인상을 단행하면서 빈민 현금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는데, 유가 인상에 따른 사회적 소요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유가인상의 여파로 물가가 상승하고, 은행이자율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2006년 상반기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어 인도네시아는 경기불황 홍역을 치렀으나, 경제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어서 다행히 큰 사회불안으로 번지지 않았다. 실제로 대규모 시위가 우려되었던 5월 1일 노동자 시위도 큰 소요사태가 없이 지나가면서 고비를 넘겼고, 2006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되어 4분기 경제성장률이 6.1%에 달함으로써 2006년 인도네시아 전체 GDP를 5.5%로 견인해 내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한편, 2006년 족자대지진으로 수천명이 죽는 참사를 겪었던 인도네시아는 계속되는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다. 2006년 12월 30일 세노빠띠 여객선이 자바 북부해안에서 침몰해 수백명이 사망 혹은 실종되었고, 2007년에 들어와서도 새해 첫 날부터 아담에어 항공기가 바다에 추락해 102명의 탑승자가 전원 사망한 데 이어, 2007년 2월 초에는 대홍수로 자카르타 인근지역이 상당부분 침수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인도네시아는 큰 사회적 혼란없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07년에 계속된 금리인하 정책으로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이 예정되고 08년 경제성장률도 6%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당부난은 정치,경제적으로 안정화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한-인니 관계

1) 외교관계

- 49.12: 아국, 인니 승인
- 66. 8: 영사관계 수립
- 66.12: 주자카르타 총영사관 개설
- 73. 9: 대사급 외교관계수립

2) 정상간 교류

- 81. 6: 전두환 대통령 인니방문
- 82.10: 수하르토 대통령 방한
- 88.11: 노태우 대통령 인니방문
- 92. 9: “노태우·수하르토 대통령 정상회담(뉴욕)
- 94.11: 김영삼 대통령 국민방문 및 제2차 APEC 정상회의 참석(보고르)
- 99.11.27: 김대중·와히드 대통령 정상회담(마닐라, ASEAN + 3 정상회담)
- 2000.2.10-11: 와히드 대통령 국민방한
- 2000.11.27-29: 김대중 대통령 인니 국민방문
- 2002.3.30-4.1: 메가와티 대통령 국민방한(남북한 동시방문)
- 2003.10.6-9: 노무현 대통령 ASEAN + 3 정상회의 참석(발리)
- 2004.11.29: 노무현·유도요노 대통령 정상회담(비엔티엔 ASEAN + 3 정상회의)
- 2005.1.5: 이해찬 총리·유도요노 대통령 정상회담(자카르타, 지진, 해일 피해 관련 ASEAN 긴급 정상회의)
- 2005.11: 유도요노 대통령 부산 APEC 정상회담 참석
- 2006.3: 김원기 국회의장 인니 방문
- 2006.12: 노무현 대통령 국민 방문
- 2007. 7: 유도요노 대통령 국민 방한

3) 대 남·북한 입장

□ 대 한국 관계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한-인니간 미래의 발전적 관계를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가는 단계이며, 이를 위해 한국에서는 한·인니 경제 협력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어 2007년 5월과 12월 두차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고, 아울러 인도네시아 측에서도 7월 중 유도요노 대통령이 경제인들과 방한, 양국간의 협력의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 대 북한 관계

비동맹회원국으로서의 북한 입장을 의식, 대 남북한 균형기조유지 그러나 대 북한 실질적 협력관계는 미미한 수준이다.

4) 주요 협정체결

- 71. 8: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
- 81. 7: 건설협력 양해각서
- 87. 6: 임업협정
- 89. 9: 항공협정
- 89.11: 이종과세방지협정
- 91. 2: 투자보장협정
- 96.12: 법무자료교환협정
- 97.11: 대외경제협력기금(EDCF)협정
- 99.4: 건설협력 약정

- 00.1: 범죄인 인도협정 및 문화협정
- 02.3: 사법공조협정
- 02.4: 자원협력 협정
- 03.1: 도로협력 약정
- 05.12: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체결
- 06.6: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체결
- 07.6: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발효

5) 양국 간 정기 고위급 회의

- 한-인니 자원협력위원회(각료급)
- 한-인니 통상장관회담(각료급)
- 한-인니 임업위원회(각료급)
- 한-인니 군사정보교류회의(국방부)
- 한-인니 민간경제협력위원회(민간부문)
- 한-인니 외교부간 정책기획협의(외교부)
- 한-인니 도로교류 회의(건교부)
- 한-인니 임업위원회(각료급)
- 한-인니 외교장관 공동위(외교부)
- 한-인니 경제협력 T/F (산업자원부)

나. 교역규모

우리나라와 인니의 교역규모는 97년 말에 발생한 아시아 국가들의 IMF경제위기로 인해 97년 76억 4900만 불에서 98년 48억 4200만 불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이후 99년 65억 2600만 불, 2000년 87억 9100만 불로 다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1년 9월 미국 무역센터 테러사건 이후 인니 경제의 급격한 악화로 한-인니 교역이 다시 감소, 양국간 교역 총액은 2001년에 77억 5300만 불, 2002년에는 78억 68백만 불을 기록하였다. 2003년에는 수출입 모두 전년 대비 큰폭의 증가세를 보여 교역 규모가 86억 불에 이르렀다.

2004년 들어 우리의 대 인니 주요 수입품목인 원유가의 상승과 석탄 등 원자재 수입 확대로 대 인니 수입은 전년비 22.2% 증가한 63.7억 불을 기록하였으며, 수출은 전년비 8.9%가 증가한 36.8억 불을 기록함으로써 총 교역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00억 불을 돌파하였다. 2004년 중 우리의 대 인니 수출 증가율이 다소 부진했던 것은 인니의 총선, 대선 등 정치 일정으로 정치, 사회적인 불안이 예견되어 무역거래가 위축되었던 점과, 인도네시아의 산업 경쟁력 저하, 치안 불안으로 대 인니 투자가 감소한 점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005년에는 대 인니 수출 실적이 50억 4600만 불로 전년 동기비 37.2%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수입은 81억 8400만 불로 전년 동기비 28.5%의 증가율을 보여 교역액이 사상 최고치인 132억 3000만 불을 기록하였다. 대 인니 수출의 높은 신장률은 석유제품(경유) 수출 증가에 크게 기인하는데, 석유제품 수출은 총 16억 1300만 불로 전년 동기비 무려 961%가 증가하였다. 석유제품의 수입은 2005년에 갑자기 증가한 것은 아니며, 종전 싱가포르를 통해 인니에 수출하던 것이 2005년부터는 직수출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수입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대 인니 주수입 품목인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입이 각각 34.1% 및 41.6% 증가하였고 석탄 수입이 30.2%, 동광 수입이 133.8% 증가하였다. 대 인니 수입의 80% 이상은 자원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인니는 한국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원자재 수입선이다.

그러나 2005년 10월 인니 정부가 국내 유류 판매 시 지급하던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여 국내 유가를 무려 120%나 인상하자 국내 유류 소비가 크게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유류 재고가 늘어 수입이 중단되면서 2006년 들어 대 인니 석유제품 수출이 급감하였고, 또한 유류가격 인상이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내수침체를 불러오면서 다른 수입 수요까지 크게 감소시켰다.

2006년도 우리나라의 대 인니 교역은 수출이 전년 동기비 3.4% 감소한 48.7억 불, 수입은 전년 동기비 8.1% 증가한 88.4억 불로 39.7억 불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고, 총 교역량이 137억 2200만 불에 이르렀다.

2006년의 무역적자 폭이 늘어난 주 원인인 수출감소는 인도네시아가 2005년 단행한 유가 인상으로 국내 수요가 줄어든 데다 국제 유가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유류 공급 업체들이 비축분을 방출하면서 수입을 최소화 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이는 동 기간 중 비 석유 분야의 수출이 오히려 많이 늘어남으로써 적자폭을 그나마 줄여주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7년도의 경우 2005년 이후 수출 최대 품목으로 부상한 경유와 그외 수출주종 품목인 휘발유, 편직물, 화학제품, 철강금속, 운송기기, IT전자 등의 수출호조로 전년대비 큰폭의 수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인니간 교역규모 추이

(단위: US\$백만,%)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1-10월
총 교역	7,868	8,590	10,045	13,230	13,722	12,091
(증감율)	(1.5)	(9.2)	(15.8)	(31.7)	(3.7)	(3.6)
수 출	3,145	3,378	3,677	5,046	4,874	4,856
(증감율)	(△ 4.1)	(7.4)	(8.9)	(37.2)	(△3.4)	(23)
수 입	4,723	5,212	6,368	8,184	8,846	7,235
(증감율)	(5.6)	(10.4)	(22.2)	(28.5)	(8.1)	(0)
무역수지	△1,578	△1,834	△2,691	△3,138	△3,975	△2,379

자료원: KOTIS

다. 한국과의 투자관계

우리나라의 대 인니 투자규모는 1967-2005 기간 중 누계치 기준, 2,327건 총 135억 100만 불(인니정부 승인기준)로 전체 외국투자국가 중 건수면에서 3위, 금액면에서 7위를 점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309건의 투자 건수와 4억 1700만 불의 금액으로 건수면에서 1위, 금액면에서는 8위를 기록하였다. 건수에 비해 금액이 작은 것은 우리나라의 대인니 투자가 중소기업의 소액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한국기업은 약 1,050개사 내외로, 이중 섬유 및 섬유관련 업체가 195개사, 신발 및 완구 관련업체가 97개사, 전기 및 전자 관련 업체가 79개사, 금속 및 기계류관련 74개사 등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한국계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인니 근로자수는 약 50만명 정도로, 인니 전체 경제활동 인구(약 1억명)의 0.5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니 내 한국계 기업의 수출 비중을 보면, 섬유, 봉제가 인니의 전체 섬유, 봉제 수출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발은 31%, 완구는 3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투자 진출 기업은 인니 내 노동 집약 산업 부문의 생산, 수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95년 이후부터는 철강, 자동차, 전자, 건설, SOC 등 기간 산업 분야까지 진출하고 최근 들 어서는 IT분야에의 진출도 매우 활발하다.

주요 업종별 한국투자기업 현황(2005년 말 기준)

(단위: 개사)

분 야	업체수	분 야	업체수	분 야	업체수
섬 유	195	통신, 컴퓨터	43	종이, 목재	24
신발, 완구	97	고무, 플라스틱	39	금 융	17
전기, 전자	79	석유화학	37	가 구	16
금속, 기계	74	건 설	36	기 타	335
운송, 창고	62	출판, 인쇄	25	계	1,102

자료원: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조사

연도별 한국의 대인니 투자 실적

(단위: 건/ 미\$백만)

	2002	2003	2004	2005	2006
건 수	246	200	210	309	291
금 액	378.3	166.2	419.3	417.3	159.7

자료원: 인니투자조정위원회(BKPM) 홈페이지

라. 대 한 수입규제 현황(반덤핑 피소추이)

인도네시아는 96년부터 2007년 6월 현재까지 한국상품에 대한 13건의 반덤핑제소가 있었 으며, 현재 제소 중인 건은 없는 상황이다.

이 중 Tin Plate, Carbon Black, 비코팅 인쇄용지 등 3건은 덤핑 판정이 났으며, 3건은 무혐의 판정, 7건은 기각되었다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개 관

인니 경제는 거시경제면에서 볼 때는 1997-1998년의 금융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나 안정적 성장세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4년에는 총선과 2번에 걸친 대선 등 사회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5%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으며, 2005년에도 쓰나미 피해, 환율 불안, 대폭적인 유가 인상, 거둬들인 발리 폭탄 테러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5.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2006년에도 2005년 10월에 단행된 유가인상 및 이자 율 상승에 따른 경기침체 속에서도 5.5%의 견실한 성장률을 달성 했으며, 특히 4/4 분기 에는 6.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른 경기회복 속도를 보여주었다.

2007년에도 이 상승세를 이어 인니 경제는 6.0%~ 6.2%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시아 개발 은행(ADB)은 07년 동아시아 경제성장률이 4.4%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인니의 경우 예외적으로 2007년 6.0%로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유도요노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정치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유가를 150% 이상 인상함으로써 정부의 유류 보조금을 대폭 축소시킨 점, 외국인 투자에 장애요인이 되는 투자환경 개선과 부정 부패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투자자들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7년에 들어서 인도네시아 경제는 물가안정과 수출증대에 따른 외환보유고 증대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대출 금리 인하가 진행되어 유가상승 이전 수준에 거의 근접한 8.0%까지 인하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진작되는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

인니 경제는 현재 전환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자원이 경제를 이끌어갔던 시대가 지나고 있다. 또한 인구 2억 3천만 명이 받치고 있는 탄탄한 내수 시장이 경제 성장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거나, 현재와 같은 내수 위주의 경제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니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 확대와 수출 확대 그리고 이를 통한 고용 증대가 필연적이며, 한편으로 정부의 재정건전화도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자본축적이 미약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출 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바, 현재 진행중인 투자환경 개선책이 얼마나 빨리 실현되느냐가 인니 경제성장의 관건이라 하겠다.

□ 2007년도 주요 경제 동향

2006년도 인니 경제는 2005년 10월에 단행된 국내 유가 인상 조치로 인한 침체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무려 127%에 달한 유가 인상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인플레이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이로 인한 소비 둔화 및 투자위축이 연쇄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4/4분기 이후 인플레이션 안정에 따른 금리 인하 및 정부 재정 지출 확대에 경기가 차츰 살아났고, 2007년에 들어서는 본격적인 회복세를 시현하면서 유가인상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다.

2007년 들어서 수출호조로 인한 500억불의 외환보유고를 축적하고 8.00%까지 이자율을 인하시켜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킴으로써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시현하고 있어, 세계은행 및 주요 금융 기관들은 07년 경제 성장률이 6%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주가도 4월에 사상 처음으로 2,000선을 돌파한데 이어 11월에는 2,700 대를 넘어서는 등 주식 시장이 활황을 보여주고 있고, 통화인 루피아 화도 연중 9000~9400 루피아 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계획된 개혁 작업을 추진해 나가느냐가 지속적인 성장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나. 경제 성장

인니 경제는 2004년 4/4분기 6.65%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06년 1/4분기의 4.70%까지 성장률이 계속 감소하였고 이는 고유가와 그에 따른 거시경제 불안으로 국내소비와 투자가 위축된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5년 3월(29%)과 10월(126.6%)의 두 차례에 걸친 대폭적인 국내유가 인상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등이 소비를 위축시킨 주요인이 되었다. 다행히 2006년 2/4분기부터 경제가 다소 회복세를 보여 2/4분기 5.22%, 3/4분기 5.52%, 4/4분기 6.1% 성장하였음.

2007년도 인니 경제는 이자율 인하로 소비와 투자가 진작되면서 경제 전체가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해외투자유치와 정부의 인프라 구축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6.0%~6.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니 정부는 2007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6.3%로 정하였으나, 중앙은행은 6.1%를 전망하고 있고 아시아 개발은행(ADB)은 6.0%로 예측하였다.

○ 주요기관의 2007년도 인니 경제성장률 전망

- 인니정부 6.3%, 인니 중앙은행 6.1%, 세계은행 6.2%, ADB 6.0%, SCB은행 6.0%, 메릴린치 6.0%, 영국의 EIU 5.9%, IMF 6.3%

최근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분 기	2005년				2006년				2007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성장률	6.25	5.63	5.63	4.90	4.70	5.22	5.52	6.1	6.0	6.3	6.5

자료원: 인니 통계청

다. 무역

교역동향 부문 참조

라. 인플레이션

2006년 6.6%였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07년에도 안정된 물가상승률 기조가 계속되면서 6%대의 인플레이션이 유지되고 있다. 2005년 10월의 유가 인상에 따른 여파로 2005년 인플레이션은 17.1%에 달했으나, 2006년 이후 물가가 안정되면서 안정추세가 2007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요 영업시즌인 2007년도 9월 하순 르바란 시즌 이후 10월 및 11월 에도 6%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장기적 물가안정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2007년도 인플레이션 추이

(단위: %)

	2006년	200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인플레이션	6.60	6.26	6.30	6.52	6.29	6.01	5.77	6.06	6.51	6.95	6.88	6.71

자료원: 인니 중앙은행

마. 환율

2007년 환율은 US1\$당 9,000 - 9,500 루피아 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평균 환율은 9,200Rp/US\$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달러화 약세 기조 유지, 인니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 인니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에 따른 FDI(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유가의 하향 안정 추세 등이 환율 안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6/2007년도 월별 환율 변동 추이

(단위: 루피아/\$, %)

	2005		2006				2007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환율	10,310	9,830	9,075	9,260	9,226	9,020	9,075	9,039	9,137	9,390

자료원: 인니 중앙은행 (주: 월말 기준), 12월은 19일 기준

한가지 유의할점은 인니의 외환시장은 1일 달러거래량이 5억\$ 정도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작은 요인에도 변동폭이 심하며, 개도국 특성상 정부의 금융 시스템이나 정책이 투명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느끼는 작은 불신에도 외환시장에 대한 악영향이 상승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정치, 경제, 금융 등 모든 면에서 정부의 움직임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바. 외국인 투자

2005년도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승인 기준으로 135억 8천만\$, 실현기준으로는 89억 천만\$을 기록하였는 데 비해, 2006년에는 승인 기준으로 156억 2천만\$로 15%가 증가 하였으나, 실현기준으로는 59억 8천만\$을 기록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의 증가는 유도요노 정부 수립 후 정치적 안정성이 제고되었고, 또한 신정부의 친 서방 경제정책, 투자환경 개선노력 등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와 부정부패 근절을 추진하는 한편, 인프라 서밋 개최 등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아직 투자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은 별로 없으나, 투자자들은 유도요노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6년 외국인 투자 승인액에 비해 투자실현액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에 대해 인니 투자조정위원회 (BKPM)는 2006년도 말 유가 인상에 따른 투자 재검토와 현재 진행중인 투자법, 노동법, 세법 등 투자 환경 개선 상태를 관망해 본 다음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 하고 있다.

인니 정부는 2005년 1월 국내외 투자자들을 초청, 제 1차 인프라서밋을 개최하고 91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으나 이중 연말까지 실제 입찰에 부쳐진 것은 고속도로 6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니 정부는 현재 42건의 프로젝트를 구체화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2006년 11월 중 제 2차 인프라서밋을 개최,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해 인프라 구축에 외국인 투자자 모집에 적극 나선 바 있다. 인니 정부는 인프라 확충에 향후 5년 간 약1,450억\$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부분을 외국인 투자 등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 한다는 계획이다.

사. 경상수지, 외채, 외환보유고, 이자율

1) 경상 수지

인니는 상품 교역에서는 매년 200억\$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서비스 교역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적자폭도 2004년 88억\$에서 2005년 91억\$, 2006년 103억\$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폭은 2004년 15억 63백만에서 2005년 3억 7백만\$로 대폭 감소했으나, 2006년에는 무역 수지 흑자의 확대에 힘입어 경상 수지 흑자도 12억 5천만불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7년에는 서비스 수지의 지속적인 확대와 무역수지 흑자폭의 축소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폭이 7억\$ 수준으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외 채

외채 규모는 2005년 말 \$1,383억에서 2006년 \$1,313억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외채의 감소는 인니 정부가 많아진 외환보유고를 이용, 2010년 만기의 IMF 미상환 부채 70억\$을 2006년 2회에 걸쳐 조기 상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채의 GDP 비중도 38%선으로 1998년 140%, 2002년 65%, 2005년 45%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전체 외채 중 단기 외채는 240억\$ 정도로 18% 수준이며, DSR (Debt Service Ratio/ 총수출액 중 외채원리금 상환 비중)은 2003년 32.2%에서 2004년 28.8%, 2005년 22%로 감소했다가 2006년 상반기 34%로 다시 높아졌는데, 이는 6월 중 IMF 부채 37억\$을 조기 상환하여 상반기중 외채 원리금 상환액이 전년 대비 53.4%나 증가(187억\$) 했기 때문이다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인 무디스는 2006년 5월 인니의 재정 건전화 유지, 투자 환경 개선,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 확대 등을 근거로 인니의 신용등급을 종전 B2에서 B1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S & P사도 7월, 신용등급을 B+에서 BB-로 한등급 상향 조정했다 (투자 적격은 4단계 위인 BBB 이상 등급)

2007년 말까지 외채의 급격한 증가는 예상되지 않으나,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위해 외국 차관을 이용할 경우 외채의 증가 가능성은 남아 있다.

3) 외환 보유고

외환 보유고는 2005년말 \$342.7억에서 2006년 들어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 외자 유입 확대 등의 요인으로 2006년말에는 \$425억까지 증가하였다.

외환 보유고가 증가하자 인니 정부는 IMF 차관을 조기 상환하기로 결정, 2006년 6월 중 전체 78억\$의 절반 수준인 37억\$을 상환하였으며, 나머지도 10월 중에 상환하였다.

2007년 11월 말 현재 외환 보유고가 548억불을 넘어설 정도로 외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은 인도네시아 외환보유고가 사상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자본유출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외환보유고 변동 추이

(단위: 억\$)

2004	2005	2006	2007			
			1월	3월	6월	11월
363.2	342.7	425.8	432.6	472.2	509.2	548.9

자료원: 인니 중앙은행 (주: 말일 기준)

4) 이자율

인니 중앙은행은 환율 방어와 인플레이 억제를 위해 2005년 7월 이후 6개월 동안 무려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8.5%에서 12.75%로 4.25%p나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도 10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면서 내수와 투자를 급격히 위축시켰었다. 그러나 인니 중앙은행은 인플레이가 안정선으로 유지될 때까지 고금리 정책을 고수하다 2006년 들어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자 5월 이후 8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하여 한자리 수로 낮추었으며 2007년에도 7차례에 걸쳐 이자율 인하를 추가 단행해 8.00%까지 금리를 끌어내렸다.

12.75%(05.12.6) → 12.50%(06.5.9) → 12.25%(06.7.6) → 11.75%(06.8.8) → 11.25%(06.9.5) → 10.75%(06.10.5) → 10.25%(06.11.7) → 9.75%(06.12.7) → 9.50%(07.1.4) → 9.25%(07.2.6) → 9.00%(07.3.6) → 8.75%(07.5.8) → 8.5%(07.6.7) → 8.25%(07.7.5) → 8.00%(07.12.6)

금리의 인하는 기업 투자 및 민간 소비 증가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나, 금리 인하가 외자 유출 및 인플레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니 중앙은행은 앞으로의 금리 추가 인하는 신중하게 폭도 0.25% 씩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 실업률 및 최저 임금

1) 실업률

인니의 실업률은 1980년 2% 대에서 90년대 이후 계속 높아져 '99년 6.4%, 2001년 8.1%, 2003년 9.5%, 2004년 9.86%, 2005년 11.24%를 고비로 2006년부터 약간 꺾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실업률을 임기가 끝나는 2009년까지 5%까지 끌어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나, 2005년에도 석유, 전기 등 에너지 가격 상승과 소비 감소에 따른 기업의 경영사정 악화로 실업률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니 통계국은 2007년 2월까지 실업률이 9.75%로 2006년 2월의 10.45% 보다는 다소 개선 되었지만 취업자 중에는 비정규 고용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노동계에서는 실제 실업자수가 4,0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7년 예상 경제성장률인 6.0% 정도로는 실업률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바이오에너지 농원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노동 집약 산업인 섬유산업을 부활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최저임금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임금이 높은 자카르타 지역의 2007년도 최저임금은 2006년보다 9.95%가 증가한 900,560루피아로 미화 기준으로는 99\$(환율 1\$=9,100루피아)로 달러 기준으로는 2006년초 대비 8.7% 정도 인상된 수치이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이 임금이 2006년 경제성장률 5.6%, 인플레이션 7%를 가정하여 정한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빼면 실질임금 상승율은 2.95%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연도별 최저 임금 변동 추이(자카르타 지역)

(단위: 루피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최저임금	344.2	591.0	631.0	671.6	711.8	819.1	900.6
증가율	49.0	71.6	6.8	6.4	6.0	15.1	9.95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2. 주요 산업 동향

가. 농업

수하르토 정부 이래 최근 유도요노 대통령까지 약 50 여년간 인도네시아는 경제개발과 산업화의 시행으로 농업의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경제에 있어서 농업의 중요성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농업은 경제적 의미는 물론, 농업 생산 양식이 문화, 종교, 사회구조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도네시아 농업은 농업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쌀과 관련해서는 Bulog 이라는 특별기구를 두고있다. 농업개발의 주요 목표는 식량자급을 위한 미곡 증산과 수출 농산물의 증산 및 다양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부는 쌀 증산을 위하여 작물의 집약재배 토지의 집약적 이용, 품종개량, 비마스(BIMAS), 인마스(INMAS) 사업의 확대, 농업금융의 확대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의 경지 면적 구성을 보면 벼농사가 총 경지면적의 42%로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옥수수 15%, 천연고무 11% 카사바 6%, 두류 3%의 순이다.

최근 유가상승으로 바이오디젤이 대체 가능 연료로 급부상하면서 전국 각지에 팜농장이 급격히 늘고 있으며, 향후 피마자 농원이나 카사바 농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제조업

1) 석유산업

인도네시아 석유산업은 고용인력 120만명에 연간 70억 달러를 수출, 석유, 가스를 제외한 전체 수출액의 15.1%를 점유하고 있는 전자산업 다음으로 중요한 산업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유산업을 대표적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980년대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였고 우리나라 봉제기업들도 이때를 기점으로 인도네시아에 대거 진출하였다.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은 고용이나 수출창출면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1998년 인도네시아 경제위기 발생후 사회간접자본 및 기업부문에의 투자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섬유산업부문에의 투자도 부진하여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지속적인 임금 인상으로 생산단가는 오히려 높아져 후발 개도국들에 의해 추격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시장의 약 8%를 점하고 있는 폴리에스터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등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섬유관련 기계설비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원료에서부터 의류완제품까지의 연관업체간 수직계열화가 미비하여 원자재 조달에 시간 및 코스트가 과다 소요되고 있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2005년부터 세계섬유교역이 자유화되게 됨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한창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도 2006년부터 노후화된 설비교체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2007년 4월부터 섬유설비교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이 미국과 EU로부터 앞으로 2-3년간 한시적으로 섬유쿼터에 묶여있는 동안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섬유산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2) 전기 및 전자산업

인도네시아에서 전자산업은 연평균 25%의 고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급격히 발전하고있는 산업이다. 그 발전도 제조업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생산품목이 크게 다양화, 고도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가전제품 이외에 컴퓨터 관련제품과 산업용 전자제품 등 보다 기술 집약적인 제품의 생산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전기 전자 산업의 발전은 주로 일본기업들의 진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의 대기업들도 현지생산, 판매법인을 설립하게 되면서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

특히 LG는 인도네시아를 냉장고 등 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하는 생산기지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LG전자 인도네시아 법인 (LGEIN)은 2007년 10월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2007 프리마니아르타 어워드(2007 Primaniyarta Awards)'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인니 정부가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실적 ▲국내 영업 실적 ▲기술 이전 ▲사회공헌 등 총 7개 부문을 종합 평가해 시상하는 동 평가에 2006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한 LGEIN은 2006년 14억 5천만 달러의 매출(수출 11억 8천만불, 내수판매 2억 7천만불)을 달성했으며,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주요 가전 제품 시장점유율 1위(PDP TV 46%, 홈시어터 45%, 오디오 24%, 냉장고 21%, 세탁기 17%, 2006년 기준)를 기록하였다

3) 자동차 산업

인도네시아의 자동차산업은 1980년대 들어오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동차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급속히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3년도에 시행한 자동차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 조치는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 발전의 촉진제가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은 현재 완성차용 부품을 들여와 조립생산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기후 조건 및 도로사정, 정부의 조세제도에 의해서 승용차보다는 승합차 부문이 집중적으로 육성, 발전되었다. 과거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동차부문에서 자립기술 구축을 위해 한국과 국민차사업 합작프로젝트를 진행했었다.

1996년 2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의 기아자동차와 ‘국민차 계획’을 발표했고 하반기부터 기아자동차의 세피아가 인도네시아산 ‘티모르’로 생산되면서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자동차와 경쟁에 불안을 느낀 일본의 자동차회사들이 급기야 일본 정부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무역거래의 불공정을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들어서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자동차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자동차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일본의 아성에 도전하기 위해 한국, 유럽,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2006년에 들어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국제화전략을 펼치면서 인도네시아에 연산 10만대 이상의 자동차 생산시설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면서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자동차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해외 자동차업계의 제조시설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2007년 5월에는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들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조정청(BKPM)에서 투자유치 순방에 나서 폭스바겐 등으로부터 투자의향을 타진받기도 했다.

4) 항공산업

항공산업은 인도네시아 산업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산업에 속한다. 인도네시아의 항공산업발전은 하비비 주도 하에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독일 아헨 공대에서 항공우주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독일 슈미트 항공기 제작사에서 근무하던 중 수하르토 대통령의 간곡한 귀국 요청을 받고 귀국해 과학기술처장관을 역임한 하비비는 항공기산업을 최우선 국책 사업으로 선정하여 항공기 제작회사(Industri Pusaawat TerbangNusantara; IPTN)를 설립하였고, 첨단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으로 인도네시아가 선진국에 진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IPTN은 스페인의 CASA, 독일의 Messerschmitt, 네델란드의 Fokker등 세계적인 항공기 제작회사와 기술협력 기술이전의 형태로 공동제조를 하면서 항공기를 생산하기 시작, 1978년에 CASA와 공동개발한 35인승 프로 펠러기(CN 235)를 시발로, 1990년 50인승 중형 수송기, 최근에는 64인승 터보프롭제트기 (N235)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N235기의 성공에 고무된 IPTN은 현재 130인승 초음속 제트여객기인 N2130을 개발하고 있다.

5) 화학 및 석유 화학 산업

인도네시아는 1990년대 이후 석유화학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비료, 비누, 고무제품, 농약, 합성세제 등 농업용 및 소비자용 화학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단계였으나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 전자산업 및 관련산업이 발전하면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또 원유 천연가스 등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석유화학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6) 철강 산업

인도네시아의 철강산업은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에 중점육성 전략산업의 하나로 지정되어 수하르토 대통령 시절 제철공장건설을 추진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 국영기업 PT. Kratatau Steel사가 인도네시아 전체 철강생산량의 90%를 점하고 있으며 10여 개의 소규모 민간업체가 주로 하청을 통해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철강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자동차, 전자, 건설산업이 활기를 띄면서 철강 수요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자국생산량은 수요의 30%에 불과, 한국, 일본, 인도, 중국, 대만, 러시아, 루마니아 등지로부터 철강을 수입하고 있다.

7) 목재 가공 및 제지산업

인도네시아는 세계 제2위의 임산자원의 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목재가공 및 펄프 제지업은 경제수준의 낙후, 수요의 부족, 관련산업의 미 발달로 인하여 1970년대 중반까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나 1973년 국제 석유파동이 발생한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원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원목의 개발 및 수출에 대한 제한과 목재 가공의 육성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목재, 합판, 제지 등의 목재 가공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아시아 자유무역협정 추진

유럽 연합(EU) 출범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한 자유무역의 시대를 맞아 ASEAN도 단일시장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ASEAN 경제장관들이 쿠알라룸푸르에 모여 2015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관세 인하 및 철폐에 대한 스케줄을 앞당겨 2007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1) 관세 철폐

새로운 협정에 따르면, ASEAN 국가간의 11개 선추진 분야에 포함된 총 4,000개의 수입 관세가 철폐될 것이라고 한다.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나, ASEAN에 나중에 가입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은 2012년까지 시행이 유예되는 것으로 결정했다. 관세 철폐 대상으로 포함된 11개 선시행 분야는 전자, 어업 용품, 자동차제품, 섬유제품(TPT), 전자상거래, 의료용품, 항공, 관광, 목재 제품, 농장용품, 고무, 물류 등이다.

2) 비관세 장벽 축소

ASEAN은 도한 비관세장벽을 축소하는 것에도 합의를 했는데, 원래 금년부터 축소하기로 했던 비관세장벽 축소 일정을 2008년으로 연기하고 축소작업을 2012년까지 마무리짓기로 합의했다. 현재 217건의 범조항이 폐기 또는 변경 대상을 의미하는 'RED BOX' 범주에 포함되었으며, 그 밖에도 협상대상으로 지정되는 'AMBER BOX'에 121건이 포함되었으며, 현행대로 유지되는 'GREEN BOX'에는 93건이 포함되었다.

나. 한-ASEAN FTA 발효

2007년 6월에 발효된 ASEAN과 FTA에 따라, 2010까지 전체 관세부과 대상품목의 92.4%에 달하는 10,403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된다. 관세철폐는 협정발효와 동시에 전 품목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2007년에 64.9% (7,312품목), 2008년에 23.3%(2,616품목), 2010년에 4.2%(475품목) 등 순차적으로 관세철폐 품목을 늘려갈 예정이다. 철폐 방식은 13%→10%→8%→5%→3%→0%식으로 3개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하해 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전체 품목수의 4.3%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하여 2011년까지 관세를 20% 감축하고, 전체 품목수의 3.3%에 해당하는 상품은 양허제외, 관세율 장기 소폭 인하, 저율 관세 수입물량(TRQ) 설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한다. 또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역외가공 방식(한국산 원재료 비율이 60% 이상이면 한국산 인정)에 의해 아세안 국가별로 100개 품목에 대해 특혜 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협정에서 규정한 양식(Form AK)을 사용하여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세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관세청에서는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FTA 포털에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Form AK) 발급신청을 하고 사무실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전산화 하고, 아울러,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규정 및 특혜관세 적용절차 등에 익숙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FTA 전담직원제를 도입한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2006년도 인니의 수출은 \$1,006.9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17.55%가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610억으로 전년동기대비 5.8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은 석유, 가스 부문이 10.17% 증가한 반면 비석유가스 부문은 19.68%가 증가하여 지난 해와 달리 비석유 가스 부문이 수출증가를 주도하였고, 수입은 내수 침체에 따른 수요 부족으로 전체적으로 부진하였다. 석유, 가스부문 수입이 8.69% 증가한 반면 비 석유가스 부문의 수입은 4.62% 증가에 그쳤다

2007년도 수출은 선진국 경기둔화의 요인으로 대 미국, EU 수출의 감소가 예상되나 대중국 수출 증가로 이를 만회할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는 2006년보다 12% 정도 증가한 \$1,100억 달러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수출성장 가도를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은 국내 수요 확대에 힘입어 2006년보다 30% 증가한 약 \$7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는 점차 에너지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기, 전자, 조선, 자동차, 기계류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어, 향후 수출입품목의 비중이 점점 빠르게 비석유가스 부문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수출입 동향

우리나라의 대인니 수출은 2007년 11월까지 53억불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동기대비 20% 증가한 금액이다. 2005년 이후 수출 최대 품목으로 부상한 경유를 비롯한 유류제품, 편직물, 화학제품, 철강금속, 운송기기, IT 전자 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은 2007년 11월까지 81억불로 전년동기대비 1.7%가 증가하였다. 이는 석탄(46.5%), 석유제품(89.7%) 등 고유가로 인한 원자재의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나. 교역 특징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한국의 최대 무역적자국으로 한국의 12위의 수출대상국이자 9위의 수입대상국이다. 양국은 소수 품목에 집중된 교역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 대인니 수출 품목 중 경유를 비롯한 수출 상위 4대 품목이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이 수입하는 품목의 경우도 천연가스를 비롯한 8대 에너지, 원자재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양국은 소비재 보다는 원자재 및 천연자원 위주의 교역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원자재, 자본재, 중간재 수출이 전체 수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 중 천연자원, 원자재 수입이 93%를 차지하고 있다.

대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 품목

(단위 천불,%)

순위	품목명	2006		2007(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4,873,523	-3.4	5,358,273	20.3
1	석유제품	1,263,340	-21.7	1,418,471	21.5
2	편직물	277,132	62.4	311,779	24.9
3	합성수지	293,169	-1.3	304,980	14.6
4	철강판	224,806	-27.9	253,618	28.9
5	동제품	126,309	335	181,136	64.8
6	컴퓨터	97,717	4.8	145,828	64.7

자료원 : KOTIS (MTI 3단위 기준)

대 인도네시아 주요 수입 품목

(단위 천불,%)

순위	품목명	2006		2007(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8,848,554	8.1	8,185,876	1.7
1	천연가스	2,826,645	9.5	1,992,092	-21.8
2	석탄	932,768	30.7	1,209,015	46.5
3	원유	1,447,776	-25.9	928,394	-30.1
4	석유제품	311,640	-5.8	645,488	-4.1
5	동광	760,495	50.4	571,773	89.7
6	제지원료	313,769	-2.1	310,769	8.9

자료원: KOTIS (MTI 3단위 기준)

3. 수입규제제도

가. 관세장벽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관세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일부 화학제품 및 철강제품을 비롯하여 타이어, 튜브, 가정용 전가기기, 일부 섬유류, 자동차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한 고율의 수입관세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AFTA) 를 추진하기 위한 공동실효특혜관세 (CEPT) 협정에 따라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는 CEPT를 적용하고 있다. 관세인하 대상은 농업을 제외하고 자본재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 가공 농산품, 기타 비농산물 등이며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역내 국산자재 및 부품 사용비율이 40% 이상일 것이 요구된다.

2006년 5월에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체결되었고, 2007년 6월 1일부터 발효가 되면서 자유화 일정에 따라 점진적인 관세철폐 및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도 크게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수입관세 과세가격 산정상의 불합리

관세 평가가격을 세관 직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관세 부과 기준가격 산정의 불합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 수입부가금등

수입과 관련된 세금에는 부가가치세, 사치세 등이 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형태의 재화 및 서비스에 부과되며 수입, 판매, 서비스 제공시점에서 일률적으로 10%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 가전제품 등 일부 내구 소비재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외에 사치세를 부과 한다. (에어컨 및 냉장고의 경우 10-15%의 관세 외에 20%의 사치세 부과)

라. 통관

인도네시아 통관규정은 수입 후 검사제도 (post-entry audit system) 및 수입자, 은행, 세관을 연결하는 전자자료교환 (EDI) 시스템 도입 이후 종전의 절차와 비교 많이 개선되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 검사관의 자의적인 규정해석 등 행태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마. 원산지 규정

원산지 증명서는 검역의 목적 또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수입한 후 관세 환급 신청시 요구되는 정도이다. 인니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무역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FTA에 의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다. 특히 2005년 섬유류에 대한 쿼타 철폐 이후 미국과 EU가 중국산 섬유에 대해서만 잠정적으로 2-3년간 쿼타규제를 취하기로 하자 중국산이 쿼타회피를 위해 인니산으로 둔갑하여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섬유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또한 2006년들어 EU가 중국산 신발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신발류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도 엄격히 하고 있다.

바. 수입규제

인도네시아는 국가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수입금지나 수입쿼터 같은 수량제한이 존재하고 있으며 수입은 허가된 수입업자만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사. 수입금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품목은 마약, 총기류를 비롯하여 환경관련 유해물질 (폴리머에틸렌등), 오존 파괴물질, 납폐기물 등이다. 그러나 납폐기물 등 생산용 폐기물은 특별허가를 받은 후 수입이 가능하다.

아. 반덤핑상계관세

인도네시아는 과거에는 반덤핑 제소등의 절차가 현실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었다. 모든 무역 관련 규정이 해당 부처의 시행령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규제 또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주무장관이 즉각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제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반덤핑 조사 위원회 관계규정이 정비되고 위원회가 조직된 이후 섬유, 주석판, 철강 등 인니 국내제품과 경쟁이 되고 있는 수입물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또 일부 반덤핑 규제도 하고 있다.

자. 수입허가

- 허가제와 쿼터제에 의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 수입허가 대상품목은 현재 166개로 축소
- 수입허가
 - 등록된 수입업자 취급품목(33개): 주류 및 음료수류 27개, 공구류 6개
 - 생산하는 수입업자 취급품목(71개): 인조설탕류 3개, 프로필렌류 2개, 엔진 펌프류 5개, 트랙터류 3개, 전자키보드류 1개, 절단 금속류 57개
 - 승인 수입업자, 대리점 취급품목(47개): 오토바이류 47개
 - 국영석유회사 PERTAMINA 취급품목(3개): 윤활유 3개
 - PT.Multi Nitrotama Kimia 취급품목(4개): 화약류 4개
 - 인니측은 WTO에 국영 무역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10년에 걸쳐 폐지하기로 약속. (2010년까지)

차. 주요품목에 대한 검역, 검사시의 수입허가 요건

- 과 일: 보건증명서 및 과실파리와 접촉이 없었다는 증명서 첨부
- 감 자: 보건증명서 및 흑병에 걸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첨부
- 특정동물: 인도네시아 수의부의 검사증명서 첨부
- 가 축: 수출국의 가축보건 관련 규칙을 참조하여 해당규칙을 제정하고 인도네시아 도착 후 10-14일 이내 검역 실시 (소는 도살용과 번식용으로 나누어서 수입허가)
- 마늘, 완두콩, 식물의 구근, 옥수수, 세이고우, 야자줄기 및 타피오카 뿌리에서 추출한 전분가루, 기름추출용 씨앗, 식품성 기름, 지방산, 타피오카, 비료 및 사료용의 기름 찌꺼기, 가공되지 않은 담배, 소금, 생고무 및 가공 고무, 조리된 과일 및 야채, 과일쥬스, 커피 및 차, 조리된 고기 및 생선, 비알콜 음료: 농업부나 무역부의 수입 허가 필요
- 비료, 살충제 및 살균제: 농업부나 관계기관의 실제사용 검사를 거쳐야 함. (검사기간은 18개월 가량)
- 인공 감미료: 보건부의 특별 수입허가 필요
- 아편 및 마취제: 보건소의 증명서 첨부

- 조제약품 (항생제, 인슐린, 진단시약, 액체주입물, 샘플형태의 일부 항생제): 보건부의 의약품 및 식료품 관리 담당관의 특별허가 필요
- 동물용 의약품: 수의부에 등록 필요
- 피하주사바늘, 무수초산, 아편파이프: 의약품 및 식료품 관리 담당관의 특별허가 필요
- 화장품 및 위생품: 등록, 포장, 상표 및 광고에 관한 규칙에 부합되어야 함
- 가공식품 및 기타 수입 식료품: 보건부 장관에게 등록 필요
- 중고기기 및 장비: 특정조건에 부합해야 함
- 화기 및 탄약: 국방부의 특별허가 필요
- 고등교육기관, 훈련기관, 정부기관 등의 교육용 과학서적: 교육, 무역 또는 문화부의 특별 수입 허가 필요

4. 대한수입규제 동향

가. 2007년 인도네시아 수입규제 동향 및 특징

□ 수입규제 개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에 ASEAN을 통해 중국, 한국, 일본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무역자유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반덤핑 등의 수입규제 관련 조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나, 철강 분야 등 자국 산이 위협을 받고 있는 분야에 대한 반덤핑 제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2007년 말까지 계속해 갈 예정이어서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또한 반덤핑과 같은 공식적인 수입규제 조치보다는 세관 통관 강화 및 FTA적용 지연 그리고 통관업체들에 대한 단속 및 등록강화 등을 통한 간접적인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이다.

□ 수입규제 내역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진행상황
카본블랙	2803.00	반덤핑	'98.7.1	'04.9.16	관세율 7~10% 2009년까지 적용
비코팅 인쇄용지	4802.52	반덤핑	'03.2.10	'04.11.11	관세율 : 59.64% 2009년 까지 적용
Ceramic Tableware	6911, 6912	세이프가드	'05.5.13	'06.1.4	1차년도 1,600Rp/kg (2006.01~2007.01) 2차년도 1,400Rp/kg (2007.01~2008.01) 3차년도 1,200Rp/kg (2008.01~2009.01)

한국 상품에 대해 2007년 중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경우는 없었으며, 진행 중인 건도 덤핑판정이 확정적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산 복사/인쇄용지에 대해 반덤핑판정을 다시 내린 것에 대해 WTO에서 한국의 반덤핑 재판정에 대해 절차적인 하자를 이유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에 보복관세를 추진할 수도 있도록 하는 판정이 난 바 있었으나, 별다른 보복조치가 없이 무마되는 분위기이다..

□ 2007년 수입규제 변동 내역

2007년 수입규제 변동 내역이 없어 2006년 하반기 상황과 동일하나 11월 초에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판정이 났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었으나, 오보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07년 말까지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12월까지 사전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어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고, 만약 제소가 될 경우 30%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가 부가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2008년도 수입규제 전망

□ 개요

○ 비관세 장벽의 강화

- 중국, 한국, 일본 등 주요 교역 국가들과의 FTA가 체결, 발효되면서 인도네시아 수입 시장이 빠르게 개방됨에 따라, 이를 커버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조치들이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통관 검사나 수입허가 절차 강화와 같은 조치를 통해 통관절차의 개선 및 선진화라는 명분하에서 수입을 위축시키는 조치들을 강화해 가는 중이다.

○ 품질기준 강화를 통한 수입규제

- 기존의 공산품 국가표준에 이어, 농산물에 대한 국가표준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며, 당장 2007년에는 마늘, 2008년에는 사과와 코코아 등에 품질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 통상정책 방향

인도네시아 통상정책 기조는 FTA 활성화로 방향이 잡혀 있으나, 내수 시장 방어를 위한 틀로서 반덤핑 판정 등의 활용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중국과의 통상 마찰이 불가피할 경우, 같은 그룹으로 묶이는 동북아 국가 제품을 타겟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수출 급증 및 무역수지 불균형 품목

- 최근 들어 한국의 수출이 급증한 품목으로는 텔레프린터, 페놀수지, 석유원단, 석유 화학 제품 등이며,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한 품목과도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 업종별 협회 불만 품목

-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수입량 급증에 대해 불만이나 우려가 제기된 품목으로는 가전업계와 석유업계가 지난해 부터 세이프가드 발동을 주장해 왔다.

○ 자국 산업 육성 품목

- 또한 자국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철강 등 원자재 가공품, 제지, 농산물 등에 대해 수입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 관세제도

가. 관세 분류방식

인도네시아의 수입관세는 일반관세와 아세안 국가에 적용되는 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의 복수 체계로 되어 있다. '93년 1월부터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가 추진됨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에게는 CEPT에 따른 특혜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FTA 협정 체결로 2004년부터 일부 농산물에 대해 Early Harvest Program을 적용 관세를 인하하였으며, 2005년 7월부터는 공산품에 대해서도 본격 관세인하가 시작되었다.

인니는 '89년부터 HS제도를 도입, 총 품목은 종전의 약 5,000개에서 9,100개 (HS 9단위를 기준)로 증가하였다. 한-ASEAN 간에도 FTA 상품양허협정이 2006년 5월중 체결되어 (ASEAN 국가중 태국은 제외) 오는 2010년 까지 수입의 9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기로 되어 있으며, 이 미 2007년 6월 1일부터 50%이상의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가 시행되고 있다.

나. 관세율

1) 관세율의 개략적 체계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 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1985년 이래 지속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안정보장, 문화/사회적인 관점에서 일부 보호산업/물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수입관세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2) 품목별 평균 관세율

수입관세는 수입품 관세평가액의 0-170%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 분	품 목	적용세율
자동차	승용차, 상용차	25-60%(완성차)
자동차부품		15%
전기제품		5-15%
가죽류		10-15%
알코올/알코올음료	에틸알코올, 맥주, 포도주	30-170%
농산물	동물, 식물성제품	0-5%
기타	화학품, 약품류, 고무제품 등	0-5%

3) 가공도별 차등관세 적용

소비재의 평균세율은 중간재와 자본재의 2배 이상이다.

4) 실질관행과 관련 관세 절감 요령 및 특기사항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상 또는 기업 비즈니스맨들은 중국계로써 싱가포르 또는 바탐섬 등 자유무역지대로 일단 수입을 하여 하치, 보관한 후 인도네시아로 재수입하는 일이 많다.

또한 직수입하는 경우에도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선박에 일단 선적을 하고 싱가포르에서 환적한 후 제반 선적서류를 교환하여 아세안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다. 불법 또는 편법적인 행위이나 바이어들이 관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사용한다.

다. 관세평가제도

1) 관세산정 방식

HS 도입 이전에는 종량세 품목이 521개 품목으로 총품목의 10% 수준이었으나, '89-90년 기간 중 모든 종량제를 종가세 및 수입과징금으로 대체시킨 바 있다. 이와 같이 종량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것은 관세율의 공개성과 예측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 관세부과는 CIF 가격 기준
 - 관세금액 = 수입품 가격 X 관세율 X 관세 환율
 - 관세 환율은 재무성이 외국 통화를 루피아로 환산한 금액으로 매주 발표함

2) 관세부과 기준가액

- FOB 가격기 준으로 U\$5,000이상인 경우, 수출시 SGS가 평가한 수출국의 정상 시장 가격과 송장금액 중 높은 가격
- U\$5,000 이하인 경우, 송장금액, 단 송장금액이 의심스러운 경우 유사 물품 가격과 비교하여 결정

라. 관세 환급제도

1) 일반

수입된 물품이 수출용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수입관세를 환급해주는데 이는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완제품 및 원자재의 수입시 수입관세를 일단 납부하고 제조, 가공 및 수출 후 환급받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관세 환급 절차를 밟아 왔으나 PAKJUL 조치 이후 사전 유예가 가능하므로 (은행 보증서 이용) 통상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시에는 관세가 면제되거나 잠정 유예 통관이 된다. (수출 신고시 완전 해제)

2) 환급대상

물품의 수출전 3년 이내에 수입한 완제품 및 원자재로써 최종 제품이 수출되고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환급대상 제외 물품
 - 수출되지 않는 부산물, Waste, 스크랩 비용
 - 윤활유, 연료 및 공장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 수입규정에 위반하여 부과된 벌과금

3) 환급절차

- 신청서 제출
 - 신청서는 수출 후 1년 이내에 제출
 - 수입관세 환급 신청서 제출(공통서류: Form E)
 - 수입증빙 서류
 - 수입되는 제품 및 원재료와 최종 수출품의 연계 증빙서류
- 최종 수출품 검정
 - Surveyor가 검정한 후, Export Clean Report of Finding(LKPI)를 발급하는데 Surveyor는 정부가 지정하고, 재무성을 대신하여 SUCOFINDO(SGS Agent)가 검사하게 되어 있다.
- 환급 결정
 - 담당부서(P4BM)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환급여부를 결정 환급승인 시 신청 금액의 75%를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접수 후 60일 이내에 관련서류 확인 후 국영 은행을 통해 지급
- 수입관세 환급지시서(SPMKBM)이 3부 작성
 - 원본: 신청인
 - 1 부: 국영은행
 - 1 부: 예산국장에 송부
- 환급금 지급
 - 국영은행에서 환급지시서의 진위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지급
- 인도네시아에서 관세 환급은 절차나 시스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실질적으로 환급을 받기까지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마. 원산지 규정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이 미국, EU 수출 시 GSP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된다. 또 미국이나 EU에 섬유류를 수출할 때도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된다. 인니에서 통관 서류로서의 원산지 증명서는 검역의 목적 또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수입 후 관세 환급 신청 시에나 요구되는 정도이다. 그러나 한-ASEAN FTA 가 발효되면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되고 있다.

6. 주요인증제도

가. 인증제도 관리기관: BSN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 주소: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k IV, 3rd & 4th Fl Jl. Jend. Gatot Subroto, Senayan, Jakarta, Indonesia
- 전화: 62-21-574-7043 / 팩스: 62-21-574-7045
- e-mail: bsn@bsn.or.id
- Homepage: www.bsn.or.id

나. 인도네시아 표준 관리 및 표준 설정(SNI)

인도네시아 국가 규격/표준은 SNI이며, 국가 표준화 담당 기관인 BSN에서 관장한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적용되며, 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보전 그리고 경제적 고려의 이유 등으로 일부 품목에서는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외에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표준규격 품목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출시 유의해야 한다.

국가 표준/규격 취득이 의무화 된 제품의 경우, 수입시 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인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 업자는 수입 물품을 폐기처리 하거나 재수출해야 한다. 해당 기관으로부터 규격/표준 인증서를 발급 받은 수입 업자는 물건을 유통하기 전, 물품에 반드시 표준/규격 인증서 번호, 검사 인증서 번호, 수입업자명을 기록해야 한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등지에서 밀수입되는 제품들이 부품으로 TV나 PC 등에 투입되어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생활수준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표준제도를 강화하려는 추세이므로 향후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SNI 표준 획득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SNI가 강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SNI인증을 받아 두면 거래추진시 유리하고, ISO나 CE등 국제적인 인증을 받아두면 대체인증효과를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

7. 지적재산권

특허권 (14년), 상표권 (10년), 판권 (무기한), 산업디자인특허 (10년) 등이 관련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호되고 있으나 위반 시 벌칙조항이 유명무실하여 지적소유권 침해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유명 브랜드의 가방, 장신구 등이 복제되어 팔리고 있으며, 영화 DVD는 한국 영화들 까지도 미화 1\$ 미만에 팔리고 있다. 이와 같은 복제품은 속칭 도깨비 시장 등 암시장에서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쇼핑몰 등에서도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다.

미국은 인니를 미 통상법 301조(지적재산권침해)상의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인니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마리 빵에스뚜 인니 상무장관도 2005년 6월, 미국과 추진중인 무역투자 협정 체결에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가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인니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령은 잘 되어있으나 이를 시행치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니 법무인권부의 지적재산권국은 지적재산권보호를 담당하는 팀을 2005년 하반기부터 격상시켰다. 종전 법무인권부 장관령에 의거 구성되어 법무인권부 외에 외무부, 상업부, 공업부, 재무부 관세국, 국가경찰, 대법원의 대표로 구성 되어 있었는데, 이를 대통령령에 의한 기구로 격상시켜 기능을 강화하고, 모든 부처의 담당 국장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지적재산권 국장은 미국의 우선감시국 지정은 인니의 국제적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우선 감시국 에서 조기에 해제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있다.

2006년 6월에는 'Widodo' 정치안보조정장관이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면서 '인도네시아 지적재산권 보호국(HaKI)'와 더불어 불법 복제 상품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온 각종 사회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민관합동저작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개선노력에 따라 미국 소재 사무용소프트웨어연맹(BSA)은 최근 2006년 인니의 불법복제 사무용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전년보다 2% 줄어든 85%로 집계됐으며, 이에 따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국 순위는 작년 97위에서 올해 94위로 소폭 개선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전년에 비해 2% 줄어 들었지만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은 2억8천만 달러에서 3억5천만 달러로 늘어났다고 한다. 법무인권부 지적재산국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불법복제물 판매상가에 최대 50억 루피아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추진중인데, 이 법조항이 포함될 경우 단속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니가 가입한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으로는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 Patent Cooperation Treaty, Trademark Law Treaty,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WIPO Copy Rights Treaty 등이 있다.

가. 상표

인도네시아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상표의 중요성을 크게 자각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자기상표 개발을 적극 유도하는 등의 별도 조치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

1) 상표출원 등록 절차

- 소정 신청양식에 인도네시아어로 작성, 특허국에 신청
- 외국 소재 신청인은 반드시 인니 변리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
- 신청 시 1주일 이내 상표출원. 등록 접수증 발급
- 상표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개시하며, 9개월 이내에 심사 종료.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출원자에게 통보하며, 출원자는 통보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 가능.
- 심사에 통과하면 3개월간 공고 실시하며, 등록에 이의 있는 자는 공고기간 중 이의 신청 가능. 이의서 접수 시 2주일 내에 출원인에게 이의서 사본을 전달하며 출원인은 2개월 이내에 반박서 제출 가능. 이의서와 반박서가 접수되면 공고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 실시
- 공고기간 중 이의 제기가 없으면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표등록증 교부

2) 상표권의 등록유지

- 10년간 유효하며 매 10년마다 갱신 가능. 보호기간 종료 12개월 전에 연장 신청

3) 우선 등록주의 채택.

- PARIS 협약 가입국가, 또는 WTO 가입국가에 상표 등록을 마친자가 최초 등록 신청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니 지적재산권국에 상표 등록 신청을 하면 우선권 주장 가능
- 최초 상표등록을 출원한 국가에 출원한 일자부터 기산하여 인니에서도 상표가 이미 등록 되어진 것으로 인정

나. 특허

특정기간 동안 기술분야의 발명에 대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 권리이다. 발명자는 발명 자체에 대한 권리 이행자이면서 타인에게 동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취득조건

- 반드시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한가지 발명에 대해 한가지 특허권 부여
- 법무성이 정해 놓은 비용을 특허국에 납부해야 함.
- 발명가 또는 일반인은 특허신청을 함으로써 동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지니게 되는데 인도네시아 영구거주자가 아닌 경우 대리인으로 PATENT CONSULTANT를 제출해야 함.

2) 취소사유

- 특허권 승인일로부터 4년간 권리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 특허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연간수수료(ANNUAL CHARGES) 납부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 특허사항이 다른 특허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발명 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미 특허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소유자가 취소소송을 함으로써 특허가 취소됨.

3) 의장

- 상표권에 준하여 취급되며 등록절차 등 제반 사항이 상표권 담당기관인 특허국에서 동일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4) 저작권

다. 적용대상

- 인도네시아 시민, 거주자, 법인의 모든 창작물
- 비 인도네시아시민, 거주자, 법인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최초로 창작한 것

라. 효력

- 책, 팜플렛, 논설, 강의, 연설, 통역, BATIK을 포함한 그래픽예술, 작곡, 건축술 등 최초로 등록된 창작물은 저자 생애기간은 물론 사후 50년까지 보호받는다.
- 음악쇼, 전통음악 및 노래, 드라마, WAYANG 연극, 판토마임, 영화촬영기술, 비디오 녹화, 비디오녹화, 음향녹음 등은 최초 발표 후 50년간 보호를 받는다.
- 사진 촬영기술, 컴퓨터 프로그램, 번역, 각색 등은 최초 발표 후 25년간 보호를 받는다.

8. 통관/운송

가. 수입 화물의 통관절차

- NEGOTIATION BANK에서 OPENING BANK로 선적 서류 발송.
- 수입자는 ORIGINAL NEGOTIATION BANK 서류를 OPENING BANK로부터 받기 전에 수출자로부터 선적 서류 COPY를 받아 PIB(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거래 은행(OPENING BANK)에 수입 관세를 납부 후 L/C대금을 정산
- OPENING BANK로부터 선적서류를 받아 PIB 기재 내용을 확인한다
- 기타 통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통관업체에 양도
- 통관업체에서는 양도받은 통관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 통관을 진행하고, 통관이 끝나면, (수입화물이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수입관세의 면세 또는 감세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BAPEKSTAN나 BKPM의 관세 혜택 관련 서류를 통관 시 첨부함.)
- 세관에서는 통관확인서류를 통관업체에 발행(SPPB)하며, 통관업체는 PORT CHARGE 등 관련비용을 납부 후, 항만청으로부터 D/O(TILA)를 발급
- 운송회사에 운송을 의뢰
- CY 또는 보세 창고로부터 수입 화물을 인도
- 수입자의 공장 또는 창고로 DELIVERY
- 통관 업체에서는 수입 통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자의 비용에 첨부함으로써 수입의 모든 과정이 종결

나. 수입 통관 관련 서류

- B/L: 수입자 또는 수입자와 OPENING BANK의 배서가 되어야 하며, 포워드 또는 선사로 부터 D/O (DELIVERY ORDER)를 받는데 사용.
 - 최근에 인도네시아 통관이 강화되면서 세관에서 검사가 결정된 경우, 화물 검사는 100% 화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적 서류와 실제 화물이 일치하지 않은 화물은 밀수로 간주되어 벌금 부과 혹은 고액의 별도 비용 지출하여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PIB (PEMBERITAHUAN IMPOR BARANG-수입화물신고서)
 - 수입자가 COMMERCIAL INVOICE를 기초로 작성하며, 수입 화물의 명세 및 관련 세금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세금은 은행에 납부 후 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함. PIB는 가장 중요한 수입 통관 서류 중에 하나로 작성시 물품가, 운임, 화물 중량, CONTAINER 등을 오류 없이 작성해야 한다.
- ORIGINAL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 ORIGINAL INSURANCE POLICY

- 세금납부 영수증(SSP, SSBC-수입 관세, 부과세, 수입소득세에 대한 영수증)
- ORIGINAL SKB(SURAT KETERANGAN BEBAS PEMUNGUTAN Pph 22): 일반적으로 수입관세는 수출용 원부자재 또는 투자의 경우 납부 후 환급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환급의 번거 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매 수입 건마다 세무서의 확인을 받아 면세를 받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임.
- TANDA TERIMA BAPEKSTA (BAPEKSTA의 FACILITY를 사용하여 관세혜택을 받을 경우- 수출용 원부자재의 경우)
- SKEP FACILITY BAPEKSTA COPY (BAPEKSTA로부터 FACILITY를 받은 확인서 I. D/O (DELIVERY ORDER)
 - (참고):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관세 혜택을 받은 종류에 따라 수입 통관 서류의 일부가 추가될 수 있음.
 - 예)BKPM의 FACILITY를 받은 경우는 MASTER LIST와 SURAT KEPUTUSAN MENTERI KEUANGAN (BKPM 투자 승인서)이 필요하며, BAPEKSTA FACILITY 이용 시 TANDA TERIMA BAPEKSTA와 SKEP FASILITAS BAPEKSTA 필요.

다. 수입 통관 시스템 전산화

- 현재 JAKARTA 지역 세관(TG. PRIOK, SUKARNO-HATTA)은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이 갖춰져 있어 수입자나 통관업체와 COMPUTER로 연결되어 있으며, 수입자 또는 통관업체에서는 PIB를 작성하여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고, 은행의 확인을 받아 PIB 내용을 세관 MAIN COMPUTER로 전송하면, 세관에서는 전송내용을 확인 한 후, 이상없을 경우 연결된 COMPUTER를 통하여 SPPB(SURAT PERSETUJU AN PENGELUARAN BARANG-화물통관 확인서)를 수입자 또는 통관업체에 전송, 통관 업체에서는 SPPB를 받은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거친 후 화물을 인수하게 된다.
 - (참고): 현재 인도네시아 통관 규정상 1건의 통관 서류상에 수출용 원, 부자재일지 라도 수입화물의 종류가 5 ITEM(H.S. NO기준)이상이거나, 일반 소비재(내수 판매용)는 필수 검사 품목(JALUR MERAH)로 지정하여, 화물 확인 검사를 하게 되어있으며 실무자들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다르고 관할 세관마다 시행에 차이가 있어 수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라. 수입 통관 관련 비용

- OCEAN FREIGHT: CIF나 C&F는 수출자가 지불하며 FOB의 경우는 선사 TARIF에 따라 수입자가 지불.
- TEMINAL HANDLING CHARGE: US\$ 100,-/20', US\$ 155,-/40', US\$ 16-26/CBM
- IPA (INTER ASIA): US\$ 8,-/20', US\$ 12,-/40', US\$ 12,-/40HC, US\$ 15,-/45'
 - (USA, EUROPE): US\$ 12,-/20', US\$ 18,-/40', US\$ 18,-/40HC, US\$ 23,-/45'
- D/O CHARGE : US\$ 20,-/DO
- CUSTOM CLEARANCE CHARGE: 통관 대행 수수료로 포워드나 통관 업체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음.

- PORT STORANGE & LIFTON: DIR Rp. 40.000,-에서 60.000,-정도이나 통관, 운송이 지연될 경우 PORT TARIF에 따라 SURCHARGE가 붙음.
- LIFT OFF & CREANING CHARGE: 선사 및 DEPOT마다 차이가 있음.
- 운송료: 지역에 따라 운송요율 적용.
- 항공 화물의 경우 창고료의 적용은 공항 창고의 TARIF(US\$)에 따라 적용.
- 기타 CONTAINER REPAIR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통관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과외 비용이 필요하며, 세관원과는 CASE BY CASE로 NEGOTIATION 해야 한다.

마. 통관 소요 기간

기본적으로는 통관 서류를 받은 후 24시간 내에 통관 완료 후 DELIVERY하고 있으며, JALUR MERAH(화물 검사 품목으로 지정)에 해당될 시 화물 검사에 들어가면 예전에는 소요 기간이 한 두 시간에 정리가 되었으나, 2007년부터는 검사가 강화되어 100% 전수검사로 들어가면서 훨씬 더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참고: 상기 내용은 보세 구역(EPTE)내에 소재한 업체가 아닌 일반 공단 지역에 입주한 업체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보세구역 내에 입주한 업체는 공단에서 수출, 입 통관이 이루어지고 (세관원이 공단에 상주), 부두의 세관에서는 단지 신고 절차만 거치고 전반적인 흐름은 동일하다.

바. 항구 및 공항

□ 인도네시아 주요 국제 공항 및 항구는 다음과 같다.

이중 한국 국적기가 취항하는 곳은 자카르타의 soekarno-Hatta 공항과 발리 덴파사의 Ngurah Rai 공항 두 곳이다. 나머지 지역들은 일단 자카르타에 도착한 후 국내선편을 이용해야 한다.

- 국제항구: sekupang 항, Batu Ampar 항, Nongsa 항, Marina Teluk Senimha 항(이상 Batam), Bandar Bintan Telani Lagoi 항, Bandar Sri Udana Lobam 항(이상 Bintan), Belawan 항(메단), Sibolga항(북 수마트라), Yos Sudarso항(두마이), Teluk Bayur항(빠당), Tanjung Priok항(자카르타), Padang Bai항(발리), Jaya Pura항(빠뿌아)
- 국제공항: soekarno-Hatta 공항(자카르타), Polonia 공항(메단), Tabing 공항(빠당), Juanda 공항(수라바야), Ngurah Rai 공항(발리), Sam Ratulangi 공항(마나도), Sultan Syarif Kasim II 공항(빠켄baru)

사. 운송비용

2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한국에서 자카르타까지의 순수 해상운임은 600달러 정도 소요된다. 터미널 차지는 2005년 11월1일부로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종전 150달러에서 95달러로 인하되었다. 그동안 고비용 경제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항구 관리업체, 수출입업자 등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며, 2005년 10월1일 120%의 유가인상을 발표하면서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완조치의 일환이다.

□ 주요 운송회사 및 통관 서비스 회사 리스트

회사명(국문)	회사명(영문)	전화	팩스
에스피엘 로지스틱	SPL LOGISTICS (무역관 자문업체)	8379-3806	8379-3832
어코드로지스틱인도네시아	ACCORD LOGISTICS INDONESIA	6531-1202	6531-1119
에이스 멀티트랜스 카고	ACE MULTITRANS CARGO	654-0386	654-0387
에이,씨,아이익스프레스	ACI KORINDO EXPRESS	8370-2767	8379-5369
아네카 트랜스	ANEKA TRANS	520-4181	520-4171
아르페리 브라따마 해운	ARPERI PRATAMA OCEAN LINE	350-5443/6	380-3615
범양	BUMYANG	798-6128	798-6089
카고 플라자	CARGO PLAZA	831-7779	831-7720
동남아 해운	DONGNAMA SHIPPING CO.LTD	5296-2240	5296-2235
범한물류	FIRST AND SMILE LOGISTIC TRADING DIVISION	8998-2855	8998-2833
그라하 센트라 카고	GRAHA SENTRA CARGO	4584-0108	4584-0111
한인도 익스프레스우타마	HANINDO EXPRESS UTAMA	252-5123	252-0551/6
한진해운	HANJIN SHIPPING CO.LTD	632-1055	632-1056
하스풀 인터나셔널 인도네시아	HASPUL INTERNASIONAL INDONESIA	8379-3732	8379-7930
흥아해운	HEUNG-A SHIPPING CO.LTD	8379-3732	8379-3728
홍토 라주아바디	HONGTO LAJU ABADI	7918-1450	7918-1515
현대상선	HYUNDAI MERCHANT MARINE CO.LTD	385-5372	384-0674
인스 테크노로지인도네시아	INS TECHNOLOGY INDONESIA	8998-2855	8998-2834
조인어스 카고 부아나	JOINUS CARGO BUANA	654-6616	654-6626
코리아마린 트랜스포트	KOREA MARINE TRANSPORT CO.LTD	530-7866	530-7852
코르넷 트랜스 우타마	KORNET TRANS UTAMA	799-0831	799-0603
케이피엘	KPL	422-9282	422-9283
만디리 아바디 센토사	MANDIRI ABADI SENTOSA	5296-2234	5296-2235/38
미트라 트란신도쁘르까사	MITRA TRANSIDO PERKASA	426-0175	420-3844
엔씨에스 해운	NCS LINE	352-4843	386-2675/76
범양상선	PAN OCEAN CHIPPING CO.LTD	798-6128	798-6089
프라야란 코린도	PELAYARAN KORINDO	797-5959	797-6388
프로트랜스 인도네시아	PROTRANS INDONESIA	8379-0822	8379-2177/8
큐씨엔	QCN	520-4189	520-4357
센다이 로지스틱	SENDAI LOGISTIC	719-0247	718-2489
에스엠에스 해운	SMS LINE	520-4177	526-6320
수치바하리 아디타마	SUCIBAHARI ADHITAMA	471-4460	471-4465
순baru 메가흐 시핑	SUNBARU MEGAH SHIPPING	520-4177	520-4171
탐익스프레스	TRANS UTAMA INDOKARYA	829-6218	829-7613
윙스 글로벌	WINGS GLOBAL	4585-8053	4585-0332
짐모아	ZIMMOAH	4786-6502	4786-6503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개요

인도네시아는 국내 자본 축적이 부족하여 외국자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1980-90년대 수많은 규제완화가 실시되었으며, 1994년과 1998년의 투자규정 개정에 의해 100% 외자회사 설립도 가능해졌다.

그 동안 외국인 투자는 자원개발, 가공수출증대, 고용창출기회 제공 등 인도네시아 경제, 산업분야 발전에 크게 공헌해 왔으나 1997년의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정치, 사회적 혼란, 국심한 환율변동으로 외자 유치가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2002년부터는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노동자 최저임금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노동집약적 기업은 종전에 비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구나 2003년 개정된 신 노동법은 노동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여 기업운영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4년에는 총선 및 대선을 치르는 해로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외국인 투자자가 관망세를 보여 외자유치가 부진하였으나 선거가 무난히 치러져 정치적 불확실성이 견제에 따라 2005년에는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국가 경제발전, 특히 IMF 금융위기 이후 거의 손을 못댄 인프라의 개선을 위해서는 투자 유치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투자 유치 확대에 전력 투구 하고 있는 중이다.

투자 관련 법령도 대폭 개선하고 관리의 부정 부패를 근절하는 등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는 생각으로 인니 정부는 2005년 1월 국내외 투자자들을 초청, 제 1차 인프라서밋을 개최하고 91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고, 2006년 11월 1-3일간 제 2차 인프라서밋을 개최, 10개의 모델 프로젝트와 101개의 잠재 프로젝트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인니 정부는 인프라 확충에 향후 5년간 1,450억\$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부분을 외국인 투자 등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2005년 초부터 진행된 투자관련 법령 정비는 행정적인 지연으로 2005년 말까지 진척이 되지 못했다. 정부는 투자법령, 세제, 노동법 등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령 등을 2006년에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의회 노조 등 이해당사자들간의 이견으로 처리가 무산되어 2007년으로 처리가 넘어오게 되었다.

수년동안 논의되어진 투자법은 마침내 2007년 3월29일 국회를 통과하여 4월26일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신투자법이 발효하게 되었다. 신투자법은 67년의 외국인투자법, 68년의 국내투자법을 통합해 투자에 관한 기본법으로 재정비되었고, 내용적으로도 인니의 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인 규정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투자정책의 수립과 이행관련 투자조정청(BKPM)과 정부부처(무역부 등) 및 지방정부간의 역할, 각종 허가권 발급기관 문제, 통합투자서비스 시스템의 원활한 이행 여부 등은 향후 신투자법 보완규정(대통령령 및 각종 부령)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이다.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섬유, 기계 등 15개 산업분야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규정 이외에 퇴직금 관련 노동 규정을 사회보장보험(잠소스택)으로 흡수하는 방안 등, 기타 투자 관련 규정이 개정,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 실현액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는 자원이 풍부하며, 비록 임금이 인상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하여 임가공 수출을 위한 투자대상지로 아직 매력적이다. 특히 2005년 말부터 중국이 노동집약적인 투자를 환영하지 않고 있고 또 인건비도 크게 오르는 추세이며,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베트남도 인건비 상승 여건이 성숙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체지역으로 대 인도네시아 투자는 적극 검토해 볼만 하다. 인니는 2억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세계 4대 인구대국으로서 내수시장 성장잠재력이 클 뿐 아니라 인근 아세안국가 시장까지 감안하면 현지 내수시장 겨냥 목적의 투자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나. 긍정적 요소

1) 정치 경제적 안정화

2004년 10월 인니 최초의 민선 대통령 취임 이후 정치적으로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대통령의 부패척결, 경제개발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고 있다.

1998년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 성장이 점차 안정화되어 2004년부터는 5%대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2007년부터는 6% 대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전망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GDP(명목) (억 달러)	4,010	4,390	4,800	5,270	5,790
실질경제성장률 (%)	6.3	6.5	6.7	7.0	7.2
인플레이션 (%)	6.0	5.0	4.0	4.0	4.0
비석유제품 수출 (억 달러)	804	863	930	1,004	1,088
비석유제품 수입 (억 달러)	574	627	700	786	886

자료원: IMF

2) 풍부한 천연자원

- 인니는 LNG, 석탄, 니켈, 주석 및 원유 등 천연자원의 보고
- 세계 최대의 열대림 보유국으로 산림자원 풍부
- 세계적인 코코넛, 야자, 천연고무 생산국

3)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

- 세계 제4위의 인구(2억4천만명)를 바탕으로 풍부한 노동력 제공
- 수도권 자카르타 인근의 최저임금은 900,560루피아(약 100달러)으로 베트남(약 50달러)에 비하여 다소 비싸지만 지방의 경우 50~60달러 정도도 가능
- 평균수명이 선진국에 짧은 반면, 출산율이 높아서 인구의 50% 이상이 25세 이하 젊은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생산가능 인구가 지속 증가

다. 부정적 요소

1) 노동의 유연성 부족 및 인건비 상승

- 높은 해고비용: 1년 근무당 1개월치 해고 수당 + 3년 근무당 1개월치 근속수당 (단, 기한부 고용계약은 해당되지 않음)
- 2000년 이후 매년 인건비 큰 폭 증가 (자카르타 최저 임금 상승률: 2005년 15.0%, 2006년 9.95%)
- 초과근무수당의 누진제 적용: 1시간 초과 150%, 2시간 이상 200% 지급 등

2) 인프라 부족

- 도로, 항만 등 인프라 설비 부족 및 낙후로 컨테이너 운송비용, 하역비용 등 물류 비용이 높은 편
- 전력 부족으로 전기의 안정적 공급 차질

인도네시아 인프라 현황

구 분	인도네시아 통계	아세안 국가순위
전기보급률(%)	53	11위
유선전화 보급률(%)	4	12위
휴대폰 보급률(%)	6	9위
하수구 연결율(%)	55	7위
식수(상수도)보급률(%)	78(14)	7위
도로(km/1,000명)	1.7	8위

자료원: World Bank 2005

3)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비효율적인 경제 시스템

- 투자 인.허가 과정의 복잡한 절차와 시간, 비공식적 비용 발생
- 관세 환급, 부가세 환급, 법인세 선납 등 세금 선납 후 사후 정산 및 환급시 부조리
- 밀수 만연으로 정상적인 수출입에 장애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 및 보호 의식 부족

4) 안전에 대한 불안

- 2002년 발리 호텔, 2003년 자카르타 메리어트 호텔, 2004년 주 인니 호주대사관, 2005년 발리 식당가의 자살 폭탄테러 발생 등 잦은 테러로 인하여 민생치안에 대한 불안감 존재
- 지진의 빈발, 조류독감, 기타 풍토병 등으로 외국인들에게는 위험한 지역으로 인식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외국인 투자 동향

2006년도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투자(실행기준)는 867건, 59억7천7백만 달러에 그쳐 2005년 대비 33%나 감소함. 지난해 투자가 크게 감소한 것은 2005년 대폭적인 유가인상 이후 인도네시아 경제가 정상적으로 운용될지에 대한 불확신 및 노동법, 세법, 투자법 개정 등 투자환경 개선관련 법규 개정이 지지부진하면서 투자자들이 투자시기를 저율질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연도별 대 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금액(실행 기준)은 1998년 48억 달러에서 1999년 82억 달러, 2000년 99억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다가 2001년 35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그 이후 2004년까지 30~50억 달러에 머물렀다가 2005년도에는 89억1천5백만 달러를 기록함 1999년 및 2000년에 외국인투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1996년부터 외국인에 대한 100% 투자 허용에 따라 단기적으로 급증한 투자 승인건의 실행, 수하르토 정권의 32년 독재 종결, IMF 금융위기의 안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됨

2006년 지역별 투자실행액은 자카르타 수도권이 330건에 14.7억 달러, 서부 자바가 199건에 16.2억 달러, 리아우주가 9건에 5.9억 달러, 반텐주가 84건 5.1억 달러, 동부 자바가 54건에 3.8억 달러를 차지하였으며, 총 외국인투자의 74%가 자바성에 집중되었음

2006년 감소하였던 투자실행액은 2007년 들어서 회복세를 보여, 1분기까지 전년대비 14.9% 증가한 29억9천8백만 달러의 승인실적을 보이고 있음

나. 외국인투자 승인 동향

2006년도 외국인투자 승인은 1,718건에 156억6천만 달러로 2005년 대비 30.4%가 증가하였음. 신규 투자는 46억2천7백만 달러로 2005년 대비 16.5% 감소하였으나 기 진출 기업의 증액 투자는 59억1천9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2.2% 증가하였으며, 특히 기업인수 등을 통한 투자변경건이 127.9%나 증가한 51억1천3백만 달러를 기록함. 2006년의 분야별 투자승인 실적은 금속.기계.전자 분야가 가장 많아 84건에 29억2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다음은 건설분야로 46건 25억6천만 달러이었으며, 화학.의약품, 종이 및 제지 등의 순임.

2007년에 들어서 투자승인은 급격히 늘어나 지난해 동기대비 5배도 증가한 141억 달러를 기록하여, 지난해 연간 승인실적에 육박하고 있음. 특히 올해 1분기의 투자승인 증가는, 산업별로는 화학 및 제약산업(89억8천5백만 달러), 국가별로는 미국(87억7천4백만 달러)의 투자 승인 급증에 기인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건)

	투자 승인			투자 실행		
	건 수	금 액	증감률	건 수	금 액	증감률
2000	1,599	16,015	47.0%	638	9,877	20.0%
2001	1,375	15,202	-5.1%	453	3,484	-64.8%
2002	1,238	9,955	-34.6%	435	3,085	-11.5%
2003	1,238	14,278	43.4%	570	5,450	76.7%
2004	1,226	10,416	-27.1%	544	4,601	-15.6%
2005	1,648	13,579	30.4%	909	8,915	93.7%
2006	1,718	15,659	15.3%	867	5,977	-33.0%
2007(1분기)	457	14,133	496.4%	245	2,998	14.9%

자료원: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다. 국별 투자동향

□ 말레이시아가 최대 투자국(2006년)

2006년 대 인도네시아 최대 투자국은 말레이시아로서 23.3억 달러의 투자를 승인받아 전체 투자 승인액의 14.9%를 차지함. 이어 싱가포르가 21.8억 달러, 세이셸 공화국 14.1억 달러, 영국 10.4억 달러에 이어, 한국은 8.8억 달러로 다섯 번째를 기록함

□ 투자 승인건수 한국이 최다

투자승인 건수 기준으로는 한국이 313건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대 투자국으로, 건수 기준 2위국인 말레이시아의 203건인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여줌

2006년도 대 인도네시아 국별 투자 순위(투자 승인 기준)

순위	국가	승인건수(건)	승인액(천 달러)	비중(%)
1	말레이시아	203	2,328,776	14.9
2	싱가포르	245	2,185,684	14.0
3	세이셸공화국	10	1,410,183	9.0
4	영국	123	1,039,180	6.6
5	한국	313	887,207	5.7
6	스위스	4	477,737	3.1
7	일본	55	443,662	2.8
8	홍콩	16	398,684	2.5
9	프랑스	23	355,864	2.3
10	대만	27	218,621	1.4
	합계	1,718	15,659.115	100.0

자료원: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 누적기준 일본이 최대 투자국

1967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투자승인 누계기준으로는 일본이 394억2천만 달러로 최대 투자국임(전체 투자승인 금액의 12.2%를 차지).

한국은 누계기준 투자금액은 전체 7위이며 건수로는 1위를 차지

1967년~2006년 대 인도네시아 국별 투자 순위(투자 승인 기준)

순위	국가	승인건수(건)	승인액(천 달러)	점유율(%)
1	일본	1,750	39,420,551	12.6
2	영국	1,017	35,193,976	11.3
3	싱가포르	2,317	28,469,394	9.1
4	홍콩	549	20,904,148	6.7
5	대만	1,163	13,476,979	4.3
6	말레이시아	1,176	12,544,817	4.0
7	한국	2,727	12,143,362	3.9
8	미국	679	11,725,807	3.7
9	독일	356	9,521,462	3.0
10	호주	717	9,517,352	3.0
	합계	18,024	312,744,882	100

자료원: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최근 투자 동향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BKPM)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승인은 313건 US\$8억8천720만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급증하였다.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 통계

(단위: US\$ 백만)

연도	승인건수	승인금액
2001	296	373.4
2002	246	378.3
2003	200	166.2
2004	210	419.3
2005	309	417.3
2006	313	887.2
2007.1-10월	327	622.1

자료원: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BKPM)

산업별 투자 분야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분야의 투자가 134건 6억3,955만 달러였으며, 서비스 산업 분야는 169건 2억103만 달러, 1차 산업 분야는 10건 4,662만 달러로 나타났다. 업종별 투자 규모로는 금속/기계/전자산업이 22건 3억6,480만 달러로 최대 투자 업종이었으며, 이어서 화학/제약산업이 11건 1억6,993만 달러, 섬유 60건 6,9047만 달러로 뒤를 따랐다. 투자건수로는 무역서비스 부문이 123건으로 가장 많은 투자건수를 기록하였으며, 이어서 섬유산업이 60건으로 아직도 한국의 주력 투자 업종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업종별 투자현황(승인기준)

산업분야	투자건수	투자금액(USD 천)
Food Crops & Plantation	4	33,480
Livestock	1	3,291
Forestry	1	3,500
Mining	4	6,350
1차산업 소계	10	46,621
Food Industry	3	5,600
Textile Industry	60	69,047
Leather Goods Industry	5	2,700
Wood Industry	3	4,900
Paper & Printing Industry	10	4,550
Chemical & Pharmaceutical	11	169,939
Rubber & Plastic Industry	14	14,059
Non Metallic Mineral Industry	1	600
Metal, Machinery, Electronics Industry	22	364,815
Vehicle & Transport Equipment	2	750
Other Industry	3	2,594
2차산업 소계	134	639,554
Construction	5	19,893
Trade & Reparation	123	65,721
Hotel & Restaurant	8	60,175
Transport, Storage	11	8,500
Real Estate, Industrial Estate	1	750
Other Service	21	45,994
3차산업 소계	169	201,032
전체	313	887,207

자료원: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BKPM)

나. 주재국 내 한국투자진출 기업수 및 업종별 비중

현재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한국기업은 약 1,100개사로, 이 중 섬유 및 섬유 관련 업체가 195개 사, 신발 및 완구 관련 업체 97개 사, 전기 및 전자 관련 업체 79개 사, 금속 및 기계류 관련 업체 74개사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한국계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근로자 수는 약 5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한국 투자 진출 기업은 인도네시아 내 노동 집약 산업 부문의 생산, 수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자원, 건설, SOC 등 기간 산업 분야에 이어 최근 들어 IT 분야에의 진출도 매우 활발하다.

지역별로는 자카르타에 493개의 우리나라 투자기업이 위치하여 전체의 44.7%를 차지했으며, 자카르타 이외의 자바섬에 53.3%, 기타 지역에 2%가 진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주요 진출 업종을 보면, 자카르타에는 도소매, 창고, 유통 및 제조업의 본사 기능을 하는 기업이 주를 이루며, 버카시(Bekasi)에는 찰리안 지역의 산업공단을 중심으로 전기 및 전자와 기타 관련 부품 기업이 진출해 있다. 땅그랑(Tangerang) 지역은 신발 관련 기업이 진출하여 있으며, 대표적인 업종인 섬유산업은 자카르타, 버카시, 땅그랑 지역에 관련 기업들이 고르게 진출해 있다.

다. 주재국 한국투자진출 기업의 영업특징 및 패턴

1) 현지생산, 해외수출이 인니투자 초기형태

현재까지 대부분의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는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제 3 국에 수출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내수판매의 경우에도 자카르타를 비롯한 서부 자바 일부에 판매 활동이 집중되어 있다.

2) 현지진출 대기업과 동반진출

LG, 삼성 등 대기업의 진출에 따라 동 업체에 부품 및 중간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동반 진출한 경우도 100개 업체 이상으로 파악되었다. 초기에는 현지 진출 대기업에만 납품하는 형태였으나 영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수 및 해외로 시장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3) 내수시장 공략시작

최근 인니 국민들의 소득 증가와 함께 소비 시장이 확대 추세에 있으며 소비자 구매력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 공략을 위하여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 개발을 통해 현지 소비 계층의 분화에 대비하고 아울러 전국적 판매망 확보 및 판매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4) 현지화 강화추세

필요시설과 원부자재를 한국에서 조달, 조립, 생산하는 경우, 원부자재 조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현지 투자수요 및 기호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최근 인니의 공업화와 함께 단순조립단계에 머물러 있는 산업분야는 부품과 중간재를 현지에서 조달,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 인니 투자도 인니에서의 R&D 비중을 높이고 현지부품 조달비중을 확대함으로써 현지 시장 적응력을 높여야 하며, 아울러 투자기업의 중요직책 (중간 관리자 등)에 현지인을 채용하고 현지인들은 관리하는 등 경영의 현지화도 진척되고 있다.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외국인투자법 및 개정내용

- 외국인 투자법 1967년 최초 제정
- 1970년 개정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법제정 목적은 외국의 자본과 경영기법, 기술개발을 통한 고용창출, 수출증대 및 자원개발을 통한 경제개발 추진

연도별 주요 개정내용

년 도	주요 개정 내용
1977	○ 외국인 투자유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관련 행정 총괄전담기구 (투자조정원: BKPM) 설립 ** BKPM 기능: 외국인 투자안내, 인허가 발급 투자 우선분야 선정 등
1989	○ 외국인 투자규제방식 변경(POSITIVE -> NEGATIVE)
1992.4	○ 특정조건하 100 % 외국인 투자 허용
1992.7	○ 외국인 투자제한분야의 축소(60개 -> 51개) ○ 투자 금지 분야 우유, 식용유, 합판, 중장비, 자동차 등에 대한 조건부 투자허용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허가증 발급절차 간소화 ○ 부동산 소유기한 연장(10년 -> 30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융자 허용 ○ 외국인 투자 시 취득허가증 종류 축소(8개 -> 4개) ○ 토지취득 및 건물 설립 절차의 간소화
1993.5	○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지분소유 상한 확대 (49 %)
1993.6	○ 외국인 투자금지업종 축소(51개 -> 34개 업종)
1993.7	○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에 잠정적으로 부여되었던 세금감면혜택 폐지
1993.10	○ 100 % 외국인 지분소유 허용조건 완화 및 기간연장
1994.6	○ 지분 양도의무 폐지 ○ 100 % 지분 소유가능지역 확대(14개 주 -> 전국) ○ 외국인 단독 투자 시 최저자본금(5천만 불) 규정 폐지 ○ 합작투자 시 지분소유한도 확대(80 % -> 95 %) ○ 합작투자범위확대(금지되었던 SOC부문 중 9개부문합작투자 허용) ○ 영업허가기간(30년) 연장수속 간소화
1995.5	○ 외국인 투자금지품목 축소(팜유, 의약품 등 10개)
1996.1	○ 수출입업에 대한 조건부 외자참여 허용(외국인의 100 % 지분소유 허용)
1996.6	○ 수출지향적 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 - 식물 수출 시 부과하던 수출검사료 폐지 - 세관구역, 보세지역, 수출가공지역간 상품교류 시 부과되던 VAT 및 수입과징금 폐지
1997.7	○ 내국인과 합작조건으로 외국인의 자국 내 경매회사 설립 허용 - BKPM 면허업체 뿐만 아니라 산업무역부, 지방정부 관리 투자업체에 대해서도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에 대한 면세혜택 확대
1998.6	○ 외국인 투자금지업종 재조정 및 투자금지업종 축소 - PALM OIL PLANTATION 및 도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철폐 -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철폐
1998.10	○ 은행법 개정안 의회통과 - 자국에서 영업하는 외국은행에 대한 외자출자규제철폐(100 % 자유화) - 은행설립 인허가권 (재무부 -> 중앙은행)
1999.1	○ 정부지정 첨단산업분야(22개)에 대한 소득세 면제조치발표(최장 8년간)
2007.4	○ 신투자법 발표

나. 투자우대 정책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우대 등의 혜택은 아직까지는 광범위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일부 혜택이 있음
 - 신규투자에 해당하는 설비 및 기계수입, 최초 2년간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에 대하여 마스트리스트를 작성하여, 최고 5%의 수입관세 납부 (재무부령 2000년 135호)
- 특정 분야 및 지역에 대한 세금우대에 대한 규정(Regulation No 1 / 2007)이 올해 초 발표되었음
 - 동 규정은 그동안 유명무실하였던 첨단산업분야 투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대통령령 7호, 1999년 1월14일) 규정을 실질적으로 대체하게 됨

1) 대상

2007년 1월이후 BKPM 으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은 기업 (신규 투자기업 및 기투자업체의 확장투자도 포함) 중 식품, 섬유, 제지 등 정부지정 15개 업종을 대상

2) 내용

□ 소득공제

- 고정자산 투자의 30% 상당액을 6년에 걸쳐 과세소득에서 공제(매년 5%)
- 상업생산개시일 기준으로 하며, 현지실사를 통하여 세금당국이 결정

□ 가속상각

유형고정자산 그룹	내용 연수	감가상각 및 이연상각	
		정액법	정률법
I. 비건축물			
Category I	2 years	50%	100%
Category II	4 years	25%	50%
Category III	8 years	12.50%	25%
Category IV	10 years	10%	20%
II. 건축물			
영구	10 years	10%	-
비영구	5 years	20%	-

□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근거한 배당 원천세 경감

□ 결손금 손실보상기간 5년, 특정 조건하에서 최대 10년

다. 신투자법 주요 내용

신투자법은 전문 및 17개 장(Chapter), 40개 조항(Article)으로 구성

- 내외국인 투자자 동등 대우(6조)

- 투자자의 소유권 보호(7조)
 - 정부는 법에 의한 경우 외에, 국유화 조치를 취하거나 투자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시장가격에 따른 보상 부여
- 과실 송금 이전의 자유 보장(8조)
 - 투자자가 지정하는 곳으로의 자산의 자유로운 이전 보장
 - 자본, 이익, 은행이자, 배당금 및 기타 소득, 로얄티, 투자분야 외국인 종사자의 소득, 청산 소득 등을 외국화폐로써 자유롭게 이전하거나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투자 제한. 금지 분야 및 업종(12조)
 - 외국인 투자자는 무기, 탄약, 폭약, 군장비 및 법에 의해 금지된 분야의 투자가 금지되며, 내외국인 투자자 공히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결정
- 투자자의 권리, 의무, 책임(14조-17조)
 - 투자자는 법과 규정에 따른 권리의 보장을 받으며, 선한 기업경영의 원칙 이행, 기업의 사회적 의무, 자본투자행위에 대한 투자조정청(BKPM) 보고, 법과 규정의 준수 등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함.
- 조세혜택(18조)
 - 일정기간 이행된 자본투자량에 따른 소득세 감면
 - 인니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자본재, 기계류 수입시 수입관세 면제 또는 감면
 - 원자재 및 보조원자재 수입시 일정 기간 및 일정 조건하에 수입관세 면제 또는 감면
 - 일정기간 인니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 기계류 및 생산장비 수입시 부가 가치세 (Value Added Tax) 면제 또는 중지
 - 특정지역의 특정 분야에서의 토지세, 건물세 감면
 - 개척분야 산업(Pioneer Industry, 신기술과 국가경제에 전략적 가치 부여 산업) 투자에 대한 일정 기간, 일정 범위의 소득세 감면, 면제
- 투자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 확인(22조)
 - 토지경작권(Right to Cultivate) : 최장 95년까지 가능
 - 건설권(Right to Build) : 최장 80년까지 가능
 - 토지사용권(Right to Use) : 최장 70년까지 가능
- 외국인 투자자의 거주 편의 강화(23조)
 - 자격을 갖춘 투자자중 투자조정청(BKPM)의 추천에 따라, 2년간의 거주허가 및 현재 1년 및 6개월 비자를 대체하는 2년짜리 복수입국사증 부여, 2년 이상 인니에 거주한 외국 투자자에 대한 5년 유효 거주 허가서 부여 가능 등
- 사업허가서 취득의 통합서비스시스템 도입(25조-26조)
 - 상업행위를 하는 자본투자기업은 동 사업허가서 통합서비스시스템(One Door Integrated Services)을 통해 획득
- 투자정책의 조정과 이행(27조-28조)
 - 정부는 정부기관간, 정부기관과 인도네시아 은행 및 정부기관과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간 투자정책을 조정
 - 투자조정청(BKPM)은 투자정책을 이행하며, 투자조정청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고, 동 청장은 대통령이 임명

- 외국 투자자관련 분쟁의 국제중재 처리(32조)
 - 정부와 외국투자자간 분쟁은 국제중재를 통해 결정되고, 양측은 이에 구속

라. 투자금지 분야 리스트

-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4월에 발효한 개정 투자법 '2007년 제 25호'의 시행세칙에 맞추어 대통령령 '2007년 제 76호'와 '제 77호'에 의하여 새로운 투자 제한 분야를 2007년 7월3일부터 발효시킴. 이번 규정에는 25개 업종을 투자금지 업종으로 규정하였으며, 15개 분야 120개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외국자본 출자 비율에 대한 상한선을 규정함. 신 규정이 발효하기 이전에 승인된 투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승인 시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됨
- 통신, 환경, 식량안보 및 천연자원 다양성보존 등과 관련된 11개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 강도를 높임
- 대중매체의 경우 외국인 소유지분을 최대 20%로 제한하며, 대중교통회사는 49%, 전력생산 배분.공급회사 95%, 25헥타르 이상의 야자유 농장 95%, 의약품 회사는 75%로 외국인 지분이 제한됨
- 민간병원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65%까지 허용되고, 보건서비스지원사업이나 의료장비대여업 같은 분야에서는 외국인 지분이 49%까지 허용됨. 호텔이나 여관, 가라오케, 마사지업소 등을 포함한 14종류의 관광산업군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50%까지 허용됨. 농업은 위치제한이 있으며, 지방정부규정에 따라야 함.
- 교통분야의 항공 운송업은 49%, 정보통신분야의 유선전화 49%, 이동통신 및 위성전화는 65%까지 외국자본출자가 가능함
- 통신분야는 종전 규정은 최대 95%까지 외국자본의 출자를 허용하였으나 유무선 통신 회사 등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소유지분 상한제를 도입하게 됨. 이미 상한선을 넘어선 회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외국인 소유지분을 허용하지 않기로 함

최대 외국자본 소유 비율(대통령령 NO77/2007)

99% : 샤리아은행, Foreign Exchange Banking
95% : 석유 가스 개발,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발전분야, 고속도로, 식수, 벼농업(25h이상) 고구마 옥수수 농업
85% : Leasing, Venture Capital
80% :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
75% : 제약
65% : 병원, 클리닉, 비즈니스컨설팅
55% : 건설, 건설 컨설팅
50% : 공연장, 1~2성급 호텔, 케터링, 스파, 바/카페
49% : 인력회사, 의료장비 임대, 침술, 통신네트워크, 인력회사, 해상항공운송
25% : 자연관광, 생태관광

- 또한 정부가 지방정부규정에 근거해 특정지역의 경우 19개 사업군에 대해서만 투자를 허용하기로 결정함
 - 메단과 수라바야에서는 민간병원과 유치원이 위치제한을 받고 자카르타에서는 보건 지원서비스(의료장비임대업)도 위치제한을 받게 됨.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외국인 투자진출 형태

1) 외국인 투자의 보호

2007년 투자법은 외국자본의 기업경영을 인정하며, 투자자본을 보호하고 수입관세 감면과 동시에 외국인 고용계획서를 주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다. 또, 이익의 해외 송금, 소유권 이전을 포함한 국유화 등의 조치에 대한 외국자산의 보장, 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외자를 보호하고 있다.

2) 외국인 투자형태

외국인 투자 사업활동은 통상 주식회사(PT, Perseroan Terbatas)를 설립하는 형태를 갖는다. 외국인 투자법에서는 외국자본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PMA(Penanaman Modal Asing)라 부르며 다른 국내기업(PMDN)과 다른 자격을 주고 있다. '지점' 형태로의 사업활동은 현재 인가되고 있지 않다.

나. 지사 개설

1) 외국인 주재원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주재원 사무소는 건설관련 주재사무소를 제외하고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점이 일반의 현지법인과 크게 다르다.

□ 일반 주재원 사무소

외국기업이 판매촉진이나 시장개척, 정보수집, 품질관리에 대해서 조언을 주는 활동만을 실시할 수 있는 곳이 주재원 사무소이며 영업행위는 할 수 없다. 개설허가는 무역부에 신청한다. 일부 금융이나 광업관계 등은 각각 재무부, 광업에너지부 등 관련 정부 부처의 허가가 필요하다. 판촉활동과 판매영업활동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제품의 주문, 판매계약의 체결 등은 주재사무소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다. 판촉정보 수집 등 이외의 영업활동을 실시했을 경우 항구적 시설(PE)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

□ 건설관련 주재원 사무소

건설공사, 건설 설계, 건설 엔지니어링 등의 건설업의 사업활동을 인도네시아에서 실시하는 것이 허락되는 특별한 주재원 사무소이다. 단,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 전개시 현지기업과 Joint오퍼레이션을 조직하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다. 명칭은 주재원 사무소이지만 실질은 공사 사무소이다.

2) 주재원 사무소 개설 수속절차, 필요서류, 기간

상기 주재원 사무소형태에 따라 신청절차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주요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 주재원 사무소 개설 의향서(Letter of Intent)
- 주재원 임명장(Letter of Appointment)
- 활동범위 명세서(Letter of Statement)
- 주재원의 이력서
- 회사개요
- 회사증명서(Letter of Reference):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발행
- 주재원의 졸업증명서(최종학력, 영문)
- 여권복사본, 사진
- 회사등기부 등본과 회사정관(영어 번역본)

주재원 사무소 개설은 비교적 용이하며 개설수속, 필요서류 샘플집을 현지 컨설팅에서 제공하고 있다. 신청서류의 제출로부터 주재원 비자, 입국, 체재허가, 노동허가 취득, 회사세무 번호 취득과 최종 라이선스 취득 수속 완료까지 약 2-3개월이면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노동허가(WORK PERMIT:IKTA)는 인력부가 발급하고, 일시거주 증명서 (KITAS)는 법무부 이민국에서 담당한다

다. 현지 법인

1) 투자법인 형태

외국투자 사업활동은 통상 주식회사(PT/Preseroan Terbatas)를 설립하는 형태를 갖는다.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자본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PMA(Penanaman Modal Asing)라 부르며 다른 국내기업(PMDN)과 다른 자격을 주고 있다.

2) 설립수속 및 해당관청

현지법인 설립 수속 절차와 해당 관청

절 차	해 당 관 청	관 련 사 항
외국인투자 승인	투자조정청(BKPM) 지방투자조정청(BKPMD)	외국인 투자 승인, 소재지의 사업 건설 허가, 토지 사용권 등
회사설립 승인	법무부	회사정관의 승인, 관보공고
세무등록번호	재무부 국세청 지방세무서	세무등록번호(NPWP)발급, 달러회계, 영문회계 승인, 부가가치세 과세업자등록(PKP)
자본금 입금	중앙은행	자본금 불입 신고, 해외 차입금 신고
사업 라이선스	상공부	사업허가(SIUP), 회사등록(TDP)
취업규칙 등록	노동부	취업규칙 등록
국가기관 개별허가	재무부 에너지·광업부	금융·보험 부문의 경우 석유·천연가스의 경우

3) 외국인 투자 승인 절차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신청서 작성

BKPM의 소정 양식에 따라 영문으로 작성하며 첨부 서류와 함께 2부 작성하여 BKPM에 제출한다. 기재 내용은 투자관련 기본계획의 요약이며 신청서는 양식 견본을 참조하여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신청서 양식은 BKPM의 홈페이지(www.bkpm.go.id/en/)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첨부 서류는 외자기업정관(영어 또는 인니어), 제조·프로세스 설명서/ 원료,

부재료 종류표 (제조업의 경우), 예정업무 활동의 설명(서비스업의 경우), 위임장 (신청서 서명을 제 3자가 하는 경우) 등이며 합작법인의 경우에는 서명 완료된 합작 계약서, 인도네시아 측 파트너 서류(회사의 경우 회사 정관, 조합의 경우 조직 규정, 개인의 경우 신원 증명서)와 세무등록 번호가 추가된다.

□ BKPM의 심사 수속

상기 서류가 제출되면 BKPM은 우선 형식 심사를 실시하여 1주 이내에 접수증을 발급한다.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면 BKPM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BKPM은 제출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고, 사업 계획에 따른 내용을 잘 갖추고 있으면 통상 약 10일 이내에 투자승인 통지서(SP-PMA)를 발급한다.

□ BKPM 승인에 따른 후속조치

투자청으로부터 투자승인서를 받으면 회사설립절차에 들어갈 수 있음. 투자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투자실적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취소됨

투자승인서는 임시사업허가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환료 후 영구사업허가서를 별도로 획득하여야 하며, 주주가 출자금을 회사계좌에 불입 후에 범부무의 회사 설립 승인서를 획득하여야 법인 자격이 부여됨

6. 투자입지여건

가. 주요 공장 입주 지역

자카르타에는 수많은 공단이 조성되어 있으며, 자카르타 인근에 한국 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지역은 짜카랑 공단, 땅그랑 지역, MM공단, KBN 공단이 대표적이다. 짜카랑의 자바베카 공단은 일반 지역에 비하여 도로, 급수, 전기 등의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잘 구비되어 있으며, KBN 공단은 섬유관련 업체들이 주로 소재해 있다.

1) 자바베카 공단(짜카랑 소재)

- 운영: PT KAWASAN INDUSTRI JABABEKA Tbk
- 위치: 자카르타 시내에서 약 35 km 수카르토타타 공항에서 65 km
- 개발면적: 산업단지 1,330 ha / 주택 및 골프장 1,400 ha
- 입주현황
 - 약 17개국에서 250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 한국 기업이 90개 기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75개사, 인도네시아 35개사, 말레이시아 15개사, 호주 10개 사 등이 입주해 있다
- 특징
 - 전자업체가 주로 진출하고 있으며, 현재 삼성의 1차, 2차 밴드 업체가 진출 되어있다.

땅그랑 지역보다 좋은 질의 노동력이 있으며, 관공서 또한 업무처리가 신속함. 공단 지역의 경우 1㎡ 당 - \$ 50 정도 매입 가능하다.

- 공단의 경우 표준 공장이 지어져 있으며, 대지 2000㎡- 건평 800㎡ 정도의 공장이 많이 나와있으며, 현 시세는 \$ 200,000- 300,000 이다.

2) 땅그랑 지역

- 위치: 자카르타 시내에서 약 40 km 수카르토타타 공항에서 20 km
- 특징
 - 주로 봉제, 신발 업체가 이 밀집하고 있으며, 현재 코오롱 및 나이키 등 주로 많은 노동력이 필요로 하는 업종이 많이 진출 하였으나, 점점 한국업체가 줄어들고 있다
 - 공장임대가 용이하며, 부지는 저렴한 편이다

3) MM 공단

- 운영: Megalopolis Manunggal Ind. Dev., PT
- 위치: 자카르타 시내에서 약 30 km 수카르토타타 공항에서 60 km
- 특징
 - 일본계에 의하여 개발된 공단으로 일본 업체가 많이 입주, LG 계열사가 입주해 있다
 - 공단의 평균 가격은 \$ 70-80 정도이며, 상대적으로 인건비 높다.

나. 자카르타 및 인근 지역의 주요 공단 정보

1) CILANDAK COMMERCIAL ESTATE

- Location: Cilandak, South Jakarta,
- Service Provided: Standard Factory Building For Lease,
- Plan Area: 11.3 Ha,
- Developed Area: 11.3 Ha,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30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35 Km,
- Water supply: 700 Litre Per Second,
- Electricity: 6.6 - 10.2 MVA,
- Telecommunication: Telkom, 1,000 Lines,
- Number of Companies: 74 Companies.

2) JAKARTA INDUSTRIAL ESTATE PULOGADUNG

- Location: Pulo Gadung, East Jakarta,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Sell And Standard Factory Building For Lease,
- Plan Area: 570 Ha,
- Developed Area: 420 Ha,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12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40 Km,
- Water Supply: PDAM,
- Electricity: PLN,
- Telecommunication: Telkom,
- Road, Primary Row: 30 M,
- Road, Secondary: 12 M,
- Number Of Companies: 305 Companies.

3) PLUIT DISTRIBUTION CENTER

- Location: Jl. Kapuk Kamal Raya, North Jakarta,
- Service Provided: Standard Factory Building For Sell,
- Plan Area: 80 Ha,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15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12 Km,
- Water Supply: PDAM,
- Electricity: PLN,
- Telecommunication: Telkom,
- Number Of Companies: 63 Companies.

4) KAWASAN BERIKAT NUSANTARA

- Location: Cakung, Marunda and Tanjung Priok, North Jakarta,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And Standard Factory Building For Lease In Export Processig Zone,
- Plan Area: 595 Ha,
- Developed Area: 482.7 Ha,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5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40 Km,
- Water Supply: PDAM,
- Electricity: PLN,
- Telecommunication: Telkom, 400 Lines,
- Number Of Companies: 253 Companies.

5) BEKASI 3000 INDUSTRIAL ESTATE

- Location: Bekasi,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Sell,
- Plan Area: 250 Ha,
- Current Status: Under Construction Stage,
- Distance To Jakarta: 40 Km,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55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60 Km,
- Water Supply: PDAM,
- Electricity: PLN,
- Telecommunication: Telkom,
- Number Of Companies: n.a

6) EAST JAKARTA INDUSTRIAL PARK

- Location: Lemah Abang, Bekasi Regency,
- Service Provided: Standard Factory Building For Lease,
- Plan Area: 320 Ha,
- Developed Area: 320 Ha,
- Distance To Jakarta: 40 Km, East Direction Via Jakarta–Cikampek Toll Road,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45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70 Km,
- Water Supply: n.a.,
- Waste Water Treatment Plan: n.a.,
- Electricity: n.a.,
- Telecommunication: Telkom, n.a.,
- Number Of Companies: 82 Companies.

7) KAWASAN INDUSTRI GOBEL

- Location: Cibitung, Bekasi Regency,
- Service Provided: Standard Factory Building For Lease,
- Plan Area: 52 Ha,
- Developed Area: 52 Ha,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35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60 Km,
- Water Supply: PDAM, n.a.,
- Electricity: PLN, n.a.,
- Telecommunication: Telkom, n.a.,
- Number Of Companies: n.a.

8) BEKASI INTERNATIONAL INDUSTRIAL ESTATE

- Location: 37 Km East Direction Of Jakarta Along The Jakarta–Cikampek Toll Road, Cikarang Exit, Bekasi Regency,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Sell,
- Plan Area: 200 Ha,
- Developed Area: 140 Ha,
- Distance To Jakarta: 37 Km, East Direction Via Jakarta–Cikampek Toll Road,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45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70 Km,
- Distance To Railway Station: Bekasi, 25 Km,
- Water Supply: 13,000 M3 Per Day,
- Waste Water Treatment Plan: 8,000 M3 Per Day,
- Electricity: 900 MVA,
- Telecommunication: Telkom, n.a.,
- Road, Primary Row: 40 M,
- Road, Secondary Row: 20 M,
- Number Of Companies: 111 Companies.

9) CIKARANG INDUSTRIAL ESTATE

- Location: 37 Km East Direction Of Jakarta Along The Jakarta–Cikampek Toll Road, Cikarang Exit, Bekasi Regency,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Sell,
- Plan Area: 1,330 Ha,
- Developed Area: 952 Ha,
- Distance To Jakarta: 35 Km, East Direction Via Jakarta–Cikampek Toll Road,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40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65 Km,
- Distance To Railway Station: Bekasi, 25 Km,
- Water Supply: 49,500 M3 Per Day,
- Waste Water Treatment Plan: 42,000 M3 Per Day,
- Electricity: 900 MVA,
- Telecommunication: Telkom, n.a.,
- Number Of Companies: 616 Companies.

10) LIPPO CIKARANG INDUSTRIAL ESTATE

- Location: 37 Km East Direction Of Jakarta Along The Jakarta–Cikampek Toll Road, Cikarang Exit, Bekasi Regency,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And Standard Factory Building For Sell,
- Plan Area: 1,000 Ha,
- Developed Area: 400 Ha,
- Distance To Jakarta: 37 Km, East Direction Via Jakarta–Cikampek Toll Road,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45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70 Km,
- Distance To Railway Station: Bekasi, 25 Km,
- Water Supply: 13,000 M3 Per Day,
- Waste Water Treatment Plan: 10,000 M3 Per Day,
- Electricity: 900 MVA,
- Telecommunication: Telkom, 15,000 Lines,
- Road, Primary Row: 40 M,
- Road, Secondary Row: 20 M,
- Number Of Companies: More than 200 Companies.

11) MM 2100 INDUSTRIAL TOWN

- Location: Cibitung, Bekasi Regency,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Sell,
- Plan Area: 1,000 Ha,
- Developed Area: 805 Ha,
- Distance To Jakarta: 30 Km, East Direction Via Jakarta–Cikampek Toll Road,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35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60 Km,
- Water Supply: 72,000 M3 Per Day,

- Waste Water Treatment Plan: 64,800 M3 Per Day,
- Electricity: 350 MVA,
- Gas: PGN, n.a.,
- Industrial Gas: n.a.,
- Telecommunication: Telkom, 8,000 Lines,
- Road, Primary Row: 41–51 M,
- Road, Secondary Row: 18–20 M,
- Number Of Companies: 121 Companies.

12) PATRIA MANUNGGAL INDUSTRIAL ESTATE

- Location: Bekasi Regency,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Sell,
- Plan Area: 220 Ha,
- Water Supply: PDAM, n.a.,
- Electricity: PLN, n.a.,
- Telecommunication: Telkom,
- Number Of Companies: n.a.

13) YKK INDUSTRIAL ESTATE

- Location: Bekasi Regency,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Sell,
- Plan Area: 20 Ha,
- Developed Area: 20 Ha,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35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60 Km,
- Water Supply: PDAM, n.a.,
- Waste Water Treatment Plan: n.a.,
- Electricity: PLN, n.a.,
- Telecommunication: Telkom, n.a.,
- Number Of Companies: n.a.

14) KOTA BUKIT INDAH INDUSTRIAL CITY

- Location: Kalihurip, Purwakarta
- Service Provided: Standard Factory Building For Lease And Industrial Land For Sale In General Industrial Zone.
- Standard Factory Building For Lease In Export Processing Zone.
- Plan Area: 1,300 Ha, Including 65 Ha Export Processing Zone,
- Distance To Jakarta: 65 Km,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55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95 Km,
- Water Supply: 60,000 M3 Per Day,
- Waste Water: 28,000 M3 Per Day,
- Electricity: 250 MVA,

- Gas: PGN,
- Telecommunication: Telkom,
- Number Of Companies: 53 Companies.

15) KARAWANG INTERNATIONAL INDUSTRIAL

- Location: Karawang, West Java Province,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Sell,
- Plan Area: 1, 1 18 Ha,
- Developed Area: 804 Ha, Distance To Jakarta: 60 Km,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68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85 Km,
- Distance To Toll Road (Jakarta–Cikampek, Exit East Karawang) 1 Km,
- Distance To Railway Station, Karawang, 10 Km,
- Electricity: PLN , 90 MVA,
- Water: Karawang International Industrial City, 20.000 M3 Each Day,
- Waste Water Treatment: 20,000 M3 Each Day, Activated Sludge Method,
- Telecommunication: Telkom, 480 Lines,
- Number Of Companies: 49 Companies.

16) KAWASAN INDUSTRI KUJANG CIKAMPEK

- Location: Cikampek, West Java Province,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Lease
- Plan Area: 140 Ha
- Developed Area: 140 Ha,
- Distance To Jakarta: 70 Km,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100 Km
- Distance To Airport : Soekarno–Hatta, 110 Km,
- Distance To Toll Road (Jakada–Cikampek, Exit Karawang East): 0 Km,
- Distance To Railway Station, Karawang, 15 Km,
- Electricity: PLN , 20 MVA,
- Water: Kawasari Industri Kujang Cikampek, 8.400 M3 Each Day,
- Telecommunication: Telkom, 200 Lines,
- Number Of Companies : 14 Companies.

17) KAWASAN INDUSTRI MITRA KARAWANG

- Location: Karawang, West Java Province,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Sell,
- Plan Area: 434 Ha,
- Developed Area: 333 Ha,
- Distance To Jakarta : 68 Km,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76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to–Hatta, 90 Km,
- Distance To Toll Road (Jakada–Cikampek, Exit Karawang West): 5 Km,

- Distance To Railway Station, Karawang, 5 Km,
- Electricity: PLN, Capacity: 124 MVA,
- Water: River, 21,600 M3 Each Day,
- Telecommunication: Telkom, 1,500 Lines,
- Number Of Companies: n.a.

18) MANDALAPRATAMA PERMAI INDUSTRIAL ESTATE

- Location: Karawang, West Java Province,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Sell/Lease,
- Plan Area: 292 Ha,
- Developed Area: 292 Ha,
- Distance To Jakarta: 70 Km,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100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110 Km,
- Distance To Toll Road (Jakarta-Cikampek, Exit Karawang East) 0 Km,
- Distance To Railway Station, Karawang, 15 Km,
- Electricity: PLN , 110 MVA,
- Water: PDAM, 4,110 M3 Each Day,
- Telecommunication : Telkom, 1,880 Lines,
- Number Of Companies: 2 Companies.

19) SURYACIPTA CITY OF INDUSTRY

- Location: Karawang, West Java Province,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Sell,
- Plan Area: 1,473 Ha,
- Developed Area: 991 Ha,
- Distance To Jakarta : 60 Km,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70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85Km,
- Distance To Toll Road (Jakarta-Cikampek, Exit Karawang East) 2 Km,
- Distance To Railway Station, Karawang, 15 Km,
- Electricity: PLN , 300 MVA,
- Water: Suryacipta City Of Industri, 15,400 M3 Each Day for every 500 Ha,
- Telecommunication: Telkom, 3,000 Lines,
- Number Of Companies : n.a.

20) TAMAN NIAGA KARAWANG PRIMA

- Location: Karawang, West Java Province,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Sell, Plan Area: 400 Ha,
- Developed Area: 200 Ha,
- Distance To Jakarta: 75 Km,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85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90 Km,

- Distance To Toll Road (Jakarta-Cikampek, Exit, Karawang West) 7 Km,
- Distance To Railway Station, Karawang, 12 Km,
- Electricity: PLN , 120 MVA,
- Water: Private, 2,500 M3 Each Day,
- Telecommunication: Telkom, 2,000 Lines,
- Number Of Companies: n.a.

21) CIBINONG CENTRE INDUSTRIAL ESTATE

- Location: Cibinong, West Java Province,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Lease, Plan Area: 82 Ha,
- Developed Area: 32 Ha,
- Distance To Jakarta: 60 Km,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60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75 Km,
- Distance To Toll Road (Jakarta-Jagorawi, Exit Gunung Putri) 5 Km,
- Distance To Railway Station, Bogor, 20 Km,
- Electricity: PLN , 14 MVA,
- Water: Private, 70 M3 Each Day,
- Telecommunication : Telkom, 120 Lines,
- Number Of Companies: 13 Companies.

다. 10 대 주요 도시 입지 조건

1)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의 수도로 9백만명의 인구이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임.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사업 중심지임. 자카르타 증권거래소와 대부분 회사들의 대표 사무실은 자카르타에 위치해 있음. 자카르타는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출입하는 지역이기도 함.

자카르타에는 국립 박물관, 국립공원, 놀이동산, 인근 섬등 관광지도 많으며, 많은 오락 시설과, 세계 요리 식당이 있음. 그 밖에 영화관, 연극시설, 가라오케, 술집, 카페, 볼링 센터, 스파등이 있으며, 인도네시아 전통 특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곳도 많음.

2004 년 자카르타의 GRDP 는 320.3 조 루피아로 인도네시아 전체 GDP 의 13.9% 를 차지하고 있음. 자카르타의 GRDP 는 2003년에 비해 2004년 12.7% 증가한 것임. 한편, 인도네시아는 같은 기간 12.6% GDP 성장 하였음.

자카르타의 GRDP 의 32%는 금융업, 임대,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음. 19.9% 는 무역 /호텔/외식업, 15.8% 는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음.

2005년 GRDP 를 근거로한 통계에 따르면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가 31.9%, 무역 /호텔/외식업이 20.2%, 제조업이 15.4%, 건설이 12.6% 를 차지하고 있음. 2004년 정보 통신 및 운송업이 가장 성장하였으며 (8.6%) 금융, 무역, 서비스업 및 호텔, 외식업은 5% 성장하였음. 반면, 제조업은 4.6%, 건설업은 3.1% 성장하여, 인니 평균 성장 5.2% 에 미치지 못함.

2) 반둥

반둥은 1864년부터 서쪽 자바지역의 행정 수도가 됨. 서쪽 자바주에는 3900 만명 살고 있고 반둥에는 3백만명이 살고 있음. PT Dirgantara Indonesia, 인도네시아 유일의 항공기 회사 및 PT Telkom Indonesia, 인도네시아 통신 업체가 반둥에 있음. 이 밖에 상당수의 제약 회사, 직물회사, 자동차와 반도체, 전기부품 및 케이블 제조 업체, 석유화학 업체들이 이곳에 위치해 있음. 평균 기온이 15도에서 31도이며, 매년 강우량은 1,431-4,538 mm 임.

2005년 GRDP 를 근거로한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이 38.8%, 무역/호텔/외식업이 17.2%를 차지하고 있음. 다른 지역과 다르게 농업은 단지 12.5% 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3) 스마랑

스마랑은 중부자바주의 행정 수도임. 중앙 자바주에는 1550 만명이 살고 있으며 스마랑에는 130 만명이 살고있음. 스마랑에는 인도네시아 3번째로 큰 항구인 Tanjung Emas가 있음. 평균 기온이 18도에서 28도이며, 매년 강우량은 1,414-4,277 mm 임.

4) 족 자카르타

발리 다음으로 관광객이 많은 지역임. 족 자카르타 시는 족 자카르타 특별 구역의 수도로 35 평방 킬로미터의 면적에 30 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음. 족자카르타시에는 전통적인 문화와, 전통 구조물을 보러온 관광객으로 붐빔. 기온은 25.7~28.8 도이며, 매년 강우량은 1,855 mm 임.

이 지역은 오랫동안 몇 개의 왕조의 중심지였으며, 특히 고대 Mataram 왕국과, Sultanate 왕국이 유명함. 지역 주민들은 족 자카르타의 Sultan 왕조를 존경함.

5) 수라바야

동부 자바주의 주도임. 경제 기반은 주로 농업, 수산업, 오일, 커피, 망고 그리고 사과 재배 등이며, 자카르타에 이어 인니 제 2의 경제 지역임. 수라바야는 또한 인도네시아서 깨끗한 도시로도 알려져 있으며, 많은 현대적 건물 및 숙박 시설이 있어 생활 하기에 편리함.

수라바야에는 400 만명이 살고 있으며, 주요 민족은 Javanese 와 Maduranese 임. 수라바야 전통 문화는 특별히 없으나, 많은 주변 지역의 전통 문화, 축제들이 수라바야로 자리를 옮겼음. 수라바야에서 20 km 떨어진 거리에 396 헥타르 면적의 Juanda 국제 공항이 있음. 이 밖에 동부 자바에는 Pegerungan 공항, Trunojoyo 공항, Abdulrahman Saleh 공항 (해군 공항) 이 있음

6) 발리

발리는 동부 자바에서 2km 떨어져 있는 세계적 관광 명소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신의 섬(Pulau Dewata)이라고 부름. 발리는 독특한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으로 유명하며 지리적으로는 Nusa Tenggara 지역과 자바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음. 지방 정부는 발리가 관광지로 개발 되도록 투자 환경을 개선해 왔음. 년 평균 기온은 24.1 ~ 29.1 도이며, 년 강우량은 1,050 - 2000 mm 임.

7) 메단

북 수마트라의 수도는 메단이며, 인니 3번째로 큰 도시로 특히 관광 및 무역이 발달해 있음. 북 수마트라는 서쪽으로는 인도양, 동쪽으로는 Malaka 해협까지 이르는 거대한 면적임. 이 지역에는 또한 인도네시아 가장 큰 호수인 Tobal Lake 가 있으며, 25개의 시가 있음.년 평균 기온은 23.4 ~ 33.6 도이며, 년 강우량은 3,140 mm 임.

메단에는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으나, 주요 민족은 바딕 민족이며, 원래 토착민들은 Deli Malay인들임. 메단에는 2 부류의 바딕 민족이 살고 있는데, 남쪽 바딕인들은 (Mandailing) 이슬람이고, 북쪽 바딕인들(Toba, Karo)은 기독교임. 메단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외향적·활동적이며, 큰소리로 말하며, 자기 표현이 풍부한 사람들임.

8) 사마린다 (Samarinda)

사라란다는 동부 칼리만탄의 주도임. 동부 칼리만탄은 24만 5천 평방 킬로미터로 인도네시아 2번째 큰 면적이며, 이곳에 13개의 시가 있음. 사마린다는 동 칼리만탄의 가장 큰 도시이며, 54만여명 (2002년 기준)이 살고 있고 Kutai Barat, kutai Kartanegara, East Kutai 지역으로 연결되는 길목이기도 함.

동 칼리만탄에는 풍부한 천연 자원, 해양 자원, 농수산물이 있음. 동 칼리만탄에는 풍부한 석탄, 석영, 석고, 부석 (pumice), 백운석, 석회석, 대리석, 옥수 등이 있지만, 이러한 자연 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년 평균 기온은 24.2 ~ 28.8 도이며, 년 강우량은 2,519 mm 임.

9) 마카사 (Makassar)

마카사는 남 술라외시의 수도로, 동쪽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대표적 도시임. 남 술라외시에는 23개의 시가 있으며, 마카사는 이 지역, 농업, 농장, 축산, 수산업, 광물 거래의 중심지임.

남 술라외시는 농업에 치중되어 있는 경제를 산업화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으며, 주 정부는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음. 이 곳에는 동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항구인 수카르노 하타 항구가 있으며, 주변 관광지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음.

년 평균 기온은 22 ~ 34 도이며, 년 강우량은 2,000 ~ 2,500 mm 임.

10) 자야푸라 (Jayapura)

자야푸라는 파푸아의 주요 도시임. 파푸아지역에는 산지가 많고, Jayawijaya, Trikora, Yamin 등 3개의 산꼭대기는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음. 파푸아는 농업, 수산업, 가스, 광업 등 자연 자원등이 풍부하며, 목재, 합판 등의 산림자원도 풍부함. 또한 켈거루, 비버등 다양한 특이 종들의 서식지기도 함. 관광업은 아직 미 개발 되어 있음.

년 평균 기온은 23.5 ~ 28.4 도이며, 년 강우량은 1,744 mm 임.

7. 노무관리

가. 인도네시아 노동법의 특징

인도네시아는 각종 법률 및 행정명령 등에 의하여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식민통치시대 하의 법률 또한 아직까지 계승되는 부분이 있다. 현재는 2003년 3월에 공포된 신 노동법이 시행되고 있다.

□ 한국과 비교하여 인도네시아 노동법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근로시간: 1일 7시간, 주당 40시간
- 유해위험작업시간: 1일 6시간, 주당 35시간
- 휴식시간: 연속 4시간 근로 시 최소 30분
- 휴가: 12개월 근무 시 연 12일의 휴가
- 6년 근속 시 7년 8년째 1개월의 휴가
- 종교활동: 근무 중 근로자들에 대한 종교활동 허용
- 초과근무: 기본근로시간 외, 첫 시간 1.5배, 두 번째 시간 2배

나. 노무관리 시 유의사항

노무관리상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인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큰 소리 보다는 가르쳐주는 자세가 필요하고 지각이나 결근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스스로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노사분규가 자주 발생하는 편인데 이러한 노사분규 방지를 위해서는 고용계약서 작성 시 현지노동법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근로자의 의무를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추후 분쟁 시 대비토록 해야 한다

다. 근로계약서 관련

□ 근로조건에 명시해야 될 기본적인 내용

- 계약기간: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을 명시하며 만일 계약기간을 명시 하지 않을 경우 계약직이 아닌 일반적이 종신 고용으로 취급된다.
- Job Training: 작업소질의 증진, 개발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별도 장관령으로 규정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관련 규정에 의거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된다.
- 작업장/근무장소: 작업장의 변경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작업장의 변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작업장이 변경된 경우, 해당 근로자는 퇴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게 된다.
- 해고: 해고에 대한 명확한 협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근무시간: 교대근무, 특정근무, 초과근무에 대한 회사의 규정 및 방침을 명시해야 한다.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 휴일근무 가능성에 대해서 명시한다.

- 연가, 휴가: 연가에 대한 규정, 생리휴가를 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 임금이 지불되는 휴가, 병가 사용조건과 방법 등을 명시한다.
- 근로 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로 2부를 작성하여 양측이 1부씩 보관한다. 또한 퇴직연금 보험, 작업장 안전, 노조활동 등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시 해야 한다.

라. 해고

근로계약, 사규, 단체협약 규정 위반 에 대해 1차~3차 경고장 순차적 발급 후 근로관계 해지할 수 있으며, 경고장은 각각 6개월간 유효하다.

고용해지는 형사법상 범죄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도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하여 인하여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음

□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유

- 회사 소유의 물건 또는 돈을 사기, 절도, 횡령했을 경우
- 허위 또는 거짓말을 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우
- 사업장에서 음주, 주정, 마약등의 약품을 사용, 배포한 경우
-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또는 도박의 경우
- 직장동료를 폭행, 고문, 공갈, 협박한 경우
-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경우
- 사업주 소유의 물품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위험한 상태로 방치해 두는 행위
- 회사기밀을 밝히거나 누설했을 경우
- 사업장 내에서 다른 행위로 5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마. 퇴직금 관련

퇴직금은 퇴직위로금, 근속수당, 보상금, 해고 수당의 4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사안 별로 퇴직금의 산출방법이 전해여 있어서 매우 복잡하다.

□ 지급 기준

- 해고수당: 노동법 156조 2항
 - 1년 미만: 1개월 임금
 - 1년 ~ 2년: 2개월 임금
 - 2년 ~ 3년: 3개월 임금
 - 3년 ~ 4년: 4개월 임금
 - 4년 ~ 5년: 5개월 임금
 - 5년 ~ 6년: 6개월 임금
 - 6년 ~ 7년: 7개월 임금
 - 7년 ~ 8년: 8개월 임금
 - 8년 이상: 9개월 임금

- 근속수당 : 노동법 156조 3항
 - 3년 ~ 6년 : 2개월 임금
 - 6년 ~ 9년 : 3개월 임금
 - 9년 ~ 12년 : 4개월 임금
 - 12년 ~ 15년 : 5개월 임금
 - 15년 ~ 18년 : 6개월 임금
 - 18년 ~ 21년 : 7개월 임금
 - 21년 ~ 24년 : 8개월 임금
 - 24년 이상 : 10개월 임금
- 손해보상금: 노동법 156조 4항
 - 연차휴가 미실시에 따른 보상금
 - 근로자 또는 근로자 가족이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데 따른 이전비
 - 근로자의 해고금 및 근속수당의 15% 상당의 보상비
 - 기타 고용계약 또는 사규, 단체 근로협약에 규정에 따른 사항

□ 사례별 적용

- 자진퇴사 및 중대과실에 따른 퇴사
 - 손해보상금(156조 4항) 및 사규, 단체협약에 따른 자진퇴사 보상금
- 중대과실 이외의 이유로 해고
 - 해고수당, 근속수당, 손해보상금
- 정년(별도 연금제도 없는 경우) 및 사망
 - 해고수당 2배, 근속수당, 손해보상금

바. 노동분쟁 해결절차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지역노동분쟁 조정위원회(P4D)의 승인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특히 1개월 이내에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 노동위원회(P4P)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해고가 가능하다

만일 해고신청이 부결되었을 경우는 인력부 장관에게 제소할 수 있으며 인력부 장관은 제소 후 7일 이내에 중재 및 조정에 나서도록 되어있다

사. 근로자 사회보장제도

10명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고용 노동자를 사회보장에 가입시킬 의무를 가진다. 인도네시아는 사회보장으로서 Jamsostek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보되는 보장은 산재보험, 노후보험, 사망보험, 건강보험이며, 산재.노후.사망보험은 의무가입사항이다.

□ 보험료 산정 기준.

구분	보험료율
산재보험	고정급의 0.24 ~ 1.74%
사망보험	고정급의 0.3%
노후보험	고정급의 5.7% (회사가 3.7%, 개인이 2% 부담)
건강보험	미혼자: 고정급의 3% 기혼자: 고정급의 6%

8. 조세제도

가. 외국국적 소유자에 대한 과세

1) 거주자/비거주자의 지위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관행상 세무서는 국외재산으로부터의 비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외국국적 소유자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나 근로 소득의 완전한 신고를 요구하고 있다. 내부적인 급여 가이드라인이 세무사들의 외국 국적자가 신고한 근로 소득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과세소득 및 비용/세율

인도네시아에서 근로와 관련된 모든 현금보상, 보너스 및 수당은 어디에서 지급되든 과세가 된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현물 지급의 모든 비용은 사용자측에서 제공되지 않으며 근로자 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유동비용은 소득이나 현물지급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현금이 이동하는 수당은 과세 된다. 자본옵션계획 및 연불소득 계약은 통상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최고 세율은 35%이나 상대적으로 낮게 집행됨.

법인세율

과세표준금액(루피아)	세율(%)
최초금액부터 - 50,000,000	10
50,000,001 - 100,000,000	15
100,000,001 이상	30

일반 개인 거주자의 원천세율

과세표준금액(루피아)	세율(%)
최초금액부터 - 25,000,000	5
25,000,001 - 50,000,000	10
50,000,001 - 100,000,000	15
100,000,001 - 200,000,000	25
200,000,001 이상	35

3) 영역 및 거주

거주(인도네시아 시민이 아니거나 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여부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결정되며,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 시민은 국내 납세자로 간주된다.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는 비거주인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중과세협정의 조항을 적용받는다. '거주자'는 12개월에 걸쳐 183 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거나 납세 기간 중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앞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 개인을 말한다. 거주 납세자는 국내외 총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비거주자는 인도네시아의 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는 인도네시아의 근로에 대한 현금보상에 대해 과세한다. (보통 20%의 원천징수세) 그러나, 대부분의 조세협정하에서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비거주자는 그 근로자의 비용이 만약 인도네시아 고정사업장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물지급도 과세되지 않으며 어떤 비용공제도 받지 못한다.

4) 이중과세방지

외국인 세액공제 제도는 이중과세를 방지하는데 활용되는데 이것은 인도네시아 조세원칙에 의거 납부세액에 한정된다. 기타 수동적 소득에 대한 외국인비용은 소득공제대상이다. 외국인 자원 세액 공제에 대한 처리는 규정상 명백히 정해져 있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이월 가능하다.

5) 기타 세금

□ 출국세

출국시 거주자는 100만 루피아를 지불한다. 이 세금은 개인이 지급하는 경우 개인세금의 선납으로 간주되며 만약 영업상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용주가 지급하는 경우 특정조건을 충족시키는 전제하에 근로자 소득세 공제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영업목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 출국세가 여행시 근로자측에 과세되는 경우 연말 근로자 세금에서 완전히 공제된다. 그러므로 출국세는 근로자 세금의 효율적인 부분적인 선납이다.

나. 부가가치세

재화 및 용역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최고 15%에서 최저 5% 범위 내에서 경제환경에 따라 운영되는 탄력세율로서, 현재는 10%를 적용하고 있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투자자금

외환 통제가 없어 투자자들은 지정된 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자유로이 반출입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Bank Indonesia)이 외환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신규 외국투자가 승인되면 환율은 승인된 투자액을 루피아로 환산하여 결정된다. BKPM이 승인한 환율은 투자계획이 승인된 후 후속 증가분을 포함한 총 외국투자가 결정될 때 외환시장에서의 현행 환율에 근거하고 있다. 환율변화에 따른 루피아 차액은 합작투자사의 회계장부에 할인 또는 Premium으로 계산된다. 이익배당금은 프리미엄에서 지급되지 않으나 청산시 송금자산의 일부를 형성 한다.

나. 외국투자 및 기술의 등록

투자계획에는 주식자산, 부채자산, 기술지원협정 및 합작투자협정 초안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투자계획을 충족시킬만큼의 인도네시아로의 자금 이동은 외환 차관시와 같이 중앙은행(Bank ndonesia)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 현금계정

인도네시아 화폐는 루피아(Rp.)이며 영업계약은 일반적으로 루피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많은 계약이 외화 즉 달러나 엔으로 이루어 지기도 한다. 정부관리의 외환체제는 통화 바스켓에 연동되어 있으며 루피아 환율은 중앙은행이 매일 조사하여 확정하고 있다. 모든 주요 교역통화에서 현금계정은 외국통화를 관리하는 은행으로부터 가능하다. 외국 통화의 현금계정, 정기예금계정, 저축계정 등은 인도네시아 거주자, 회사, 기타 대표 사무소, 지사 등에게만 인정된다.

라. 자본 및 이익의 송금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오랜 경제정책으로 외환통제는 없다.

□ 2007년 투자법에 규정된 외화 송금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투자자는 자유롭게 외화 송금을 할 수 있다.
 - 자본금
 - 이익금, 이자, 배당금, 기타 소득
 - 원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사업 계속을 위한 자본재 교체에 필요한 대금
 - 투자에 필요한 추가 자금
 - 차입금 상환
 - 로열티 등 지불 의무가 있는 사항
 - 외국인 근로자 급여
 - 회사 청산 후 잔여금
 - 손해 배상
 - 인수비
 - 계약서로 약정된 기술비, 경영용역비 및 지적재산권 비
 - 소유자산의 매각 대금
- 다음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송금권을 제한 할 수 있다.
 - 정부에서 투자자에게 송금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규 적용 시
 - 관계 법규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투자자로부터 세금, 로열티 및 기타 부과금 징수 시
 - 투자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보호 시
 - 국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집행 시

마. 태환불능에 대한 보장

모든 주요 통화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유로이 교환될 수 있으며 IMF는 루피아가 완전히 태환 가능한 통화로 선언하였다.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가. 화교자본의 지배가 절대적인 시장

- 전체 2억 인구의 5%에 불과한 화교가 인니 경제계 주도
- 수하르토 집권('67) 이후 화교 공직진출 제한으로 대부분 경제계에서 활동
 - 2,067개의 대기업을 소유한 인니 10대 그룹중 9개가 화교자본
 - 상장기업 가운데 화교기업 비중: 73 %
 - '98년 5월 폭동시 800억불의 화교자본이 해외로 유출추정

나. 가격 시장 현상 심화

- '97년 경제위기 이후 바이어의 제품구매 결정요인은 가격
- 루피아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으로 구매력 감소
 - 품질보증기간(1년) 만큼 사용 가능한 저가제품 구매 선호

다. 석유자원 의존형 경제구조

- 아시아 국가로서 유일한 OPEC 회원국 (OPEC내 5% 생산비중)
 - 석유/가스는 인니 전체 수출의 22.5% (193억\$) 차지 (2005년)
 - 한국의 대 인니수입중 석유/가스가 55.4% (46억불) 차지 (2005년)

라.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 보유

- 인구 2억 3천만의 인구대국 (세계 4위)
- 월 최저임금 900,560 루피아(99불/자카르타 기준) 수준의 저임금 노동시장
 - 전체 노동인구(약1억명)중 44%인 4천만명 실업추정

마. 외국자본 의존형 경제구조

- 자체자본 및 기술 부족으로 경제개발에 대외 의존도 심화
- 장기간 식민통치(네덜란드, 1602~1942)로 국민자본 형성 미흡
 - 외국인 투자 ('67~'05): 15,771건/2,689억불(누적실적)
 - 일본이 최대투자국, 한국은 5위 (최근 한국의 투자가 늘면서 투자 건수에서는 1위임)

바. 유통구조

1) 유통구조

인도네시아는 “유통구조의 민족화”관점에서 외국기업의 유통업 참여를 배제하여 왔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유통구조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편이나 최근들어 대형매장에 한하여 외국기업의 소매업 참여가 허용되면서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미니마켓 체인점들이 늘어나고 있다.

유통구조는 지극히 단순하며 수입상이 중간 유통구조를 거쳐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 하거나 대형백화점이 직접 수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1997년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 이후 시장에서 가격이 가장 중요한 구매결정요인이 되면서 수입상들이 직접 도매까지 겸하는 등 중간상인을 배제하면서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통신, 향만시설 등이 불충분하여 전국적인 상업 네트워크는 확립되어 있지 않은 편이며, 따라서 자바섬과 그 외 도서지역간, 도시와 농촌간, 생산자와 소비자간 경제의 지역적 편차가 심하다.

2) 유통단계

수입상이 백화점 또는 대형 슈퍼마켓인 경우에는 직접 수입, 소비자 판매형태를 거치므로 도소매상간의 유통단계는 배제되며, 전문수입상이 수입을 할 경우에는 도매업자 또는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3) 수입품 유통단계별 마진

수입의 경우 직수입과 간접수입의 두가지 형태가 있으며, 직수입의 경우 백화점, 도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원자재 수입 등이 해당된다. 간접 수입의 경우 브로커, 에이전트, 정부 대행 기관, 등록무역상 등을 통해 수입하게 되므로 2-10% 정도의 수입대행 수수료를 지불하고 10-30%의 마진을 붙여 소매상 또는 중간규모의 유통업체에 인도한다. 여기에 소매상 또는 중간규모의 유통업체가 약30%의 마진을 붙이게 되어 최종 소비자가격 또는 RETAIL PRICE는 수입가격(CIF)+수입세+부가세+(기타 부과금 및 특소세)+HANDLING CHARGES+기타 경비(각종 금융 수수료 및 보험료, 리스크 부담율)=총수입가의 약 200%가 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보통 총수입가의 50-100% 이상의 유통 마진을 예상, 기대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4) 주요 유통업체 현황

인도네시아 소매업협회(Aprindo)에 따르면 편의점 등 소형 소매점 4,861개, 슈퍼마켓 515개, 초대형 슈퍼마켓 75개가 운영중이라고 한다. 이들 소매유통체인의 총매출은 2005년 42조 루피아에서 2006년 50조 루피아로 늘어났고 2007년에는 58조5천억 루피아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유통체인으로는 마따하리와 가르푸, 헤로, 마크로, 알파 등을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 최대 소매체인 마따하리 뿌뜨라 프리마는 1조 루피아를 투자해 연내 백화점 5개, 대형 슈퍼마켓 11개 지점을 개장할 예정이라고 하며, 프랑스계 소매유통 기업인 가르푸도 금년에 인도네시아에 9개의 매장을 새로 개장함으로써 자카르타 및 인근 지역에 20개를 포함해 반둥, 족자카르타, 수라바야, 마까사르, 덴빠사르 등 총 30개 매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마크로는 자카르타, 반둥, 스마랑, 수라바야, 발리, 솔로, 발릭빠반, 메단 및 빠간바루 등 전국적으로 13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 바이어 발굴

가. 바이어 발굴 방법

바이어 발굴은 KOTRA 사업참가, 전시회참가, 각 산업별 단체 접촉, 바이어 DB, 전화번호 검색 등을 통하여 가능하다. 전시회참가는 다수의 바이어를 직접 현장에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가 높으나 투자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인도네시아 주요전시회는 자카르타무역관홈페이지(www.kotra.or.kr/jakarta)에서 전시정보를 선택하면 볼 수 있으며, 이외 각종 단체나 협회(첨부 리스트 참조)를 통해서도 회원사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나. 바이어 접촉 시 유의 사항

자카르타 무역관을 방문하는 우리 수출기업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 동남아시아는 미 개척 시장으로 진출여지가 많은 편이며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시장진출이 비교적 용이한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는 다수의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진출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것이며, 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그 중 시장진출의 첫 단계에 미숙한 바이어 접촉방법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아직도 상당수의 무역부 직원은 인도네시아의 바이어에게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간단한 거래 제의서를 송부하고 즉각적인 회신이 없는 경우 관련 바이어와의 거래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 기업의 구매 담당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구매 담당자 앞에는 항상 수없이 많은 거래 제의서가 쌓여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구매 담당자는 책상에 쌓여있는 거래 제의서를 읽어 보지도 않는 경우가 다반사 이고, 읽어 본다 해도 특별히 관심을 끄는 거래 제의서가 아니면 거래 제의서를 검토하는 단계까지 끌어 올리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팩스 또는 이 메일을 바이어에게 보내고 회신을 기다리는 것 보다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의 입장에서 보다 성의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래 제의서를 송부하는 것이 해당 바이어와 거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첫 번째 단계 일 것이다.

인도네시아 바이어와의 효과적인 접촉 요령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 관련자료의 우편송부

바이어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어느 날 한국업체로부터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샘플, 가격표, 기술적인 특징 등이 포함된 자료를 우편으로 받는다면 바이어는 이 자료를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리지는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단은 바이어의 관심 끌기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바이어가 당장은 그 자료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자료를 검토해 볼 가능성이 높다. 즉, 완벽한 자료를 바이어에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편물 송부 시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우편물의 분실 및 기업에 배달된 우편물의 경우 수신인에게 즉각 전달되지 않는 실정을 감안하여 송신인의 입장에서 우편물 수취인의 확인이 가능한 등기, 특사 배달 등의 통신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송번호 등을 보관해 사고시에 대비하거나 바이어에게 전달할 증빙자료로 삼아야 함)

2) 이 메일, 전화, 팩스 등으로 검토결과 문의

자료를 보낸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팩스, 전화, 이 메일 등으로 자료의 접수를 확인하면서 검토결과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물론 검토결과 관심이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만, 이렇게 접촉하는 것은 바이어로 하여금 자료를 검토하도록 독촉하는 의미도 있고, 바이어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의사표시의 기능도 할 것이다. 단, 지나치게 독촉을 하는 경우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 여유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자료를 보낸 후 자료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 검토결과를 묻는 것이 바이어를 배려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바이어는 한국업체의 진지성과 성실성, 그리고 합리성에 후한 점수를 줄 것이고 그만큼 거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3) 이메일 사용에 관하여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메일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인 바이어는 거래업체의 정체(identity)에 대해 상당한 관심이 있다. 그런데 이메일에는 보내는 업체의 회사 로고라든지 보내는 사람의 서명 등 발신자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요소들이 거의 없다.

즉, 이메일은 인도네시아인들의 문화와 사고방식으로 볼 때 잘 맞지 않는 통신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근 들어 많은 인도네시아 업체들이 이메일로 교신을 하고는 있지만 한국실정에 비한다면 이메일 교신이 크게 성행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바이어가 선호하는 교신방법을 알기 전까지는 이메일 보다는 팩스가 낫다고 생각된다. 특히, 최근 들어 각종 불필요한 광고가 이메일로 발송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런 광고들과 동일하게 취급 당하여 바이어의 주목을 끌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메일은 서로가 잘 알고 난 후에 이용하시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

4) 홈페이지에 관하여

기업의 홈페이지는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소개자료로서 수출기업의 입장에서 홈페이지의 제작은 필수적이며 최근 거의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바이어에게 홈페이지를 방문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직도 많은 바이어들이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인터넷에 대한 인식이 우리만큼 확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자료를 우편으로 송부하고 바이어의 관심이 발생했을 때 자연스럽게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다.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인도네시아의 제조/수출 및 수입업체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검색(무료)이 가능하다.

- 업체정보: www.indonetwork.info
- 옐로페이지: www.yellowpages.co.id
- 인도네시아 산업부: www.dprin.go.id
- 인도네시아 수출촉진위원회: www.nafed.go.id
- 인도네시아 콤파스: www.kompassindo.co.id

1) 인도네시아 주요 Bbusiness Association

Construction-Equipment

- Indonesian Association of Construction Machineres Industry
 - Add : Jl. Cikini IV No. 15, Jakarta 10330
 - Tel : 62-21 322 646, 314 20 30 / Fax : 62-21 314 20 30

Construction-Heavy Equipments

- Association of Indonesian Construction Equipment Hire & Rent
 - Add : Jl. Cikini IV No. 15, Jakarta 10330
 - Tel : 62-21 322 646, 314 20 30 / Fax : 62-21 314 20 30

□ Contractors–Electrical Works

- Indonesian Electrical Works Contractors Association
 - Add : Komplek Setneg, Jl. Cempaka Putih Barat XXVI No. 30, Jakarta Pusat
 - Tel : 62-21 424 20 58, 913 60 60
 - Fax : 62-21 424 20 58

□ Contractors–General Works

- Indonesian National Contractors Association
 - Add : Jl. Raya Pasar Minggu Km.17 No.11-A, Jakarta 12740
 - Tel : 62-21 798 16 70, 790 2426
 - Fax : 62-21 790 25 82

□ Contractors–Water Works

- Water Works Contractors Association
 - Add : Gedung CTC, 4th Floor, Jl. Kramat Raya No. 94-96, Jakarta Pusat
 - Tel : 62-21 392 84 70
 - Fax : 62-21 392 84 70

□ Cosmetics

- Indonesian Cosmetics Industries Association
 - Add : Jl. Sapta No. 68-A, Jakarta 12870
 - Tel : 62-21 83792601
 - Fax : 62-21 83792601

□ Electrical Cable

- Association of Indonesian Electrical Cabel Manufacturers
 - Add : Komplek Ketapang Indah B2/32, Jl. KH. Zainul Arifin, Jakarta 10130
 - Tel : 62-21 634 10 36, 600 11 13
 - Fax : 62-21 633 87 02

□ Fertilizer

- Indonesian Fertilizer Producers Association
 - Add : Gedung Pusri 6th Floor, Jl. Taman Anggrek Kemanggisan, Jakarta Barat
 - Tel : 62-21 548 40 57
 - Fax : 62-21 548 33 13

□ Fertilizer–Trade

- Indonesian Fertilizer Trade Association
 - Add : Rumah Maduma, Jl.Dr.sahardjo No.52,Jakarta 12970
 - Tel : 62-21 831 11 84
 - Fax : 62-21 831 11 85

□ Fiber, Synthetic

- Indonesia Synthetic Fiber Producers Association
 - Add : Jl. Raya Kebayoran Lama No. 33, Jakarta 11560
 - Tel : 62-21 530 54 14, 530 54 15
 - Fax : 62-21 530 54 15

□ Fishery

- Indonesia Fishery Industries Association
 - Add : Gedung ARSA 2nd Floor, Jl. Siaga Raya No. 31, Jakarta Selatan
 - Tel : 62-21 798 73 09
 - Fax : 62-21 798 73 09

□ Food Additive

- Indonesian Monosodium Glutamate & Glutamic Acid Producers Association
 - Add : Kedoya Elok Plaza Blok DC 52, Jl. Panjang, Jakarta
 - Tel : 62-21 580 61 09
 - Fax : 62-21 580 61 10

□ Footwear

- Association of Indonesian Shoes Manufacturers
 - Add : Gedung Langlang Asia Ruang A Jl. Daan Mogot No. 151, Jakarta 11510
 - Tel : 62-21 566 41 57, 566 08 57
 - Fax : 62-21 560 46 71

□ Furniture

- Indonesian Furniture & Handicraft Industries Association
 - Add : Jl. Pegambiran No.5A 3rd Floor, Rawamangun, Jakarta 13220
 - Tel : 62-21 478 640 28-64029
 - Fax : 62-21 478 640 31

□ Handicrafts

- Indonesian Furniture & Handicrafts Exporters & Producers Association
 - Add : Jl. Tomang Ancak No.10, Jakarta 11430
 - Tel : 62-21 560 18 62, 567 17 61
 - Fax : 62-21 560 18 70

□ Iron Steel, Galvanized

- Association of Indonesian GI Sheet Manufacturers
 - Ad : Jl. MT. Haryono Kav.31-32, Jakarta 12770
 - Tel : 62-21 799 50 09
 - Fax : 62-21 799 28 39

☐ Machine Tools

- Association of Machine-Tools Industries
 - Add : Centra Mulia, Room 901 9th Floor, Jl. HR. Rasuna Said Kav.X-6 No.8, Jakarta Selatan
 - Tel : 62-21 252 96 56, 522 93 90
 - Fax : 62-21 252 50 69

☐ Machinery-Agriculture

- Association of Indonesian Agriculture Machinery
 - Add : Jl. Cikini IV No.15, Jakarta 10330
 - Tel : 62-21 322 646
 - Fax : 62-21 325 974

☐ Machinery-Industry

- Association of Indonesian Machinery Equipment Reconditioned Industries
 - Add : Jl. Cikini IV No.15, Jakarta 10330
 - Tel : 62-21 322 646, 314 20 30
 - Fax : 62-21 314 20 30

☐ Metal, Foundry & Casting

- Indonesian Metal, Foundry and Casting Association
 - Add : Jl. Rawa Buaya No.6, Jakarta 11740
 - Tel : 62-21 544 07 17
 - Fax : 62-21 619 17 39

☐ Metal Works & Machinery

- Metal Works & Machinery Industries Association
 - Add : Jl. Cikini IV/15, Jakarta 10330
 - Tel : 62-21 322 646
 - Fax.: 62-21 325 974

☐ Mineral, Industrial

- Indonesian Industrial Mineral Association
 - Add : Menara Duta 1st Floor, Jl. HR Rasuna Said, Jakarta 10340
 - Tel : 62-21 829 33 12
 - Fax : 62-21 829 33 12

☐ Mining

- Indonesia Mining Association
 - Add : Jl. Prof.Supomo 10, Jakarta 12870
 - Tel : 62-21 830 36 32
 - Fax : 62-21 828 07 63

☐ Mining–Precious Metals

- Indonesian Precious Metals Association
 - Add : GALVA Building 5th Floor, Jl. Hayam Wiuruk No. 27A, Jakarta 10120
 - Tel : 62–21 385 12 02, 385 49 91
 - Fax : 62–21 381 27 13

☐ Motor

- Indonesian Internal Combustion Engine Manufacturers Association
 - Add : Jl. Cikini IV No. 15, Jakarta 10330
 - Tel : 62–21 322 646
 - Fax : 62–21 325 974

☐ Motor Car–Component

- Association of Motor–Car Components Producers
 - Add : Taman Palem Lestari, Ruko Blok D1/16,Jl.Lingkar Barat,Jakarta 11730
 - Tel : 62–21 556 07 63 – 07 65
 - Fax : 62–21 556 07 63

☐ Motor Car–Manufactures

- Association of Indonesian Automotive Industries
 - Add : Jl. HOS Cokroaminoto No. 6, Jakarta 10350
 - Tel : 62–21 314 21 00
 - Fax : 62–21 314 21 00

☐ Motorcycle

- Association of Indonesian Motorcycles Assemblers & Manufacturers
 - Add : D/a PT Daan Motor Vespa Indonesia, Jl. Perintis Kemerdekaan, Jakarta 14250
 - Tel : 62–21 452 35 45, 452 33 11 ext.180
 - Fax : 62–21 452 35 55

☐ Optics

- Indonesian Optical Association
 - Add : Jl. Panglima Polim Raya 125–A, Jakarta 12160
 - Tel : 62–21 739 36 17, 739 28 53
 - Fax : 62–21 724 47 87

☐ Paint

- Indonesian Paint Manufacturers Association
 - Add : Jl. Menteng Raya 27, Jakarta 10340
 - Tel : 62–21 390 90 18
 - Fax : 62–21 375 30 43

☐ Palm Oil

- Indonesian Palm Oil Producers Association
 - Add : Jl. Brigjen Katamso, Medan
 - Tel : 62-61 517 614, 518 614, 332 694
 - Fax : 62-21 336 919

☐ Paper and Pulp

- Indonesia Pulp and Paper Association
 - Add : Jl. Cimandiri 6 flat 1 No.2, Jakarta 10330
 - Tel : 62-21 314 43 11, 326 084
 - Fax : 62-21 314 01 68

☐ Pharmacies

-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Enterprises of Indonesia
 - Add : Jl. Mangga Besar Raya 183 4 th fl, Jakarta 10730
 - Tel : 62-21 639 50 31
 - Fax : 62-21 639 50 31

☐ Plastic Pipe

- Association of Plastic Pipes Industries
 - Add : Gedung Alia 7th Floor, Jl. MI Ridwan Rais 8-10, Jakarta 10110
 - Tel : 62-21 386 77 17
 - Fax : 62-21 386 76 86

☐ Plastic Products

- Indonesian Plastic Goods Manufacturers Association
 - Add : Jl. Tebet Dalam 4 No. 67, Jakarta
 - Tel : 62-21 829 97 90
 - Fax : 62-21 829 97 90

☐ Rubber Crumb

- Rubber Association of Indonesia
 - Add : Jl. Cideng Barat 62-A, Jakarta 10150
 - Tel : 62-21 384 68 13, 350 15 10
 - Fax : 62-21 384 68 13, 384 68 11

☐ Ship Builders

- Indonesian Ship Building and Offshore Industry Association
 - Add : Griya Inti Sentosa Blok O/53, Jl. Griya Agung 77, Jakarta 14350
 - Tel : 62-21 640 42 53
 - Fax : 62-21 640 42 53

Steel Mills

- Indonesian Steel Factories Association
- Add : Wisma Baja 4th Floor, Jl. Gatot Subroto Kav. 59, Jakarta Selatan

 Steel Products

- Association of Steel Goods Industries
- Add : Komp.Rasa Sayang E-36, Jl. Daan Mogot (Pesing), Jakarta 11460
- Tel : 62-21 566 20 25, 566 20 26

 Telecommunication

- Telecommunication Equipment & Services Association
- Add : Gedung Multi Eka Karma, Jl. Kap. Tendean No. 15, Jakarta Selatan
- Tel : 62-21 791 918 21 - 918 23
- Fax : 62-21 791 928 22

 Textile

- Indonesian Textile Association
- Add : Adhi Graha 16th Floor,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 Tel : 62-21 527 21 71
- Fax : 62-21 527 21 66

 Textile-Garment

- Association of Apparel Manufacturers
- Add : Gedung Sasana Kriya 2nd Floor, Taman Mini Indonesia Indah, Jakarta Timur
- Tel : 62-21 840 33 31
- Fax : 62-21 840 47 50

 Textile-Woven

- Indonesian Textile Woven Association
- Add : Jl. P. Jayakarta No. 46 AA, Jakarta 10730
- Tel : 62-21 639 27 65
- Fax : 62-21 639 27 65

 Textile Yarn Spinning

- Yarn Spinning Industries Association
- Add : Jl. Iskandarsyah II/90, Jakarta 12120
- Tel : 62-21 720 61 65
- Fax : 62-21 725 01 87

□ Trade-Importers

- Importer Association of Indonesia
 - Add : Gedung Bank Niaga 1st Floor, Jl.MH Thamrin No.55, Jakarta 10350
 - Tel : 62-21 391 10 57 - 10 59
 - Fax : 62-21 391 10 60

□ Tire Manufacturers

- Tire Manufacturers Association
 - Add : Gedung Gani Djemat, 3rd Floor, Jl. Imam Bonjol, Jakarta Pusat
 - Tel : 62-21 390 28 68 - 28 69
 - Fax : 62-21 390 28 69

□ Welding-Industries

- Indonesian Welding Industry Association
 - Add : Jl. Pulo Gadung No. 45 Kawasan Industri Pulo Gadung, Jakarta 13930
 - Tel : 62-21 489 34 73, 489 33 45
 - Fax : 62-21 560 11 30

□ Woodbase Industries

- Furniture Industries & Handicraft Association
 - Add : Gedung Kehutanan Block IV, 5th Floor, Jl. Gatot Subroto, Jakarta 10270
 - Tel : 62-21 573 78 88, 570 02 49
 - Fax : 62-21 570 46 19

3.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상담 일반사항

인니인들은 300여 년간 언어에 능통한 화란인들의 지배를 받은 탓인지 언어에 대한 능력과 관심이 높은 편이다. 영어도 비교적 쉽게 배우며 비즈니스맨들은 상당수가 영어를 구사할 줄 안다. 영어든 인니어든 언어를 잘 구사하여야 인니인들의 인정을 받기 쉽다.

인니의 모든 절차는 비서진으로부터 시작한다. 대부분의 경영진들이 개인비서를 두고 있으며 행정절차나 서류진행 상태가 비서의 손에 달려있어 비서를 잘 사귀어 두면 일하기가 편해지는 일이 많다.

인니인들은 시간관념이 약한 편이다. 특히 자카르타 시내의 경우 교통혼잡이 워낙 심해 10분 거리가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흔하다. 따라서 상대방이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 또 내가 시간 약속을 정해 찾아가는 경우에는 교통혼잡을 고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가는 것이 좋다.

특히 중국 화교상들은 네고를 많이 하려 들기 때문에 가격, 지불조건 등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사전에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또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찬찬히 조금씩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편지나 이 메일 보다는 직접 대면하고 대화를 하는 것을 좋아하므로 현지 출장을 하거나 한국으로 초청하여 상담하는 것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서양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준비가 비교적 철저한 편이고 또 상대방에게 요구도 한다. 상담을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확실한 사업계획서가 없으면 미팅 자체를 거부하는 경영진들도 많다. 시장개척단 행사에 참가하는 바이어 중에서도 상담자료를 사전에 서면으로 준비해와 하나씩 하나씩 질문하고 체크하여 우리 세일즈맨을 진땀 나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비즈니스 의사소통

1) 바이어 교신

아직도 FAX를 많이 사용한다. 젊은 비즈니스맨들 사이에서 이 메일 사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있으나, 인터넷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보급이 많지 않은 편이다. 또 나이가 든 바이어들은 이 메일 주소가 아예 없거나, 이 메일 주소가 있어도 열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샘플을 보내는 경우 상대방과 발송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좋다. 송료는 누구 부담인지, 일반 우편인지, 특사 우편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인니는 샘플을 찾을 때 샘플에 따라 관세를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우체국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보내는 편에서는 이런 관계를 잘 모르니 바이어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어떤 경우든지 교신은 신속히 해야 한다. 바이어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중의 하나가 한국 기업들은 회신이 늦다는 것이다. 인니 바이어들도 결정이 빠른 것은 아니나, 일단 요청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회신을 해주는 것이 좋다.

2) 비즈니스 에티켓

인니인들은 의복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 날씨 탓도 있겠지만 통상 서양과 같은 정장 차림은 공식적인 행사에서만 착용하며, 공식적인 행사라도 바틱(Batik)이라고 하는 인니의 전통 남방 셔츠는 허용이 된다. 바틱은 원래 수작업으로 천에 염색을 하는 기법을 말하는데, 통상 이렇게 만든 천, 또는 의상을 그냥 바틱이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인니의 귀족들이 사용하던 전통 옷감으로 수공예품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비쌌으나 지금은 기계로 대량 생산하여 일반 시민들도 많이 입고 있다. 인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 각국 원수들이 똑같이 입고 사진을 찍어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 셔츠가 바틱 의상이다.

또한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착용해도 상의는 입지 않는 수가 많으며, 노타이 차림이 일반적이다. 아마 날씨 탓인 것 같다. 인니인들은 대체로 체격이 왜소하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린 검은 색으로, 정장을 안하면 그저 시장 잡상인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겉모습만 보고 바이어를 판단하면 오해를 하는 일이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 국내 세일즈맨은 바이어의 겉모습만 보고 박대를 했다가, 이 바이어가 벤츠 600을 타고 가는걸 보고 놀란 일도 있었다.

인니인들은 기본적으로 'Terima Dulu Kasih Lagi'(인니어로, take and give의 뜻)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즉 먼저 받고 준다는 뜻이다. 인니어로 고맙다는 뜻이 트리마 까시(Terima Kasih)이다. 따라서 방문시 간단한 선물이라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자주 접촉하여 얼굴을 익히게 하고, 때로는 집을 방문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상대 파트너에게 호감을 주는 방법이다.

또 우리 기업인들이 만나는 인니의 고급 공무원, 대기업 사장이나 간부들은 자부심이 강한 경우가 많으므로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인니가 한국보다 못 산다고 하여 인니인들을 깔보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한국인들이 종종 있는데, 자신이 상대하는 인니인들은 자신보다 한참 위의 상류사회 사람이란 걸 알아야 한다. 특히 최근의 테러 사태와 관련 이슬람에 대해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인니인들은 이슬람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독실한 신자들도 많으니 이슬람을 폄하하는 발언은 절대 금물이다. 또한 이슬람인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할 경우 자신은 이슬람인이 아니라도 알코올 음료나 돼지고기 요리 등 상대방이 싫어하는 음식은 피해야 하며, 왼손은 화장실에서 배변후 물로 세정을 하는 데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악수나 식사 시에는 왼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자세가 비즈니스에서도 에티켓의 기본이다.

3) 문화적 특성

인도네시아는 300여 종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다. 전체인구의 절반 가량은 자바(Jawa)인이고 기타 북 수마트라의 아체(Ache)인, 중부 수마트라의 바탁(Batak)인, 서부 자와의 순다(Sunda)인, 슬라웨시의 토라자(Toraja)인, 발리섬의 발리(Bali)인 등이 주요 종족들이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약 5%(1천만명)에 이르는 중국계 인니인들도 인니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니인들은 종족 의식이 상당히 강한 편이며, 특히 주류인 자바인들은 타종족에 비해 약간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중국인들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수카르노 대통령시절에 실패한 공산 혁명으로 인해 수하르토 집권 30여 년 동안 박해를 받아 중국 말이나 글을 사용할 수 없었으며, 중국식 이름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니사람들은 중국계를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인니의 종족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 있다면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가급적 종족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인니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지만 이슬람교가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독교가 5%, 힌두교가 3%, 불교 2%, 유교가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는 이슬람인구는 매년 감소추세여서 83% 내외로 줄고있고 기독교나 유교와 같은 종교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함). 수하르토 대통령 시절엔 반드시 종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지 무종교는 인정이 되지 않았었으며, 종교가 없는 것은 곧 공산주의자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지금도 이와 같은 인식이 남아있어 종교가 없다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 2006년에는 유교도 여섯번째 종교로 인정되었다.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다수 종교인 이슬람 문화가 지배적이다. 이슬람교도들에게는 코란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식품(할랄/Halal)과 먹을 수 없는 식품 (하람/Haram)이 있다. Haram의 대표적인 것이 돼지고기와 알코올 음료이다. 도박 또한 이슬람교도들에게는 금지되어 있다.

이슬람교도들은 왼손을 좌욕 등 청결하지 못한 일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악수를 하거나 물건을 건네줄 때는 반드시 오른 손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머리는 영혼이 드나드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어린아이라도 머리를 만지는 것을 싫어한다.

또한 이슬람교도들은 하루에 5회씩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의 공공장소에는 기도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공장, 사무실 등에도 기도실을 마련해주고 있다. 현지직원들을 급히 찾을 때 기도하고 있어서 찾을 수 없었다면 짜증이 나는 수도 있지만 이는 법으로도 보장된 종교생활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

중동 이슬람 국가들은 금요일이 휴일이나,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도가 많지만 서양과 같이 일요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인들은 금요일 예배(보통 11:30-13:00)는 반드시 보기 때문에(기독교 신자들의 일요 예배처럼) 금요일 오전 11시 이후의 미팅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비즈니스의 주류를 이루는 화교계 비즈니스맨들은 이슬람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금요일 오후에 약속도 가능하다)

다. 수입관행

인도네시아는 일반적으로 가격 시장이다. 인구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가격이 수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부유층도 수적으로 만만치가 않다. 인구의 약 10%를 중산층 이상으로 볼 때 2천만 명이 넘는다. 이들의 연간 소득은 구매력 기준으로 1만 5천불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경제발전예 따라 중산층의 규모도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층들은 값 싼 인니산이나 중국산을 소비하고, 부유층들은 유럽, 미국, 일본제들을 구매한다. 중산층들은 중국산을 쓰기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선진국산은 너무 가격이 비싸고 하여 새로운 가격대의 상품을 찾게 되는데, 한국상품들이 이 틈새를 파고 들고 있다. 한국의 중저가 화장품이 인니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인니 시장에 진출할 때는 중국산을 취급하는 바이어 보다는 선진국산을 취급하는 바이어들을 접촉하는 것이 좋다. 중국산 수입 바이어는 가격을 중국산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개도국 소비자들도 비슷하지만 인니 소비자들도 유명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최근 인기가 높아진 한류 드라마를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전략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인니는 외환거래가 자유화 되어있어 수입 대금 결제에는 전혀 제한이 없다. 큰 거래에는 L/C를 사용하지만 전통적으로는 T/T를 선호 한다. 지금도 소액의 거래에는 T/T가 많이 사용된다. 이 경우 대금 지급 시점이 문제가 되는데, 일부는 계약 시, 잔금은 선적 시 지급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거래가 진행되다 보면 신용거래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 주의를 요한다. 특히 자본재의 경우, 신용거래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 현지은행이나 수출보험 공사와 같이 현지 신용도 조사가 가능한 기관과 연계된 신용공여를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매시즌은 품목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 가장 큰 구매시즌은 라마단 금식기간이 끝나는 르바란 휴일이다. 이 때는 우리나라의 추석명절처럼 선물을 사 가지고 고향을 찾아가는 인구의 대 이동이 이루어진다. 중국 화교들은 구정, 외국인들이나 기독교 인들은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도 큰 구매 시즌이다.

라. 거래 시 유의 사항

인니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는 인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 관계를 중시하는 측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부정부패와도 관련이 있다. 정부나 정치계의 실력자와 연계가 되어있어야 사업이 쉽게 풀리는 경우도 많다. 특히 40년 가까이 장기 집권한 수하르토 대통령 때 대통령 측근이 이권에 많이 개입하면서 인맥에 의한 비즈니스가 심화되었다. 그러나 어떠한 실력자와 아는 사이라면 접근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도 허다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정말로 인니에서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며, 특히 비즈니스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화교상인들과는 돈독한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오랫동안 거래를 하고 있는 사이면 웬만한 일로 거래선을 바꾸지 않는다. 또 이를 위해서는 스킨십이 필요하여 서신이나 전화로만 상담하기보다는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얼굴을 맞대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당장의 현실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빠른 결정을 잘 하지 않는 편이다. 너무 조급하면 바이어에게 끌려가거나 일을 그르치기가 쉽다. 느긋하게 시간을 가지고 비즈니스에 임하는 것이 필요 하다. 또한 인니인들은 'No' 라는 말을 잘 하지 않는다. 상대방과 대립하거나 반목하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 탓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태도에서 긍정과 부정을 느껴야지 말만 믿고 있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일이 많다. 현지에 세일즈 출장을 왔을 때는 적극성을 보였던 바이어가 사후에 별로 반응이 신통치 않고, 사후 연락하면 즉답을 피하곤 하는 일이 많은데,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지나친 기대도 하지 말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

중국계 화교상인들의 경우 특히 상대방을 조바심나게 하는 일이 많다. 이 것만 해결해주면 거래하겠다고 하고 하여 들어주면 아무 대답이 없다가 이쪽에서 재촉하면 다시 다른 요구를 하고, 하여 우리측을 지치고 손들게 만드는 일이 많다. 중국인들은 네고를 잘하니 항상 네고를 염두에 두고 오판을 하고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주지 말고 조금씩 들어주면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니인들은 거래를 시작하면서 독점 에이전트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1-2년 거래 관계를 보아 가면서 독점권을 주겠다고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가급적 물건은 여기저기 뿌리지 않는 것이 좋다. 금방 시장에서 소문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쉬우므로 바이어를 1-2군데 정도만 정하여 물건을 파는 것이 좋다.

마. 조심해야 할 바이어/거래/사기 유형

중소기업의 거래는 T/T 거래가 많은데,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물건을 받고 대금을 안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처음 거래에서는 대금을 잘 지급하다가 차츰 외상을 요구 하면서 대금을 떼어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 많은 편은 아니며, 바이어의 신용상태를 중간 중간 파악하면서 거래하면 큰 문제는 없다.

프로젝트 거래의 경우 현지의 유력 인사를 잘 안다든지, 프로젝트 허가를 사전에 받았다든지 하면서 우리 기업에 접근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때로는 정부문서를 위조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으니 현지 유력 인사를 미끼로 접근하는 경우는 일단 조심을 하고 해당 바이어에 대한 신용조사를 해 보는 것이 좋다.

또 최근 들어 광업권 등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다. 2005년에 한국에서 발전용 석탄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니산 석탄 수입을 희망하는 에이전트들이 많아짐에

따라 인니 브로커들이 석탄을 공급해주겠다고느니, 광업권을 가지고 있으니 공동 개발하자느니 하며 우리 기업들에 접근하는 일이 많이 생겼다. 광산 개발 같은 이권 사업은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또한 인니에서 석탄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광업회사는 몇 개 안되고 이미 장기 공급계약을 맺고 있어 신규 공급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조심을 해야 한다.

4.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무역 애로사항

인도네시아와 교역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2억3천만에 달하는 인구를 가진 잠재력이 큰 시장임에도 가격에 가장 민감한 시장이면서 동시에 국제화가 진행되어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크다는 점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인 바이어들의 외상거래와 이슬람 문화에 영향을 받아 느리고 느슨한 거래 진행이 한국 수출업체들을 답답하게 한다.

그리고 최근 FTA가 진행되면서 관세 등 공식적인 무역장벽이 해소되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통관절차 및 서류, 규제 등의 증가를 통한 비관세장벽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에 적절하게 대비해야 한다.

나 투자진출 애로사항

2002년 이후로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노동자 최저임금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노동집약적 기업은 종전에 비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구나 2003년 개정된 신 노동법은 노동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여 기업운영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법규 자체에는 큰 무리가 없으나, 이를 적용하는 공무원들의 태도와 부정부패가 투자진출 기업들에게는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잦은 공휴일과 낮은 생산성, 상대적으로 느린 인프라 개발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다. 투자진출업체 애로사항

1)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및 커미션 요구

부가세를 납부한 후, 1년이내에 환급받게 되어 있으나, 이보다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세무공무원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2) 근로자 해고의 어려움

노동법상 해고금,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등 임금관련 규정의 불합리로 인하여 탄력적인 노동력 운용에 애로 발생하고 있다. 자진퇴사자에 대해서는 '해고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불성실하게 일한 근로자를 해고시키면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자진퇴사자들도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해고당하는 것을 선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현재 노동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중임)

3) 특정 사업분야에 합작투자 규정

100% 단독투자를 하고 싶으나,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현지인과의 합작투자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분야들이 있어 단독투자가 제한되고, 현지 합작파트너를 발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

□ 합작투자 강제 분야

- Building and operation of seaports
- Electricity produc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 Shipping
- Processing and provision of potable water for public use
- Atomic power plants
- Medical services
- Telecommunications
- Regular / non-regular commercial airliners.

4) 인허가 과정에서 부정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절차에서 행정기관 공무원 또는 에이전트가 사업진행을 이유로 사례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인니정부에서는 최근 반부패정책 적극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는 부패지수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5) 체류연장 수속 비용 부담

매년 체류연장을 받아야 하며, 수속시마다, 기술능력개발기금 명목으로 매년 1,200달러(월 100불)를 납부 해야한다.

6) 주재원 출국세 납부

인니내 체류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출국할 때마다 출국세 100만 루피아(약 US \$110)를 지불해야 한다.

5.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대기업(성공사례)

- 업종: 목재, 조림, 신발, 배터리 등
- 매출규모: 약 8억달러
- 종업원수: 약 2만5천명 (한국인 약 240명)
- 진출시기: 1969년

K사는 목재사업을 기반으로 각 사업분야에서 인도네시아에 토착화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K사가 처음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의 밀림에서 사업을 벌인 것이 1969년이었으며, 지금 K사는 연간 8억달러(미화)의 매출액을 올리며 인도네시아 20위권의 재벌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K사의 직원 수는 총 2만5000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240 여명으로, 핵심 직책은 대부분 이들 한국인이 맡고 있다.

60년대 후반 인도네시아 밀림에서 벌목사업을 시작한 곳은 K사 뿐 아니라,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의 벌목 회사들도 경쟁하였으나, 험난한 작업 환경과 원주민들과의 불화 등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K사는 79년에 합판 사업에도 진출하여, 생산하는 합판은 연간 80만 평방미터 규모로, 인도네시아 전체 합판 생산량(350만 평방미터)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현재 K사는 인도네시아 내에 20여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목재 사업 외에도 컨테이너, 화학, 신발, 무역, 물류, 금융, 부동산, 건설 사업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팜농장을 통한 바이오에너지 사업 진출, 한국산 트럭 조립 생산, 풍력발전장비 제조 등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분야를 발굴해 가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중이다.

나. 중소기업 (성공사례)

- 업종 : 플라스틱 사출
- 매출규모 : 약 1,200만달러
- 종업원수 : 632명
- 진출년도 : 1995

자카르타 부근 짜카랑공단에 위치해 있으며, 이 회사가 인도네시아로 진출한 것은 인력난 때문이었다. 현지화를 위해 이전의 회사명도 S사라는 현지어 이름으로 바꾸었으며 생산제품은 플라스틱 사출물, 실리콘러버 등으로, 리모콘, 텔레비전 프론트패널, DVD 전면커버 등이 주 생산 품목이다.

매출은 주납품업체인 삼성전자가 75%, 현지 진출 외국계 전자업체(일본의 나카지마 알프스전자와 그리스계인 렉스, 프랑스계인 메코인도 등)가 25% 수준이며, ABS, PP, 나일론 등 원료는 현지업체나 한국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성공요인은 첫째, 연구개발과 품질개선 활동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최고 품질을 위한 혁신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제품을 인라인화하여, 사출, 러버, 표면처리도 품질관리를 위해 협력업체에 맡기지 않고 공장에 시설을 갖추고 직접 하고 있다.

둘째, 현지화를 위하여 사명을 바꾼 것은 물론 직원들을 위하여, 야유회, 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를 벌이고 있으며, 한국으로도 연수를 보내기도 한다. 한국으로 연수차 파견된 근로자들은 인도네시아 급여의 10배 가량을 받으며 이러한 현지화 정책으로 직원 이직률은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다.

최근에는 대기업 위주의 납품패턴에서 사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에 적극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오토바이용 리어박스(콘솔박스)를 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간편하게 보온과 보냉이 되는 드링크 용기도 아이디어 제품으로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다. 중소기업(실패사례)

- 업종 : 전기조립 및 프레스
- 매출규모 : N/A
- 종업원수 : 200명
- 진출년도 : 2002

이 회사는 삼성전기 인도네시아 공장의 가전용 모터부품 하청업체로서 2002년에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해 왔다. 2005년부터 VTR 등 가전시장 성장이 둔화되고, 한국산 제품이 중국제품에 밀리면서 삼성, LG 등 대기업도 생산라인을 축소하거나 부품의 소싱 방법을 바꾸게 되었으며, 모터관련 부품을 제조하여 삼성전기에 납품했던 동사도 영업 환경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2006년에 들어서면서 삼성전기의 인도네시아 모터 사업부가 없어지면서, 삼성전기에 부품을 납품하던 동업체도 생산을 중단하고 폐업하게 되었다.

대기업 해외공장의 현지 하청업체들은 제품공급의 대부분을 대기업에 의존하게 되면서 대기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회사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하청업체들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최소한의 관리인원 및 생산인력만 운용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으나,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케팅 채널을 다양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6. 이주정착 가이드

가. 주택여건

주거형태로 나누어 아파트, 주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97년 폭동 이후로 단독주택의 보안을 보장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아파트로 거주지를 선택하고 있어 자카르타 지역의 아파트 임차료는 외국인들 및 부자들의 수요 확대와 함께 동남아시아의 전반적 부동산 경기 상승추세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방 3개를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이 주로 찾는 아파트의 경우 월 임차료가 \$1,500 ~ \$2,000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아파트의 경우 개인이 소유한 아파트와 매니지먼트 회사가 운영하는 아파트로 나뉘는데 대부분 개인 소유의 아파트가 많으며, 이를 임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한 임차 절차가 일반적이며, 아파트들은 Full / Semi / Non Furnished 등으로 구분 되고, 각 형태에 따라 같은 아파트라도 임차료에 차이가 있다. 최소 임차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며, 장기 임차의 경우, 임차기간 전체에 대한 임차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목돈부담이 따르는 상황이다.

전력사용료의 경우 다소 비싼 편으로 에어컨을 가동할 경우, 3베트룸 기준 월 전력 사용료가 US\$150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에어컨을 입주자가 구입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택 물색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자녀교육환경

초, 중, 고등학생을 둔 외국인 부모는 자녀를 나이, 학년에 맞추어 국제학교 (INTERNATIONAL SCHOOL)에 입학시킬 수 있다. 국제학교는 여러 개가 있으므로 학비 수준 및 학교 위치 등을 고려하여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문의를 하고 간단한 입학 시험을 거치면 맞는 시기에 입학할 수 있다.

주요 국제학교로는 오랜 역사와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국제학교(JIKS)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밖에 JIS(미국계), BIS(영국계), AIS(호주계), NJIS(미국계), 간디스쿨(인도계), SIS(싱가폴계) 등과 영어로 수업을 하는 인도네시아계 국제학교들이 있어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타 아시아 지역보다 좋은 편에 속한다.

JIS는 전세계 미국계 학교 중 상위 5위 이내의 명문학교라고 알려져 있으나, 한국 학생이 많다는 단점과, 저학년(1-6학년)은 경쟁이 심해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입학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2006년 1학기 개강을 앞두고, JIS(미국계), BIS(영국계)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올라가는 학생 들이 많아, 저학년에서 신입생을 추가로 모집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외국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자카르타내에 있는 국제학교는 다음과 같다.

□ JIKS (Jakarta International Korean School)

자카르타내의 한국인학교로서 한국의 교육방침과 똑같이 운영된다. 현재 고등학교까지 편성되어 있으며 약 40여 학급에 한국인 학생만 1,500명 정도가 재학중이다. 한국인에게는 특별한 입학제한이 없으며 학비는 2007년도 1학기 기준으로 초등학교가 학기당 1,500달러, 중학교 학기당 1,650달러, 고등학교가 학기당 1,800달러 이고 건축기금이 500달러, 입학금 1,000달러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 JIS (Jakarta International School)

국제학교로는 학비가 가장 비싸며 자율적인 서양의 교육방식답게 학생 개개인의 특별활동을 보장한다. 입학시 등록비 100달러, 시설사용료 800달러, 기부금 10,000달러/4년을 납부 하며, 수업료로 유치원 11,200달러/1년, 초등학교 13,400달러/1년, 중학교 15,500달러/1년, 고등 학교 15,500달러/1년을 각각 지불한다. 기부금은 학비를 회사에서 지원하는 경우 회사가 4년치를 선납하도록 되어있으며 매년 2,500달러씩 공제하고 중간 퇴학 시 잔액은 환불한다. 학비를 개인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년 3,000달러씩 지불한다. 또한 수업료도 1년치를 선납해야 한다. 학기는 매년 8월에 시작하여 6월에 끝난다.

□ BIS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영국학교로서 외국국적을 가진 자만이 입학이 허용되고 특별한 기부금이나 입학금이 없고 유치원 6,100달러, 초등진학반 8,950달러/1년, 초등학교 1-2학년 11,000달러/1년, 초등학교 3-6학년 12,000달러/ 1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13,900달러/1년을 각각 지불한다. BIS 역시 매년 가을인 9월에 학기가 시작한다.

□ NJIS (North Jakarta International School)

자카르타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NJIS는 비교적 크지 않은 규모와 아직은 많은 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않다. 입학 시 등록금은 100달러이며, 매년 기부금을 2,500 달러씩 납부 해야 한다. 수업료는 유치원 7,000달러/1년, 초등진학반 9,000달러/1년 초등학교 11,315 달러/년, 중고등 학교 11,765달러/년을 각각 지불 한다.

□ AIS(Australian International School Indonesia)

자카르타 남쪽에 위치한 호주계 학교로서 약 650명의 학생을 가진 중견 인터내셔널 학교이다. 1996년에 설립되어 현재 발리와 뼈자텐 지역에도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

□ ACG (ACG International School Jakarta)

뉴질랜드학교로서 자카르타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2004년에 개설되어 규모가 크지 않고 아직은 학생수도 다른 곳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입학시 등록금 150달러이며, 매년 기부금을 2,500달러씩 납부해야 한다. 수업료는 유치원 6,500달러/1년, 초등학교 1학년 7,500달러/1년, 초등학교 2학년 9,000달러/1년, 초등학교 3-6학년 11,000달러/1년, 중고등학교 12,000달러/1년 이다.

□ GMS (Gandih Memorial School)

JIS나 한국국제학교 다음으로 한국인학생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인도국제학교인 Gandih 스쿨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학비가 전부 똑같으며 기부금이 기본으로 2,550달러/ 1학기 (6개월), 학비가 275달러/월 이다.

다. 한국식품 조달여건

현지에서의 한국식품은 자카르타를 포함하여 수라바야 등 대도시에서 구입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가격도 통상 한국 소매가격의 1.5배 정도로, 외국에서 구입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크게 비싸지는 않은 편이다. 기타 한국 사람에게 필요한 장류(고추장, 된장류)도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몇 년간 주재할 목적으로 입국 시 이사짐에 몇 년치 물품을 보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때 그때 필요한 식품을 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한국식품 구입처

- 도라지: JL.MAHAKAM II/I, JAKARTA (TEL)7203920 (FAX)7203939
- 무궁화: JL.SENAYAN NO.43 BLOK S KEBAYORAN BARU, JAKARTA (TEL)772214, 7200812 (FAX)7206438
- 한 양: JL.BOULEVARD RAYA BLOK PA I/8 - I/9 KELAPA GADING PERMAI JAKARTA (TEL)4504363/4
- COSMOS(일본 슈퍼마켓): WIJAYA II KEBAYORAN BARU, JAKARTA (TEL)7206811
- 한일슈퍼(수라바야 소재): SURABAYA PLAZA, SURABAYA (TEL)515-088 (EX)3335
- 뉴서울슈퍼: JL.MELAWAI RAYA 109 KEBAYORAN BARU, JAKARTA (TEL)725 0520 (FAX)7250520
- 한일마트(농협직판장): JL. Pela Raya No.32 ,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TEL) 723-2086-7 (Fax) 726-2550

라. 생필품 구입여건

자카르타는 국제적인 도시로서 대형백화점에서는 세계 유명브랜드 물품등을 쉽게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수입상품이 범람하고 있으며 부족한 물건이 전혀 없을 정도로 모든 물자가 풍족하다.

마. 일반 사항

1) 교통, 통신, 우편제도

- 교통수단: 택시이용은 쉬운 편, 요금도 비싸지 않으나 외국인에게는 길을 돌아가거나 잔돈이 없다는 방식으로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경우가 많음.

- 통신: 호텔, 백화점, 슈퍼마켓, 공항 이외에는 공중전화 이용이 어려우므로, 현지에서 저렴한 휴대폰과 통화바우처(5만, 10만루피아)를 구매해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임.
- 우편제도: 우편 이용시 연착. 분실되는 경우 종종 발생, DHL 등 속달 이용 권장
- 공공요금: 전기요금은 월평균 미화 100불 소요, 전화. 수도료는 사용량 기준.

2) 환전

- 은행, 호텔, 공항, 기타 환전소에서 현지화로 환전 가능
- 은행에서 달러화 인출시 현금인출 수수료 (0.5%내외) 공제 (여행자 수표의 경우 취급하는 은행이 제한적임)
- 달러 지폐는 1999년 이후 발행된 신권이 통용가능하며 지폐에 낙서나 조금 찢어진 경우 통용에 제약이 따름.
- 외환의 입 출금, 송금은 무제한

3) 은행, 우체국, 박물관 등 영업시간 및 휴무일

- 은행: 월 - 금요일 09:00-14:30
- 우체국: 월 - 금요일 09:00-15:00
- 박물관: 09:00 - 14:00
- 일반상점: 10:00 - 20:00
- 백화점: 10:00 - 21:00

4) TIP제도

- 일류호텔, 레스토랑: 10% 봉사료가 영수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5-10% 정도
- 택시 운전수: 1,000루피아 정도
- 공항 포터나 벨보이: 짐 1개당 5,000 루피아 정도
-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팁을 주는 것이 관례임.

5) 동포 현황

- 총 인원: 약 35,000(07.1월), 대부분 장단기 체류자이며, 국적 취득자는 소수에 불과.
- 동포단체: 재인니 한인회(회장: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 재인니 부인회, 지방 대도시 한인회
- 한국국제학교: 교사 110명(교육부 파견교사 6명), 학생수 1,200여명

6) 종교활동

- 참빛교회, 연합교회, 주님의 교회, 동부교회, 선교교회, 소망교회 등 13곳의 한인교회
- 한국신부주재 카톨릭 성당 소재
- 불교의 경우 스님 없이 자체적으로 사원 운영(2곳)

7) 호텔

- 호텔 가격은 여타 지역에 비해 적정한 수준임.
 - 최고급 호텔(GRAND HAYTT, Ritz-Carlton): 1박 미화 200불
 - 고급 호텔(MANDARIN, HILTON): 1박 미화 120불 (한국의 5성급임)
 - 중급 호텔(PRESIDENT, INDONESIA, CENTURY PARK): 1박 미화 40불

바. 출입국 관련

- 사증(비자) 및 노동 허가
 - 비자가 필요하나 관광, 회의 참가 등인 경우 자카르타 공항에서 도착비자 발급이 가능함. (30일 이내 체류/출장 가이드 참조)
 - 그러나 도착비자는 기간연장이 안되므로 부임 입국과 같이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사증을 받고 입국해야 함.
 - 특히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이 허용됨.

사. 의료 건강(예방 접종 등)

- 한국 내 일반 의약품은 현지 열대 기후의 특성상 큰 효능이 없으며 다만, 항생제, 지사제, 파스, 모기약 정도는 가져 오는 것이 좋음.
 - 한국 식품점에 웬만한 한국 의약품이 있으나, 가격이 국내의 2-3배임.

아. 체류 시 유의사항

1) 건강 유의사항

- 계속되는 냉방 속의 생활로 냉방병(감기, 두통, 신경통 등)과 무기력증 지속
 - 규칙적인 적절한 운동으로 땀을 흘리고,
 - 식사를 제때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 과음을 자제함이 건강 유지에 바람직
 -
- 장티푸스, 세균성 식중독, 파라티푸스, 담석증, 요도 결석, 치주염 등 빈발
 - 식수, 양치는 AQUA, ADES 등 정수된 물을 사용.
 - 일반 현지 음식 및 음료 이용은 지양(식당에서 가급적 음료수에 얼음을 넣어 먹지 않도록 함.)

2) 전화, 전기, 수도 사정 불량

- 전화접촉률 저조 및 빈번한 고장
- 수도는 수질의 불량으로 음료 및 취사에 사용 불가
 -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은 지하수보다 상수도가 훨씬 좋으므로 상수도 사용 권장

3) 국민성 및 풍습

- 왼손으로 용변을 처리하는 습관 때문에 왼손으로 사람의 신체를 건드리거나 악수나 물건을 건네면 실례

4) 치안 불안지역(여행자제 요망)

- 자카르타 시내
 - 동부 자카르타: Pulo Gadung, Gajah Mada, Kota, Cawang
 - 서부 자카르타: Slipi, Daan Mogot, Pluit
 - 중부 자카르타: Tanah Abang, Senen, Kemayoran, Cililitan, Cempaka Putih
 - 북부 자카르타: Koja(TG. PRIOK), Kramat Tunggak
 - 남부 자카르타: Blok M, 스나얀 경기장
 -
- 기타: 아체, 말루쿠, 동티모르 지역

7. 출장가이드

가. 기후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자카르타이며, 인구는 약 2억 3천만 명, 면적은 190만 평방 킬로미터이다. 인도네시아는 '동인도의 섬들' 이란 뜻을 가졌는데 적도를 따라 북위 6도-남위 11도, 동경 95-141도 지역에 6,000여 개의 무인도를 포함한 1만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그 섬들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가르면서 아시아와 대양주의 징검 다리처럼 적도 위에 펼쳐져 있다. 그 중 수마트라, 자와, 칼리만탄, 술라웨시, 파푸아 등 5개섬이 중심이 된다.

기후는 전형적으로 열대성으로 고온다습하며, 계절은 우기와 건기로 구분된다. 우기는 10-3월경, 건기는 4-9월경이다. 우기에는 하루 약 1시간 정도의 스콜이 집중적으로 내리며 일단 스콜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날이 개는 것이 열대 우기의 특징이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인지 우기의 특징이 조금씩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우기가 4-5월까지 길어지고 비도 하루 종일 내린다든지 2-3일 계속되는 일도 생겨나고 있다. 과거에는 비가 하루 잠깐 식 내려 충분히 빗물이 빠질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배수시설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최근 들어 물난리로 생명과 가옥을 잃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연평균 기온은 섭씨 25-28도, 습도는 73-87%이다.

복장은 일년 내내 여름 옷으로 생활한다. 따라서 반팔 셔츠가 기본이나 사무실에 주로 근무하는 사무직의 경우 장시간 에어컨에 노출되므로 긴 팔 셔츠를 입는 경우도 있다. 바지는 주로 긴바지를 입는 것이 예의이므로 가급적 외출시에는 반바지를 피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건물들이 에어컨을 강하게 작동시켜 놓고 있어 의외로 감기에 걸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특히 출장자들은 호텔 방의 찬 공기로 인해 감기에 걸리는 수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외부의 더운 기후와 실내의 찬 기온 간의 온도 차가 심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나. 시차

- 西部(자카르타): GMT + 7, KST - 2(자카르타 오전9 시: 한국 오전 11시, 한국이 2시간 빠름)
- 中部(발 리): GMT + 8, KST - 1
- 東部(이리안자야): GMT + 9, KST - 0

다. 근무시간

1) 공공기관

- (월-목) 08:00-16:00, (금) 08:00-11:30, 13:00-16:30 토요일은 휴무. 금요일은 이슬람 주일로서 12시 예배를 위해 오전 근무를 30분 앞당기고 오후 근무를 30분 연장함
- 민간기업: 08:00- 17:00 (금요일 오후는 많은 기업들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음).

2) 은행

평일 근무시간은 08:00-15:00까지이며 토요일에는 국영은행을 포함, 전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음. SOGO 백화점 빠사라야 등 대형백화점에는 환전소가 있으므로 주말에 환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음.

3) 금요일

오후시간(12:00-13:00) 회교 대예배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위시해서 민간기업, 심지어는 가게까지 업무 공백이 있으므로 상담 또는 비즈니스 방문 시 금요일 오후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독교, 카톨릭, 불교 등 여타 종교인은 무관함)

- 한국대사관: (평일) 08:30 - 16:30, 토요일 휴무
- KOTRA 무역관: (평일) 08:00 - 17:00, 토요일 휴무

라. 주요 단위

구분	단위	비고
길이	미터법	단 골프장의 경우에는 야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부 있음
무게	그램(gr), 킬로그램(kg),톤(ton)	식당에서는 스테이크 계, 가재 등은 온스로 함
부피	리터(Liter), 킬로리터, CBM	
전기규격	220V와트(Watt)	한국처럼 라운드형 플러그 사용함, 50Hz로 주파수가 다름
방송 방식	PAL 방식	
온도	섭씨(Celcius)	
화폐 단위	루피아	미국처럼 천 단위로 끊으며, Milliar가 백만이 아닌 10억 (Billion)인 것임에 주의

마. 출입국/비자

비자발급은 각국에 주재하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영사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2004년 1월까지만 해도 한국관광객의 경우 2개월간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하였으나, 2004년 2월부터 관련법규가 변경되어 비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광입국의 편의 제공을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등 22개국에 대해서는 공항(또는 항구)에 도착하여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교관, 관용여권의 경우 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대해 2004년 5월부터 14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으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인니 정부도 2004년 6월부터 한국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현지에서 비자 연장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하며, 14일 이상 체류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최장 3개월 부여)

일반 여권의 경우 비자를 반드시 한국에서 받을 필요는 없다. 도착지 비자제도가 있어 도착지 공항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30일간). 도착비자 발급이 가능한 공항과 항구는 다음과 같으며 이외 공항이나 항구로 입국하는 경우 출발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 공항(7)

- soekarno-Hatta 공항(자카르타), Polonia 공항(메단), Tabinng 공항(빠당), Juanda 공항(수라바야), Ngurah Rai 공항(발리), Sam Ratulangi 공항(마나도), Sultan Syarif Kasim II 공항(빠켄baru)

○ 항구(13)

- sekupang 항, Batu Ampar 항, Nongsa 항, Marina Teluk Senimha 항(이상 Batam), Bandar Bintan Telani Lagoi 항, Bandar Sri Udana Lobam 항(이상 Bintan), Belawan 항(메단), Sibolga항(북수마트라), Yos Sudarso항(두마이), Teluk Bayur항(빠당), Tanjung Priok항(자카르타), Padang Bai항(발리), Jaya Pura항(빠뿌아)

도착비자는 관광, 사회, 문화, 공용의 목적에 한하고 상용비자인 경우 출국지에서 받아야 하니, 세일즈 출장의 경우에도 관광이라고 얘기한다. 입국카드에 방문목적은 적을 때 Holiday 또는 leisure 란에 체크를 한다. 비즈니스 출장자들은 습관적으로 Business란에 체크를 하는 수가 있는데, 비자발급시 또는 입국심사시 **한국에서 상용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시비를 걸며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비자 수수료는 **7일 체류시까지 미화 10\$, 8일-30일은 미화 25\$** 이다. 그리고 도착비자를 받으면 체제목적 변경과 체재기간 연장이 불가하다. 종전에는 3일 체류까지는 10\$, 4일 - 30일은 25\$ 이었으나,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2005년 8월 1일부터 단기체류기간을 7일로 연장하였다. 이는 관광객들이 가급적 오래 체류토록 하기 위함이다.

도착비자 받는 요령은 공항 입국심사 전에 도착비자 받는 창구가 있으므로 이 창구에서 먼저 비자 수수료를 내고, 다음 창구에서 여권상에 도착비자를 발급 받은 후 입국심사대에서 입국 도장을 받는다. 그러나 시장개척단과 같이 단체로 입국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한국에서 미리 비자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이 좋다.

비자는 서울의 주한 인니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다

□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 대사: JAKOB S H.H.L TOBING
-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5, 1-877
- 전화: (02) 783-5675/7(비자 및 영사업무), 782-8555
- 팩스: (02) 780-4280

주의해야할 사항은 인니 **입국을 위해서는 여권 유효기간이 입국시점 기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출국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탑승을 거부하지만, 제 3국을 경유하여 오는 경우 아무런 제지없이 인니에 도착하는 수가 있다. 이때는 공항 이민국에서 입국을 거부하여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며 해결책으로 고액의 뇌물을 요구하는 수도 있다.

또 한가지, 간혹가다 해외출장이 잦은 비즈니스맨들은 여권의 비자란이 꼭 차서 공항에서 도착비자를 부착할 면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입국이 거부되거나 해결책으로 고액을 요구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한다.

3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와 상기 공항 및 항구 이외의 지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비자 발급 신청시 비자 발급 신청서 2부와 여권사진 2매, 왕복 비행기표 사본이 필요하고, 상용은 출장명령서 원본과 사본, 방문비자는 초청장 원본 및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비자 발급에는 3-4일 정도가 걸리며 여행사에 부탁하면 된다.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때는 예방접종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단 인도네시아 도착전 6일 이내에 콜레라 오염지구를 통과한 경우 예방 접종증을 요구하므로 제시하여야 한다.

입국시 세관 신고서에 비디오 카메라 등 고가 제품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나, 사진 신고하지 않은데 대한 불이익은 별로 없으므로 경우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하는 기지가 필요하다(통상 기재치 않음).

면세 반입은 술 1 리터, 담배 20갑 이며, 외화 소지, 반입은 자유로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인니 화폐를 1억 루피아 이상 반출할 경우 에는 신고해야 한다. 포르노물, 마약은 반입이 금지된다. 인니는 특히 마약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니 유의해야 한다.

2005년 7월 발리에 입국한 호주의 한 여자 관광객 짐에서 소량의 마약이 발견되었는데, 본인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짐에 넣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20년 징역형을 선고하여 양국간의 외교문제가 된 일이 있다. 마약범은 거의 사형이다.

입국 및 출국 카드가 우리나라와 같이 두면으로 되어 있어, 입국심사대에서 출국카드를 절단하여 돌려준다. 출국카드는 출국시 제출해야 하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출국카드를 분실하면 출국시 문제가 될 수 있음**).

인도네시아 공항 입국시 출구가 여러 개로 나뉘어 저 있어 마중을 나온 일행과 못 만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출구를 정확하게 지정해 두어야 한다. 입국심사를 마치고 나오면 짐 찾는 곳이 좌우 둘로 나뉘어져 있고, 짐을 찾고 나가는 출구가 각각 따로 있는데, 출구를 나가면 다시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 마중나온 사람이 정확한 통로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만나기가 힘들어진다.

국적기인 대한항공의 경우, 짐을 찾는 곳에서 가까운 출구로 세관검사를 통과하고 나가면 다시 두 갈래로 길이 갈리므로 나갈 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서로 약속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일정 시간까지 못 만날 경우에는 **1층 입국장 출구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 안에서 만나기로 하는 것이 편리하다**)

출국시에는 통상 비행기출발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여 출국절차를 밟아야 하며 공항세는 국제선이 100,000루피아이며 국내선은 15,000-20,000루피아가 징수된다. 그러나 지상사요원과 같이 현지 거주증을 소지한 사람은 내국인으로 간주 출국시 추가로 1,000,000 루피아를 납부 해야 한다. 출입국시 외화의 소지에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자카르타에 입국해서 바로 수라바야, 메단, 발리 등 다른 도시로 여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자카르타 공항은 국제선이 있는 2청사와 2청사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국내선

전용의 1청사로 구분된다. 2청사는 국제선 전용이나, 인니 국적의 가루다 항공과 라이온 항공 국내선도 같이 이용하고 있다. 그 밖의 다른 항공사 국내선은 1청사를 이용하리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행기 Transit 때문에 공항 근처에서 1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Sheraton Bandara 호텔이나 공항 2청사 내에 있는 Quality호텔을 이용하면 좋다. Sheraton 호텔은 공항에서 10분거리로 공항내에 안내데스크가 있고,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Quality Hotel은 공항내에 있어 이동할 필요가 없는 편리한 점이 있으나, 수준은 좀 쳐진다. 1박 비용은 양쪽 모두 미화 90\$ 수준이며 Quality Hotel의 경우 6시간 미만 쉬어 갈 경우 미화 50\$을 받는다. (호텔 연락처는 호텔 항목 참조)

바. 환전

인니의 화폐단위는 루피아(RUPIAH)이며, 지폐는 1000, 5000, 10000, 20000, 50000, 100000 등 6가지가 있다. 동전은 25, 50, 100, 500루피아의 4종류가 있으며 드물게 5, 10 루피아 짜리도 볼 수 있으나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 10,000루피아, 20,000루피아, 50,000루피아, 100,000 루피아 지폐는 2004년말 - 2005년에 걸쳐 신 화폐가 발권되어 구화폐와 혼용되고 있다.

인니에서는 호텔이나 일부 한국식당, 한국수퍼를 제외하고는 달러가 거의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지화로 환전을 해야 한다.(환전을 해 주는 경우에도 환율이 상당히 불리함)

환전은 공항출구, 일반백화점, 공인 환전소, 은행, 호텔 등에서 쉽게 할 수 있으나, 환율은 BCA, BII 은행 등 은행이 가장 좋고 다음으로 공인환전소, 일반백화점, 공항출구, 호텔 순이다. SOGO 백화점의 경우 국영은행 출장소가 있어서 영업시간까지 환전을 해주고 있으므로 특별히 급하게 환전을 하여야 할 경우 동 출장소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저녁9시까지 영업)이 될 수 있다.

미 달러화를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로 환전 시 달러화 지폐에 흠이 없는 99년 이후 발권된 새돈이어야 환전이 용이하다. 은행 및 환전소에서는 달러화 지폐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환전 및 입금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다. 지폐가 접혀있거나, 도장이 찍혀있거나, 볼펜으로 조금이나마 낙서를 했다거나 하면 환전이 안되거나 환전에 응하더라도 환율적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것이 보통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화 100불짜리 중에서도 지폐 번호가 CB, DB, DF, DH로 시작되는 것은 위폐가 많다하여 환전을 거부하는 일이 많으니 한국에서 미화 환전시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위폐가 발견되면 중앙은행에서 각 은행, 환전상에 지폐번호를 추가로 고지한다.

또한 일반 환율은 100불짜리 지폐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50불 이하의 소액 달러 지폐들은 환율적용면에서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들어올 때는 소액권은 피하고 가급적 100불짜리 신권만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좋다.

간혹 1불짜리를 서비스 팀으로 현지인들에게 주기위해 일부러 가져오기도 하는데, 현지인들은 1불의 절반가치 밖에 안되는 현지화폐 5,000루피아를 더 고맙게 받으므로 소액 미화 달러를 일부러 가져올 필요는 없다. 아울러 여행자 수표의 경우 환전이 매우 어려운바 가급적 현찰을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호텔, 식당, 쇼핑센터 등에서 통용이 잘 되는 편이다.

최근에는 국내 공항의 은행에서 한화를 인니의 루피아화로 직접 교환하여 주므로 한국에서 직접 루피아화로 환전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조만간 인니의 지정된 은행이나 환전소에서도 한화를 루피아화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 교통

1) 대중교통

1997년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치안불안 상황이 노정되고 있어 방문객 특히 외국인들의 신변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버스등 대중교통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BUS WAY라고 해서 전철 대신에 시내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전용도로 이용 버스는 그 중 서비스가 나은 편이므로 대중 교통수단 중에는 그나마 가장 추천할 만한 교통수단임(1회 탑승시 3,500루피아임)

택시의 경우에는 운송 그룹인 Blue Bird사가 운영하는 검은색의 Silver Bird(한국의 모범 택시에 해당) 또는 파란색의 Blue Bird 라고 하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택시를 타는 경우 요금을 속이거나 강도를 당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Silver Bird는 흑색, Blue Bird는 청색이나, 일반택시가 대부분 청색이기 때문에 택시 측면 또는 후면의 Blue Bird 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니면 공항, 호텔 프런트, 사무실 또는 공공건물 입구 Car Call 서비스에 요청하여 반드시 Silver Bird 또는 Blue Bird를 불러도 좋다. Blue Bird 보다는 Silver Bird가 차나 서비스 면에서 더 우수하다. 그리고 Golden Bird도 있는데, 이는 리무진 서비스로 호텔에 얘기하면 시간제로 빌릴 수 있으나 상당히 고가이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할 필요는 없다.

- Silver Bird 및 Blue Bird 호출 Tel: (021) 794-1234

Blue Bird 는 기본요금 5,000루피아에 1km 추가 주행에 2,500 루피아가 부과되며, Silver Bird는 기본요금 6,000루피아에 1km 추가 주행에 3,200루피아가 부과된다. 요금은 시간. 거리 병산제이고 유료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한다. 자카르타 시내는 교통 체증이 워낙 심해 택시요금이 생각 보다 많이 나올 때가 많다. 그러나 요금 자체가 비싼 편은 아니다. 택시회사에 택시를 부른 경우 최소 요금이 25,000 루피아여서 가까운 거리를 가더라도 25,000 루피아를 지불해야 한다.

2) 철도

인도네시아를 달리는 열차는 국유열차 PJKA가 있으며, 총연장 6천km 인데 이중에서 4천km는 자와, 마두라섬에 있고 나머지는 수마트라 섬에 있다. 기차표 구입은 언제든지 정거장에서 출발 1 시간 전에 가능하나 여행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여행사를 통하여 미리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3) 항공

인니는 국토의 특성상 육상운송이 낙후되어있어 항공운송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항공사도 국영항공인 가루다 항공을 비롯하여 소규모의 국내선 항공사들이 여러 개 있다. 주요 국내선 항공사들로는 Lion Air, Merpati Air, Mandala Air, Adam Air, Efata Air, Jatayu Air,

Batavia Air, Kartika Air, Pelita Air, Star Air, Sriwijaya Air 등이 있다. 가고자 하는 행선지는 여행사를 통해서 또는 공항에서 항공권을 직접 구입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선(짧은 구간) 일부는 예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때에는 일찍 공항에서 항공권을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다. 국제선은 자카르타에서 인근 싱가포르, 방콕, 호지민, 시드니등에 직항편이 운항된다. 한국과의 항공편은 KAL이 매일 1회 운항한다. 아시아나는 주 3회 운항하였으나, 2005년 8월 조종사 파업 이후 운항이 중단되었다.

KAL 항공기는 오후 3시 20분에 인천을 출발하여 자카르타에 오후 8시 10분 도착하며, 이 비행기가 밤 9시 40분에 다시 자카르타를 출발, 다음날 아침 6시 40분에 인천에 도착한다. 서울-자카르타간 비행시간은 약 7시간이다. 가루다 항공은 자카르타 서울편을 KAL과 코드쉐어 방식으로 운항하고 있다. 인천- 발리편은 KAL이 주 4회 운항하고 있는데, 매주 월, 수, 금, 일요일 밤 10시 5분에 인천을 출발, 다음날 오전 01시 55분에 발리의 덴파사 공항에 도착한다. 이 비행기가 03시 10분에 다시 발리를 떠나 인천에 오전 11시 05분에 도착하니 발리->인천 비행기는 화, 목, 토, 월요일에 있는 셈이다. 가루다 항공도 2006년 4월부터 발리(덴파사)-인천 항공편을 매일 1편씩 운항하고 있다.

국내선을 이용해 인도네시아 국내 도시들로 출장을 다닐 때, 여행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가루다 항공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른 국내선들은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한 두시간 연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제선과 연계해 탑승하려다 비행기를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4) 공항에서 목적지 찾아가기

자카르타 공항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각 공항에서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한 방법은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다.

택시는 일반택시, 블루버드(BLUE BIRD), 모범택시에 해당하는 실버버드(SILVER BIRD, 실제 차의 색상은 검은색이고 그랜저 구모델을 닮았음)의 3종류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택시라 할 수 있는 블루버드 택시는 공항내 대기기가 안 되므로 입국시 이용이 어렵고 보통 공항 대기권을 가진 일반 택시와 별도 지정구역을 가진 실버버드 택시를 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일반 택시들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가격을 흥정해서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이 모범택시 격인 실버버드와 동일하다. (보통 자카르타 시내까지 15만루피아 선이라고 함)

공항에서 자카르타 시내까지 소요시간은 약 30분 정도이며, 택시요금은 일반 택시가 미터기를 사용하면 10만루피아(US\$ 8.5)정도이나, 실제 흥정은 10만 루피아에 고속도로 통행료 1만 루피아를 합쳐서 최대 15만루피아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모범택시 격인 실버버드는 미터기로 운행하므로 12만 루피아(US\$ 13) 정도에도 가능하므로 가급적 실버버드를 찾아서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카르타 무역관을 찾아오시려면

공항에서나 시내에서 택시를 타시고 '끼따 뿌르기 꼬 위즈마게까베이(Wisma GKBI) 디 잘란 수디르만' 이라고 하시면 되고 만일 기사가 위치를 잘 모르는 눈치일 경우에는 '위즈마 게까베이 드갓 술탄호텔(Sultan Hotel) 단 스망기몰(Semanggi Mall)' 이라고 하시면 대충 알아들을 것이다. (드갓은 '근처'라는 인도네시아 말이며, 인도네시아식 알파벳 발음은 T를 'tt'로 해야함)

아. 통신

1) 공중전화

인도네시아에서는 호텔이나 공항 등 공공시설을 제외하고는 길거리에서는 WARTEL(와르텔/가게를 뜻하는 Warung과 Telephone의 합성어)이라고 전화기를 설치한 가게에서 국제 전화를 할 수 있다. 공중전화 거는 방법은 버튼식으로 우리나라와 같다. 공중전화인 경우 100루피아로 1분동안 통화할 수 있으며 카드 (Rp. 10,000 - 100,000권)를 구입할시 국제전화 및 지방에도 통화가 가능하지만 카드식은 전화가 많지 않은 것이 흠이므로 호텔 체크인시 카드식 전화 유무를 살펴 카드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과의 통화 시 카드를 구입하여 호텔 및 백화점, 일반 공공장소에서 항상 통화할 수 있다. 통화 방식은 001 + 82(한국코드)+ 2(서울코드) + 원하는 전화번호를 누르면 된다. 한국식당 등에서는 한국에 저렴한 가격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한국할인전화 카드를 판매하고 있는데, 일반 전화 보다 요금이 50%-70% 저렴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밖에 한국통신의 수신자 부담 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동 서비스 번호는 001-801-82 이다. 호텔과 공공장소(공항 등)에서 수화기를 들고 동 전화번호를 누르면 한국 교환원이 '여보세요' 하면서 원하는 전화 번호를 묻는데 번호를 제시하면 통화가 가능하다.

2) 휴대폰

아직까지 인니에는 핸드폰을 빌려주는 서비스가 없다. 국내 SK 텔레콤 휴대폰의 경우 자동로밍 서비스가 있어 인니에서 모드만 바꾸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요금은 비싼 편이다. 인니는 GSM과 CDMA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GSM이 먼저 도입되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CDMA는 2003년 말에 처음 도입되어 아직 점유율은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통화품질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니의 휴대폰은 SIM Card란 칩을 장착하는 형태이며, 요금도 미리 카드를 사서 입력시키는 선불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출장자들도 핸드폰을 구입하여, SIM Card를 사서 칩을 장착하고 선불카드(보통 10만 루피아)를 사서 요금을 입력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휴대폰도 저가폰은 40만-50만루피아 (미화50-60불)면 구입이 가능하니, 장기 출장자 혹은 수시로 출장오시는 분들은 현지에서 아예 휴대폰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

3) 인터넷

인니는 인터넷 사정이 별로 좋지 못하다. 대부분의 일류호텔은 방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며 요금은 보통 하루에 미화 10불 정도이다. 방에서 인터넷 접속이 안되면 비즈니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거리의 PC 방도 이용할 수 있다. PC Café 또는 Warnet(와르넷/가게를 뜻하는 Warung과 Internet의 합성어)이라고 불리는 PC 방이 많이 있는데, 시간당 요금은 지역과 가게마다 달라 4,000루피아에서 8,000 루피아까지 받으며 학교 근처가 저렴하다고 한다.

그러나 인니는 ADSL도 이제 도입단계에 있고 일반 전화 라인이나,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어 인터넷 속도가 128K 정도로 매우 느려 한국의 출장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4) 특사운송

인도네시아에서 특사운송은 주로 DHL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서류의 경우에는 0.5킬로 이하가 2만5천원 정도에서 시작해 매 0.5킬로 늘어날 때 마다 1만 3-1만 4천원씩 인상되는 수준이 기업운송요율이라고 한다. 소포의 경우에는 0.5킬로이하가 6만7천원 정도에서 시작해 매 0.5킬로 늘어날 때 마다 1만 2-1만4천원씩 인상되는 수준이 기업운송요율이라고 한다.

자. 호텔

자카르타 호텔들은 대부분 고급호텔들이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어 한국 호텔보다도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지만 가격대는 좀 더 저렴한 편이며, 무역관을 통해서 예약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예약이 가능하다.

- SHANGRI-LA HOTEL
 - BNI City Complex Jl. Jend Sudirman Kav.1 Jakarta Pusat
 - Phone: (62-21) 5707440
 - Fax: (62-21) 5702657
 - Rooms: 669
 - Class: *****
- HOTEL MULIA SENAYAN
 - Jl. Asia Afrika Senayan, Jakarta
 - Phone: (62-21) 5747777
 - Fax: (62-21) 5747888
 - Class: *****
- JAKARTA HILTON INTERNATIONAL HOTEL
 - Jl. Gatot Subroto PO .BOX 3315, Jakarta Selatan
 - Phone: (62-21) 5703600, 587981, 583051
 - Fax: (62-21) 5733089, 5733091
 - Rooms: 1130
 - Class: *****
- GRAND HYATT JAKARTA HOTEL
 - 4th Floor Plaza Indonesia Jl. MH Thamrin 28-30
 - PO BOX 4546/JKT 10045
 - Phone: (62-21) 3107400,3901234
 - Fax: (62-21) 334321,3107300
 - Rooms: 450
 - Class: *****
- MIDPLAZA INTER-CONTINENTAL HOTEL
 - Jl. Jen. Sudirman Kav.10-11 Jakarta 10220
 - Phone: (62-21) 2510888
 - Fax: (62-21) 2511777, 2512807
 - Class: *****

- BOROBUDUR JAKARTA HOTEL
 - Jl. Lapangan Banteng Selatan PO.BOX.1329 JKT Jakarta Pusat
 - Phone: (62-21) 3805555, 3440300
 - Fax: (62-21) 380 9595, 359741
 - Rooms: 864
 - Class: *****

- LE MERIDIEN JAKARTA HOTEL
 - Jl.Jend Sudirman Kav. 18-20 Jakarta Pusat
 - Phone: (62-21) 5711414, 2513131
 - Fax: (62-21) 5711640
 - Rooms: 267
 - Class: *****

- MANDARIN ORIENTAL HOTEL
 - Jl. MH Thamrin PO BOX 3392 Jakarta Pusat
 - Phone: (62-21) 3141307
 - Fax: (62-21) 314860
 - Rooms: 455
 - Class: *****

- FOUR SEASON HOTEL
 - Jl. H.R Rasuna Said, Jakarta 12920
 - Phone: (62-21) 2523456
 - Fax: (62-21) 2524480
 - Class: *****

- SAHID JAYA HOTEL & TOWER
 - Jl. Jend Sudirman 86 PO BOX 41 Jakarta Pusat
 - Phone: (62-21) 5704444
 - Fax : (62-21) 5733168
 - Rooms: 750
 - Class: *****

- LE CRISTAL HOTEL
 - Jl. Tarogong Raya 17 Pondok Indah Jakarta Selatan 12430
 - Phone: (62-21) 7507050-60/70
 - Fax: (62-21) 7507110
 - Rooms: 328
 - Class: *****

- ANCOL TRAVELODGE
 - Jl. Lodan Timur No.7 Jakarta Utara 14430
 - Phone: (62-21) 6405641
 - Fax: (62-21) 3405645
 - Rooms: 309
 - Class: ****

- CENTURY PARK HOTEL
 - Jl. Pintu I Senayan, Jakarta Pusat
 - Phone: (62-21) 5712041
 - Fax: (62-21) 571219-3
 - Rooms: 630
 - Class: ***

- Quality Hotel(Jakarta Airport Hotel)
 - Terminal 2E, Soekarno-Hatta International Airport, Jakarta
 - Phone: (62-21)559-0008
 - Fax: (62-21)559-0018
 - Class: ***

- Sheraton Bandara Hotel
 - Soekarno-Hatta International Airport, Jakarta
 - Phone: (62-21)559-7777
 - Fax: (62-21)559-7700
 - Class: *****

차. 식당

인도네시아 식당에서 계산서 상에 세금과 팁(Tax 밑에 Service로 명시됨)이 미리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만일 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별도의 도장이나 표시가 계산서에 표기되어 있다면, 약 10%를 팁으로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다.

1) 한식당

자카르타에는 약 80개의 한국식당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음식가격은 탕이나 짜게류는 미화6-7\$로 한국보다는 다소 비싸고, 고기류는 싼편으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대부분의 한국식당들은 자카르타 남부와 땅거랑, 짜까랑 등 한국인 및 기업 소재지에 몰려있다.

□ 자카르타 중부

- 가 나
 - 주소: Landmark Bid. Ground Floor, JL. Jalan Sudirman No.1 Jakarta
 - TEL: 252-0077, 571-0909
 - 참고: 복어 요리 전문의 일반식당

- 뉴 코리아타워
 - TEL: 3193-0311/0112
 - 주소: Bank Bumi Daya Plaza 30th Fl Jl Imam Bonjol No. 61 Jakarta 10310
 - 참고: 자카르타 중심부 30층 고층빌딩에 소재

□ 자카르타 남부

- 다 슬
 - TEL: 251-2030, 251-2031
 - 주소: KOMPLEX TAMAN RIA SENAYAN UNIT E2, 1, JL.GERBANG PEMUDA NO.3 JAKARTA 10720
 - 참고: 공항가는 고속도로와 인접, 공항출영송시 유리
- 대감집
 - TEL. 7279-4206
 - 주소: JL. MELAWAI VI/IA (BLOCK M), Jakarta
- 산타 코리아
 - TEL: 720-6091, 722-9911
 - 주소: Jl. Senayan No.21,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 참고: 강장/보양식 전문
- 가효
 - TEL: 5289-7044
 - 주소: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akarta Selatan
 - 참고: 급탕, 갈비 전문
- 마포식당
 - TEL: 7279-2479
 - 주소: Jl. Senayan No.19,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 참고: 탕종류가 유명함
- 수라청
 - TEL : 527-8721, 527-8722
 - JL. Senopati No. 49 Kebayoran Baru, Jakarta
 - 참고: 연회장 구비
- 토 박
 - TEL. 720-3642, 7280-0753
 - 주소: JL. Woltermonginsidi No.30, Jakarta
 - 참고: 깔끔하고 정갈한 일반 한식
- 토 담
 - TEL. 521-0230
 - 주소: JL. Senopati No. 55 Kebayoran Baru, Jakarta
 - 참고: 손칼국수 전문
- 한국관
 - TEL. 726-2703, 720-7322
 - 주소: JL JEND SUDIRMAN NO.1, Jakarta (HILTON HOTEL에서 1.5KM)
 - 참고: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한국식당
- City Seoul
 - TEL: 5289-7506
 - 주소: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akarta Selatan
 - 참고: 깔끔하고 정갈한 일반 한식

2) 중식당

- 가야성(TEL. 720-9355): 한국식 중식당
- 늘라안 (TEL. 570-0235)
- 밍 가든 (TEL. 521-0505)
- 드레곤 시티 (TEL. 522-1933)
- Ahyat Seafood(TEL 570-5333)
- Christal Jade Palace (TEL 574-4888)

3) 일식당

- Kisoya(TEL 574-7581): 한국식 일식당
- 김삿갓(TEL 722-2230): 사시미, 스시 전문점
- Bushido (TEL 570-0723): Sahid Jaya 호텔 내
- Honzen(TEL 570-7796): Midplaza Inter Continental 호텔 내
- Kyoka(TEL 526-6688)
- Kirishima(TEL 526-8080): Gran Melia Hotel 내
- Asuka(TEL 5798-8888): Marriot호텔 내

4) Steak House

- Angus House(TEL 570-0198)
- The Grill(TEL 570-6200)

5)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

- Sate Tomang (TEL 567-3243):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인도네시아 식당
- Sari Kuring (TEL 515-5302): 한국사람이 많이 찾는 인도네시아 대중 식당
- Pondok Laguna (TEL 345-9991): 한국사람이 많이 찾는 인도네시아 대중 식당
- Kembang Goula (TEL 520-5651): 서구식 고급 인도네시아 식당
- Sari Bundu (TEL 633-0575): 인도네시아의 매운 음식을 대표하는 빠당 음식
- Bakmi GM (TEL 515-2693): 인도네시아의 인기 국수 체인점

카. 관공서 관행

아직도 매우 낙후된 행정처리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관료적인 성향이 강하다.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 보다는 권리 의식이 강하여 소위 말하는 ‘꿇발’을 부리려는 경우가 많다. 조직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관행화 되어 있어, 예를 들어 어떤 업무에 대해 상급자에게 요청을 해도 실무담당자선에서 해결이 안된 경우가 많다. 자신의 업무이지 상급자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태도이다.

또한 이권부서에서는 비리가 공공연하게 성행되고 있어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기업활동 시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커미션을 항상 10-20% 사전에 계산해 두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할 정도이다. 해외 투자자들이나, 국제기구에서도 인니의 부패문제를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이 발표한 2004년 국가청렴도 순위에서 인니는 146개국 중 133위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10월 취임한 유도요노 대통령은 부정 부패 척결을 정책의 중심 과제로 삼고 부패방지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2005년 5월에는 부패방지위원회와는 별도로 대통령 직속으로 부패범죄척결 팀을 구성하였다. 부패범죄척결 팀은 검찰총장, 경찰청장, 재정개발감독청장 등 3인의 고문과 4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패관련 조사와 수사를 하여 매 3개월마다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토록 되어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부정과 부패가 국가의 최대의 적이라는 인식하에 부정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이와 같은 조치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세관 관리들이 수입화물의 전수 검사를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킨다거나, 인허가 관련 관리들이 위험도가 높아졌다는 이유로 전보다 고액의 뇌물을 요구하는 일도 생기고 있다.

실제 일선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은 신정부가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노력한지 2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 부패가 줄었다는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독일에 소재한 국제 투명성기구가 2007년 10월 27일에 발표한 국가별 부패지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10점 만점에 2.3점을 획득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143위를 기록했다. 이는 06년 보다 13단계 후퇴한 기록이며, 지수도 0.1포인트 하락하였다. 아시아 32개국에서도 25위를 차지한 인도네시아 보다 더 부패한 아시아 국가는 방글라데시, 파푸아뉴기니, 캄보디아 등으로 났다.

하지만 2005년 이후 국영은행인 Mandiri 은행 총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아체주 주지사, BKPM청장, 사법위원회 의원 등 고위직 공무원들이 부정혐의로 구속되는 등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는 보여지고 있다. 부패 척결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만큼 일시적이 아닌, 강도 높고 지속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반 공무원 급여를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인상해 공무원 처우를 대폭 개선하면서, 부정부패 단속을 강화하는 당근과 채찍을 모두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타. 공휴일

1) 2008 년 공휴일

- 1월 1일(화) New Year's Day
- 1월 10일(목) Islam New Year(회교 신년)
- 2월 7일(목) Chinese New Year(구정)
- 3월 7일(금) Hari Raya Nyepi (힌두교 신년)
- 3월 20일(목) Birth of Prophet(마호메트 탄신일)
- 3월 21일(금) Good Friday
- 5월 1일(목) 예수 승천일
- 5월 20일(화) Waisak Day(석가탄신일)
- 7월 30일(수) 마호메트 승천일
- 8월 18일(월) 독립기념일
- 10월 1일(수)-2일(목) 르바란 휴일 (실제 9월 29일 ~ 10월 3일)
- 12월 8일(월) Idul Adah
- 12월 25일(목) Christmas Day
- 12월 29일(월) Islam New Year(회교 신년)

2) 참고사항

인도네시아 정부는 명절과 주말 사이에 낀 샌드위치 데이는 단체휴가일로 정하여, 공휴일은 아니지만 연가에서 공제하고 단체로 휴가를 주도록 권하고 있다. 공무원은 모두 휴무하며, 회사들도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권고를 수락, 대부분 휴가를 주고 있다.

2008년에는 1월 11일, 2월 8일, 5월 2일, 5월 19일과 이슬람 최대명절인 르바란전후의 3일(9월 29일, 30일, 10월 3일), 12월 28일 등 총 8일이 단체휴가일로 지정되어 있다.

파. 여행시 유의사항

인도네시아인은 대부분 회교도들로서 왼손을 불결하게 여기기 때문에 악수, 물건 수수 등 타인과 접촉할 때 오른손을 사용하고, 머리를 만지는 것을 싫어하며 술에 취하는 것은 불손한 행위로 여긴다.

특히 작은 현지식당에 갔다가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들어갈 경우,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장지 대신 받아놓은 수도물로 뒷처리를 하게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상 휴지를 지니는 것이 좋다(왼손으로 화장지 없이 뒷물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식사나 악수에 왼손을 사용하지 않다)

수돗물은 식수로 쓸 수 없어, AQUA, ADES, OASIS 등 생수를 마시도록 하며 식당에서도 가급적 음료에 얼음은 넣지 않도록 한다. 특히 장이 약한 사람은 현지 식당에서 날 채소를 먹는 것도 삼가도록 한다. 깨끗하지 않은 물로 채소를 씻을 수 있기 때문이다(식당에서는 'WATER'보다 'AQUA'라는 말을 더 쉽게 알아듣는다. 원래 AQUA는 브랜드명이지만 이제는 생수를 의미하는 일반 명사처럼 되었다)

또한 인니가 열대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추워서 감기에 걸리는 여행객들이 많다. 호텔 방이나 사무실의 에어컨이 너무 세서 냉방병에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텔방에서 취침할 시는 자기 전에 온도를 조정해 놓거나 에어컨을 끄는 것이 좋다.

여성의 미모나 치장에 대한 언급을 삼가야 하고, 대낮에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노상 절도행위 혹은 소매치기가 간혹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하며 특히 저녁에 홀로 외출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압은 220V 이므로 휴대 전기용품 사용시 주의하고 봉사료의 경우, 공항 또는 호텔의 포터에게는 짐 1개당 5,000루피아 정도 팁을 지불해야 하니 사전에 잔돈을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당 Bill에는 대개 10%의 봉사료가 포함되므로 별도 팁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식당에 따라서는 Bill에 'No Service Charge'라고 적혀 나오는 수가 있는데, 이는 팁을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팁이 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니 10% 미만의 팁을 주는 것이 좋다.

인니 방문기념으로 현지식당(유명식당 제외)에서 인니 음식을 맛보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니식당은 비위생적인 곳이 많으므로 삼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인니는 조류독감 다발지역으로 자카르타에서 여러 명이 사망하였으니 개인 위생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조류독감은 열이 많이 나고 호흡에 곤란을 겪는 증세를 보이니 이러한 증세가 나타나면 바로 병원으로 간다. 또한 뎅기열도 인니의 풍토병이라고 할 수 있으니 가급적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카르타 시내는 교통 혼잡이 심하여 시간 예측이 쉽지 않으므로 시간 약속이 있는 경우 충분한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경우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 중에서도 우리의 모범택시에 해당하는 검정색 대형 Silver Bird 택시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 택시요금은 비싸지 않아 자카르타 시내에서 1시간을 타도 미화로 10\$을 넘지 않는다.

대중교통으로 버스가 비교적 많이 있으나, 요금이 2,500 루피아인 도시 고속버스 Trans Jakarta나 3,500 루피아인 버스웨이 버스 정도만 외국인이 탈 수 있고 나머지 시내 버스는 매우 혼잡하고, 낡고, 소매치기도 많아 외국인이 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하. 유용한 연락처

-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대사관
 - 주소: JL GATOT SUBROTO NO.57, JAKARTA, INDONESIA
 - 전화: 520-1915
 - 대사: 이 선진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 주소: Suite 2102,Wisma GKBI, JL. Jendral Sudirman Kav.28,Jakarta
 - 전화: 574-1522
 - 팩스: 572-2187, 572-2204
 - 관장: 김 병권
- 수출보험공사
 - 주소: Suite 2104,Wisma GKBI, JL. Jendral Sudirman Kav.28,Jakarta
 - 전화: 570-5565
 - 팩스: 574-1470
 - 소장: 김 은성
- 석유 공사
 - 주소: 17th Floor, Gedung BRI II, JL. Jendral Sudirman No. 44-46,Jakarta
 - 전화: 5793-2517
 - 팩스: 5793-2519
 - 지사장: 권 흠삼
- KOICA
 - 주소: JL GATOT SUBROTO NO.57, JAKARTA, INDONESIA
 - 전화: 522-7771
 - FAX : 525-4735
 - 소장: 이 중선
- 외환은행
 - 주소: 12TH FL Wisma GKBI, JL. Jendral Sudirman Kav.28,Jakarta
 - 전화: 574-1030
 - FAX : 570-7189
 - 은행장: 조 종수

- 수출입은행
 - 주소: Menara Mulia 2007, JL. Gatot Subroto Kav. 9-11, Jakarta
 - 전화: 525-7261
 - FAX : 525-7260
 - 은행장: 신 재용

- 우리은행
 - 주소: BRI II BLDG., 11TH FL., JL.Jendral Sudirman, JAKARTA
 - 전화: 571-3366/8
 - FAX: 571-3369
 - 은행장: 이민재

- 대한항공
 - 주소: 7TH WISMA BANK DHARMALA, JL.Jendral Sudirman KAV.28, JAKARTA
 - 전화: 521- 2180
 - FAX: 521-2179
 - 지점장: 김 창모

- 기타 인니내 주요 연락처
 - 대사관 당직전화: 0811-852-446
 - 국제전화 신청: 101, 104
 - 시내전화 안내: 108
 - 경찰(일반범죄): 110
 - 서울직통전화: 001-82-2-전화번호
 - 재인니한인회: 521-2515
 - 한국병원: 5296-1522/24
 - 서울 메디칼 센터: 799-1333
 - 뉴월드 메디칼 클리닉: 7279-3809
 - 한국 국제학교: 844-4961
 - 블루버드택시 호출: 794-1234

- 주요 호텔 연락처
 - Hyatt: 390-1234
 - Hilton Hotel: 573-8011, 570-3600
 - Hotel Mulia Senayan: 574-7777
 - Sahid Jaya Hotel: 570-4444
 - Mandarin Hotel: 314-1407
 - Hotel Inter continental Midplaza: 251-0888
 - Hotel Shangrila: 570-7440
 - Marriott Hotel: 5798-8888

▣ 기타 유용한 정보

1) 주요 쇼핑센터

자카르타 시내의 주요 쇼핑센터로는 최고급 쇼핑로로 자카르타 남부 스나얀 지역에 소재한 플라자스나얀이나 스나얀시티 쇼핑몰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에 필적할 만한 고급쇼핑몰로 자카르타 남부 뽀독인다 지역의 뽀독인다 쇼핑몰이 있다.

이들 쇼핑몰에는 세계적인 브랜드의 특판매장들이 대부분 입주해 있어 어느 국제도시에 뒤지지 않은 고급 쇼핑몰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출장자나 방문객들이 주로 찾는 쇼핑몰은 자카르타의 명동이라 할 수 있는 블록엠 지역의 ‘빠사라야’백화점과 자카르타 지역의 세종로라 할 수 있는 탐린 지역의 ‘사리나’백화점을 들 수 있다.

이 두 백화점은 관광객들이 기념품이나 선물로 많이 찾는 전통 공예품과 폴로 셔츠 그리고 전통의상인 바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쇼핑몰이다.

2) 특산물

인도네시아의 특산물로는 의류로는 전통 정장인 바틱이 대표적이며, 공예품으로는 목공예품이나 은세공품, 우각(소뿔) 조각 등이 유명하며, 보석으로는 남양 진주와 은제품이 좋다.

또한 현지에서 즐기기에 다양한 과일류(과일의 왕 두리안, 과일의 여왕 망기스 등)와 현지 음식으로 닭, 소, 염소 꼬치구이가 한국사람들에게 인기이다.

▣ 관광 명소

□ 독립기념탑 (MONAS)

자카르타 중심부 띠린가에 위치하고 있는 이 탑은 독립기념광장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방형의 음을 나타내는 대(臺)위에 양을 나타내는 탑을 조화시킨 건축물이다. 1945년 8월 17일 인니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이 탑의 높이는 137M이며, 탑의 꼭대기는 불꽃 모양의 황금으로 도금되어 있다. 이 황금불꽃은 1995년에 독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도금된 금의 양을 34KG에서 50KG으로 증축하였다.

탑의 상층부에는 전망대가 있어서 내부의 엘리베이터로 올라가 볼 수 있으며,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바다를 볼 수도 있다. 탑의 하층부 지하에는 역사 이전의 시대부터 인니 고대왕국, 네덜란드와 일본의 지배, 독립 과정까지의 과정이 파노라마식으로 꾸며져 있다. 또한 그 윗층에는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과 하타부통령이 선언했던 독립선언문이 소장되어 있고 선언 당시 음성도 직접 들을 수 있다. (관람시간 08:30-1700)

□ 독립광장 (MERDEKA SQUARE)

독립기념탑을 중심으로 워싱턴 광장을 표본으로 만들어진 이 광장은 방사선상으로 뻗어 있으며, 푸른 잔디와 나무들로 어우러진 자카르타 시민들의 휴식처이기도 하다. 매주 일요일 아침에는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이들, 태권도를 배우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곳은 무료 공원이며 사진을 찍기에도 좋은 장소여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 대통령궁(ISTANA PRESIDENT)

1942년까지 화란 총독에 의해 사용되다 독립 후 대통령의 공관으로 사용되었던 이 궁은 네덜란드 지배 당시 총독부의 궁전이었으나 지금은 외국에서 오는 국빈을 대접하는 파티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해마다 독립기념일인 8월17일에는 궁전 앞 뜰에서 기념식이 성대하게 개최된다. 이 건물은 전체가 흰색으로 되어 있으며, 밤이 되면 건물에 불이 밝혀져 한층 더 아름답게 보인다.

□ 회교사원 (Masjid ISTIQLAL)

이슬람 교도들이 90% 이상인 인니에서는 어느 곳을 가나 회교사원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한 사원이 바로 이곳이다. 아시아권 최대의 사원이며 전세계 적으로 3번째로 큰 곳이다.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1961년에 건설이 시작되어 1978년 수하르토 대통령 시절에 완성된 거대한 사원으로서 이 나라가 이슬람국가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다. 기존구조로는 거대한 여러 개의 큰 기둥을 비롯해서 회교사원의 기본양식인 둥근 탑과 뾰족한 철탑도 가지고 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시경에는 많은 이슬람 신자들이 합동 예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으며, 매년 이슬람의 최대 행사인 르바란에는 대통령도 이곳에서 예배를 본다.

□ 국립박물관 (MUSEUM PUSAT)

이 박물관은 1862년 네덜란드 식민지시대에 착공하여 1967년에 완공되었다. 그 당시에는 'BATAVIAACSH GENOOTSCHAP VAN KJNSTEN EN WETENSCHAPPEN'(인니 문화를 사랑하는 인니 거주 네덜란드인의 모임) 이라고 불렸다. 독립 후 1979년 5.28일 "인니 국립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시품목도 더욱 다양하게 보충하였다. 이 박물관의 주요 전시내용은 선사시대 도구 '피테칸트로프스 에렉투스(자바원인)'의 두개골을 비롯하여 돌도끼, 토기, 동물의 뼈, 가죽으로 만든 연장 등 고고학적 발굴품, 고대 화폐, 역사적 물품, 각 지방문화 물품, 각종 미술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관람시간: 화.수.목.일요일 08:30-14:30/금요일 08:30-11:30/토요일 08:30-13:30/월요일은 휴관)

□ 안쥘 유원지 (ANCOL)

1967년에 완성된 총면적 552Ha의 대규모 종합유원지로서 정식 명칭은 (TAMAN IMPIAN JAYA ANCOL)이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든지 즐길 수 있도록 골프장, 요트장, 볼링장, 수영장 등의 스포츠 시설과 나이트클럽, 디스코텍, 가라오케, 마사지실 등의 성인 오락시설과 수족관, 놀이동산 등의 아이들을 위한 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인니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유원지이다. 해안을 끼고 있는 이 유원지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자카르타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 따만미니 인도네시아

흔히 '따만미니'로 불리우는 이곳 민속촌의 정확한 명칭은 'TAMAN MINI INDONESIA INDAH'이다. 번역하면 '아름다운 인도네시아의 작은 공원'이 된다. 이 공원은 1970년대 초 수하르토 대통령의 부인인 이부 틴 수하르토 여사의 제안으로 건설이 시작되었다. 특별한 관광명소가 없는 자카르타에서 가장 각광 받는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이 곳은 모든 자카르타 방문객들의 필수코스여겨지고 있으며, 또한 인니 초중고 학생들이 한번은 꼭 오게 되는 견학코스으로도 유명하다.

'여기에 오면 인니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100Ha를 넘는 넓은 공간내에 인니 27개주 각 지방의 문화 및 주거, 의상 등을 전체적으로 엿볼 수 있게 해놓았다. 또 공원 중앙에는 큰 인공호수가 있으며, 그 안에는 인니의 지도모양을 한 인공 섬들이 지도처럼 꾸며져 있다. 짧은 시간이나마 이곳을 관람하게 되면, 인니를 한 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관람시간 09:00-1700/월 휴관).

□ 수하르토 박물관(Purna Bhakti Pertiwi)

수하르토 대통령 재직시절 국내외 인사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전시하고있는 박물관이다. 오랜 기간 동안 큰 권력을 행사한 대통령에서 상아제품, 도자기, 공예품 등 수천점의 진귀한 물건들이 전시되어있어 한번 볼만하다. 특히 따만 미니 인도네시아와 바로 붙어있어 따만미니와 함께 관람하기가 아주 용이하다. 박물관 현관에는 수하르토 대통령의 출생부터 대통령시절 업적까지 일대기를 파노라마 형식으로 목판에 조각하여 전시하고 있어 인니 역사를 아는데도 도움이 된다. 따만 미니 바로 옆에 있다(관람시간 09:00-1700/월 휴관)

□ 보고르 식물원(Kebun Bayar Bogor)

자카르타에서 약 60km 거리에 위치하며 87ha의 공원안에 인도네시아와 세계 각지의 희귀 식물 15,000여종이 전시되어 있다. (관람 시간 08:00-17:00)

□ 따만 사파리(Taman Safari)

뽕짝 산 기슭에 위치한 자동차를 타고 동물들을 볼 수 있는 동물원이며, 외부에는 별도의 어린이 동물원과 놀이공원이 소재해 있다. 그러나 휴일에는 교통체증이 아주 심하니 조심해야 한다. (관람시간: 평일 09:00-17:00/ 휴일 08:30-17:30)

□ 반둥 화산 및 온천

해발 2,096m 높이에 거대한 분화구가 있는 서부자바 최대의 화산이 있으며, 산기슭에 노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레저 타운이 형성되어 있다. 자카르타에서 자동차로 약 3시간 소요된다.

□ 족자카르타(Yogyakarta)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한시간 거리에 있는 인니의 古都이다. 한국의 경주에 비교되는 곳으로 많은 불교사원과 힌두사원들이 혼재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원으로는 세계 7대 불가사의중 하나라는 불교사원인 보르부드르 사원과 가장 아름다운 힌두사원이라는 뽕람바난 사원을 들 수 있다. 또 족자카르타는 아직도 왕(Sultan)이 있는 곳으로 왕이 주지사를 맡고 있다. 그 밖에 인니의 전통 직물인 바틱공장과 은세공품 가공공장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자카르타에서 아침에 출발, 오후 늦게 돌아오는 당일 관광이 가능하다.

그러나 2006년 5월 족자카르타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뽕람바난 사원 일부가 훼손되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인근의 활화산인 머라피가 6월까지 분출위험이 높았으나 최근에 위험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화산관광을 하려는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8. 물가정보

□ 도시 : 자카르타(인도네시아)			- 환율 : US\$1 = RP9,100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 100%)	536.08	7.1	구두(1켤레, 소가죽)	80.00
1.2	넥타이(1개, 실크 100%)	41.24	7.2	치약(150g, 1개)	0.50
1.3	와이셔츠 (1벌, 면 100%, 긴팔, 흰색, 현지브랜드)	17.00	7.3	칫솔(1개)	1.00
1.4	양말(1켤레, 면 100%, 현지산)	2.30	7.4	면도기(1세트)	4.18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1,340.21	7.5	건전지(1세트, 1.5V AA)	0.50
1.6	스타킹(1켤레, 밴드타입, 현지브랜드)	16.00	7.6	화장지(1통, 300매)	0.50
1.7	청바지(Levi's)	35.00	7.7	비누(1개)	0.62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5.00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3.50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3.51	8.2	볼펜(12개)	1.20
2.3	닭고기(1KG, 생닭)	1.00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0.80
2.4	쌀(1KG, Short Grain)	1.03	8.4	공CD(1통, 12개입, 700MB)	6.19
2.5	밀가루(1KG)	0.57	8.5	휴대폰(범용형)	220.00
2.6	설탕(1KG, 백설탕)	0.67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6.7
2.7	계란(10개)	1.03	8.7	인터넷가설비(1회 최초, 1회 설치)	150.00
2.8	감자(1KG, 현지산)	0.67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60.00
2.9	미네랄워터(1.5ℓ, Evian 1Pet)	1.41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24,432.99
3.1	고추장(1Kg)	7.14	9.2	엔진오일(1L)	6.9
3.2	된장(1Kg)	3.71	9.3	휘발유(1L)	0.61
3.3	라면(1개)	0.71	9.4	자동차등록비(2,000cc)	185.57
3.4	설령탕류(1인분, 설령탕, 곰탕등)	7.73	9.5	자동차보험료(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515.46
3.5	불고기(1인분, 200g)	10.31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6.00	10.1	지하철(1구간)	없음
3.7	김치찌개(1인분)	6.00	10.2	시내버스(1구간)-에어컨 장착	0.55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0.55
4.1	햄버거(1개)	1.00	10.4	택시(추가요금/Km)	0.02
4.2	피자(1판)	6.0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0.45	11.1	전화개통비(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85.00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0.89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7.00
4.5	담배(수입산, 1갑)	1.03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평상)	0.03
4.6	위스키(1병, 750ml)	36.07	11.4	공중전화(3분, 시내평상)	0.04
4.7	커피(1병, 175g)	1.50	11.5	국제전화(현지-서울, 3분, 평상)	2.05
	5. 주택(150㎡)		11.6	국내우편(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0.35
5.1	[임차] 중급아파트 (침실 3개미만, Semi-finished)	1,500	11.7	국제우편(일반편지, 1통, 10g 이하, 현지-서울)	0.46
5.2	[임차] 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1,500	11.8	특급우편(DHL, 1개, 1Kg 이하, 현지-서울)	44.31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5%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06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0~300%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0.42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6.49
6.1	TV(29인치, 칼라, 범용)	402.06			
6.2	VTR(6헤드, 범용)	187.53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롬보)	185.57			
6.4	전자레인지	118.55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592.78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237.11			

□ 도시 52 : 자카르타(인도네시아)			- 환율 : US\$1 = RP9,100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42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월급여-자카르타)	900.56
12.2	외국인학교(등록금, American School)	없음	18.2	상여금(월급여대비%,연간)	100%
12.3	외국인학교(기부금-3년치)	10,000	18.3	사회보장부담금(월급여대비%,연간)	3.94~5.44%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13,400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12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15,500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3개월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15,500	18.6	연간국경일	14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일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 그린피(비회원,18홀,1라운드.)	72.16	18.8	노동쟁의시 냉각기간일수	없음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종신 양도가능)	7,731.96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시간
13.3	골프공(1타)	25.77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360.82	19.1	법정최저자금	2,061.86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11.00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5,000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4.5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주)참고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개인소득세)	주)참고
14.1	의료보험료(4인가족,FullCover,치과제외)	주)참고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11~15%
14.2	병원진료비(의료보험×,몸살감기,내과초진)	20.62			
14.3	병원진료비 (의료보험○,몸살감기,내과초진)	주)참고		※ 14.1 의료보험은 별도로 없으며, 근로자 사회보장제도 내 임의보험으로 운영	
14.4	치과(스켈링,1회)	30.93			
14.5	약품(해열제,아스피린,10정)	0.26		※ 18.3 고용주부담(3.94~5.44%)	
	15. 신문·방송·잡지			※ 19.1 규정상 2천만루피이나 외투 기업의 경우 사업타당성에 따라 최저 자본금을 권고함	
15.1	현지신문(1개월,현지 유통지)	6.5			
15.2	한국신문(1개월)	43			
15.3	케이블TV(1개월,기본시청료)	21		※ 19.3 세제혜택은 없으며, 10, 15, 30%로 업종에 따라서 구분됨	
15.4	잡지(1부,Time 혹은 Newsweek)	4.5			
	16. 호텔			※ 19.4 인니네 발생 소득 20%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부과	
16.1	특급호텔(정상요금,싱글1박,시내중심지)	195			
16.2	특급호텔(할인요금,싱글1박,시내중심지)	100			
16.3	중급호텔(정상요금,싱글1박,시내중심지)	49.9			
16.4	중급호텔(할인요금,싱글1박,시내중심지)	40.21			
16.5	조식(특급호텔,Continental Breakfast)	12.37			
16.6	조식(중급호텔,Continental Breakfast)	5.61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 급여, 대졸초임)	300.00			
17.2	사무실비서(월 급여, 학력불문)	150.00			